월간 문화예술정보지

예술에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2010 11 Vol·227



러시아 마린스키 발레단

부산문화회관

culture.busan.go.kr

부산문화회관 재개관 기념 기획공연

CJ Entertainment, Seol&Company and Charlotte Theatre present

HOT STAR! HOT RETURNS!

M·U·S·I·C·A·L

42ND STREET

브로드웨이 42번가

11월 27일(토) 오후 4시, 8시 / 28일(일) 오후 3시, 7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특별한 시간! 특별한 42번가

예매 인터파크 (1544-1555)

문의 1599-7448

박상원 박해미 최성희(바다) 김법래 이정화 방진희 정명은 박동하 김영주외 | NAVER 뮤지컬42번가™

| 주최 | 부산광역시 PUSAN METROPOLITAN CITY 부산경남 대표방송 KNN | 주관 | 부산문화회관 SPA엔터테인먼트 공연마루 | 제작 | SEOL & COMPANY

부산문화회관 재개관 기념 기획공연

세종솔로이스츠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Sejong Soloists



2010. 12. 21 화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주최 | 부산광역시 주관 | 부산문화회관

문의 | 부산문화회관 공연과 (051-607-6057) 홍보마케팅부 (051-607-3100)

입장권 | R석 40,000원 S석 30,000원 A석 20,000원

예매 | 홈페이지 http://culture.busan.go.kr

김선욱
피아노 리사이틀

Kim Sun Uk
Piano Recital

2010. 11. 24(수) PM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주최 SOONG IN CULTURAL FOUNDATION 사)숭인문화재단 주관 YE-SUNG Planning Presented 공연기획 예성 공연문의 051_ 582_ 2026

티켓예매 ticketlink INTERPARK 티켓 BS 부산은행전지점 BS 팝부산 R석 6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B석 2만원

Contents





08 **커버스토리**

러시아 마린스키 발레단 '백조의 호수'

10 **프리뷰**

16 **문화가 화제**

가을 풍성한 음악의 향연

18 **반갑습니다**

부산시립교향악단 협연자로 부산무대 서는
세계적인 첼리스트 지안 왕

20 **은현리 풍경 속에서 詩를 읽다 ⑪**

11월의 지는 꽃을 위하여 | 정일근

22 **해외통신원과 떠나는 지구촌 문화현장**

뉴욕에서 만난 조선통신사 | 장은혜

26 **영화로 만나는 클래식음악 ⑪**

영화 '엘비라 마디간' | 이동신

28 **불멸의 거장, 치바이스 ③**

'五出五歸' 다섯 번의 여행, 그리고 山居 | 김남희

30 **나의 애청음반**

가을의 전설 트리스탄과 이졸데 | 김의호

31 **헬로우 부산, 원더풀 코리아**

정겨운 부산, 부산 사람들 | 안나 기르소바

32 **그곳에 가면**

외고산 옹기마을

34 **리뷰**

'사랑의 묘약'과 부산오페라계의 묘약은? | 하순봉

다시 호명된 거장의 혼,
부산국제영화제에서의 만남 | 김희진

36 **우리는 문화가족**

한국하모니카예술단

38 **프로그램 가이드**

57 **100자 토크**

58 **새로 나온 음반, 새로 나온 책**

60 **부산문화회관 소식**

예술에의 초대 2010 + 11 Vol·227

발행처 |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608-024 부산광역시 남구 문화회관길1(대연 4동 848-4)
Tel.051-120(주간), 051-607-6221(야간), Fax.051-607-3109
발행인 | 최성달 **편집인** | 박원철 **편집장** | 백경옥 **발행일** | 2010년 10월 25일
인쇄처 | 신우정판사 Tel.051-469-2661~2 Fax.051-469-0710

11 November 2010 부산문화회관 공연안내

전시실

- ▶ 초암 이상백서전
  10월 29일(금)~11월 6일(토) – 중전시실
  문의 : 이상백(010-2882-5604)
- ▶ 한·중 현대미술 작품전
  11월 5일(금)~11월 11일(목) – 대전시실
  문의 : K-ART(806-1004, 010-8980-5684)
- ▶ 제 24회 동아대학교 예술대학 조각과 졸업 작품전
  11월 12일(금)~11월 18일(목) – 중전시실
  문의 : 화영호(010-2698-8945)
- ▶ 부산서예비엔날레 제 8회 국제공모대전
  11월 12일(금)~11월 15일(월) – 대전시실
  문의 : (사)부산서예비엔날레
  (863-8177, 011-557-7791)
- ▶ (사) 부산서원연합회 휘호대회 전시
  11월 19일(금)~11월 21일(일) – 대전시실
  문의 : 김종두(317-8845, 010-7100-1200)
- ▶ 제 30회 부산미술제
  11월 23일(화)~11월 28일(일) – 대·중전시실
  문의 : 부산미술협회(632-2400)
- ▶ 제 43회 동아대학교 예술대학 회화과 졸업 작품전
  11월 29일(월)~12월 2일(목) – 대전시실
  문의 : 이희연(010-7754-5201)

국제회의장

- ▶ 서현무용학원 발표회 '핑크빛 무지개를 찾아서'
  11월 7일(일) 오후 3:00
  문의 : 노시현(010-3582-4867)
- ▶ 부산국제합창제
  11월 11일(목)~11월 13일(토) 오전 10:00
  문의 : 한국합창조직위원회(622-0534)
- ▶ 제 8회 부산서예비엔날레 국제공모대전 시상식
  11월 15일(월) 오후 2:00
  문의 : 박후상(011-557-7791)
- ▶ (사) 부산서원연합회 휘호대회 전시 시상식
  11월 21일(일) 오후 1:00
  문의 : 김종두(010-7100-1200)

SUN	MON	TUE
	1 중 |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 제 30회 피아니스트 페스티발 '김선화 독주회' 19:30 균일 1만원/박지은(010-5160-0968)	**2** 중 |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 제 30회 피아니스트 페스티발 '쇼팽 탄생 200주년 기념 쇼팽의 밤' 19:30 균일 1만원/박지은(010-5160-0968)
7 소 | 흙피리 오카리나 제 20회 정기연주회 15:00 무료/이학봉(010-4323-3872)	**8** 대 | 제 2회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The Classic 아시아의 창(窓) 부산 '브람스의 비전 부산의 비전' 19:30 초대/KNN(1577-7600) 중 | 신정희 발레단 제 18회 정기공연 오페라 명작 '마술 피리' 19:30 3만원·2만원/신정희발레단(010-8510-4784)	**9** 중 | 부산피아노듀오협회 제 40회 정기연주회 '솔로연주' 19:30 균일 1만원/김진희(010-9928-3733) 소 | 제 29회 신라대학교 무용학과 졸업작품발표회 '그녀들의 파티' 19:30 무료/신라대학교(999-5301), 박미향(010-8217-1031)
14 대 | 2010 제 28회 대한민국 국제음악제 중국 내셔널 심포니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17:00 10만원·8만원·5만원·3만원 코리아 인 아트(070-4063-9910) 중 | 김은실 피아노 독주회 19:30 초대/김은실(010-2920-7040) 소 | 부산 닥터스 클라리넷 앙상블 제 5회 정기연주회 17:00 무료/김태훈(010-7543-0883)	**15** 중 | 부신전자음악협회 제 16회 정기공연 '2010 부산국제 멀티미디어 음악축제' 19:30 초대/이동관(010-3873-7983) 소 | 최혜련 피아노 클래스 연주회 19:30 무료/최혜련(010-3752-7106)	**16** 중 | 독일가곡연구회 제 37회 정기연주회 19:30 1만원·5천원/김현식(011-566-4172) 소 | 초등분과음악발표회 19:30 무료/정현주(010-9780-9248)
21 대 | 해운대청소년오케스트라 창단 10주년 기념 연주회 17:00 초대/구명희(010-2849-2689) 중 | 5人愛 해피콘서트 18:00 균일 1만원/디아트(010-8368-2445) 소 | 부산재즈색소폰앙상블 창단연주회 19:00 균일 1만원/김승모(010-9271-0626)	**22**	**23** 중 |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Open Rehearsal 합창의 자격' 19:30 균일 5천원/부산시립합창단(607-3141~2)
28 대 | 부산문화회관 재개관 기념 기획공연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 15:00, 19:00 12만원·10만원·8만원·6만원 SPA엔터테인먼트(1599-7448) 소 | 2010 새물결 동인 춤 모음전 17:00 부산무용협회(632-5116)	**29** 중 | 제 27회 뮤즈앙상블 정기연주회 19:30 균일 2만원/임병원(010-8533-4917) 소 | 피아노 소사이어티 '클랑' 정기연주회 19:30 균일 1만원/민강은(010-5898-1957)	**30** 대 | 부산문화회관 재개관 기념 기획공연 장사익 소리판 '역' 19:30 10만원·8만원·6만원·3만원/부산문화회관(607-6057)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WED	THU	FRI	SAT
3 중 |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 제 30회 피아니스트 페스티발 '솔로와 듀오의 밤' 19:30 균일 1만원/박지은(010-5160-0968)	**4** 중 |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 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2010 웰빙콘서트 Dance in Classic IV 11:00 균일 1만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소 | 예송음악학원 제 7회 정기연주회 19:30 허지나(010-5445-4474)	**5** 대 | 부산문화회관 재개관 기념 기획공연 러시아 마린스키 발레단 내한공연 '백조의 호수' 19:30 15만원·13만원·10만원·8만원·5만원 부산문화회관(607-6057) 중 | 징시안 시엔 초청 피아노 리사이틀 19:30 3만원·1만원/아트뱅크코레아(442-1941) 소 | 차미령 피아노 독주회 19:30 초대/차미령(010-2364-5949)	**6** 대 | 부산문화회관 재개관 기념 기획공연 러시아 마린스키 발레단 초청 내한공연 '백조의 호수' 15:00 15만원·13만원·10만원·8만원·5만원 부산문화회관(607-6057) 중 |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제 39회 정기연주회 19:30 2만원·1만원/(사)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017-842-6688) 소 | 토요상설무대-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연주회 16:00 무료/부산문화회관(607-6056)
10 대 | 2010 부산국제합창제 개막축하공연 '세계 청소년 합창의 밤' 19:30 무료/한국합창조직위원회(622-0534) 중 | 부산피아노듀오협회 제 40회 정기연주회 '듀오연주' 19:30 균일 1만원/김진희(010-9928-3733) 소 | 2010 부산국제합창제 합창세미나 14:00 한국합창조직위원회(622-0534)	**11** 대 | 2010 부산국제합창제 갈라콘서트 19:30 무료/한국합창조직위원회(622-0534) 중 | 2010 부산국제합창제 경연대회 10:40 무료/한국합창조직위원회(622-0534	**12** 대 | 2010 부산국제합창제 갈라콘서트 19:30 무료/한국합창조직위원회(622-0534) 중 | 2010 부산국제합창제 경연대회 10:20 2010 부산국제합창제 우정의 콘서트 19:30 무료/한국합창조직위원회(622-0534)) 소 |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하늘아래 그 콘서트 vol.15 '데이 브레이크' 20:00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607-6058)	**13** 대 | 2010 부산국제합창제 경연대회 10:20 무료/한국합창조직위원회(622-0534) 2010 부산국제합창제 시상식 및 폐막공연 19:30 한국합창조직위원회(622-0534) 중 | 2010 부산국제합창제 경연대회 14:00 무료/한국합창조직위원회(622-0534)
17 중 | 2010 김희은의 춤 '하늘에 묻다' 19:30 2만원·1만원/김희은(890-2510, 011-9734-5057) 소 | 안준희 클래스 '베토벤 소나타의 밤' 19:30 선희경(010-5130-0214)	**18** 대 | 부산시립무용단 제 63회 정기공연 '형사Duelist 춤! 영화를 만나다' 19:30 1만원·7천원·5천원/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중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 154회 정기연주회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위촉작품 명곡전-창단에서 오늘까지' 19:30 1만원·7천원·5천원/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1~2)	**19** 대 | 부산시립무용단 제 63회 정기공연 '형사Duelist-춤! 영화를 만나다' 19:30 1만원·7천원·5천원/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중 | 부산색소폰합주단 정기연주회 19:30 초대/김동수(010-4479-2258) 소 | 김은희 클래스 연주회 18:30 무료/김은희(010-9269-5567)	**20** 대 | 첼리스트 지안 왕 초청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64회 정기연주회 16:00 5만원·4만원·3만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중 | 바라밀합창단 창단 10주년 기념음악회 18:00 초대/바라밀합창단(404-4300, 010-8250-9789) 소 | 토요상설무대-낙동민속보존회 공연 16:00 무료/부산문화회관(607-6056)
24 중 | 김선욱 피아노 리사이틀 19:30 6만원·4만원·3만원·2만원 공연기획 예성(582-2026) 소 | 2010 새물결 동인춤 모음전 19:30 부산무용협회(632-5116)	**25** 중 | 제 14회 부산여성문화회관 미루샘합창단 정기연주회 19:30 초대/고봉수(010-4434-6605) 소 | 2010 새물결 동인춤 모음전 19:30 부산무용협회(632-5116)	**26** 중 | 2010 미즈챔버콰이어 제 3회 정기연주회 19:30 3만원·2만원·1만원/이찬미(010-2595-8425)	**27** 대 | 부산문화회관 재개관 기념 기획공연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 16:00, 20:00 12만원·10만원·8만원·6만원 SPA엔터테인먼트(1599-7448) 중 | 한얼정악연구소 제 15회 정기공연 특별기획 30년 시조외길 정인경 정가 무대 '삶은 가락을 타고' 19:00 초대/정인경(011-870-8597) 소 | 2010 새물결 동인춤 모음전 17:00 부산무용협회(632-5116)
12/1 대 | 신라대학교 무용학과 부산, 양산 지역 순회공연 19:30 무료/신라대학교 무용학과(999-5301)	**12/2** 대 | 부산시립교향악단 청소년을 위한 특별공연 11:00 균일 2천원/부산문화회관(607-6046) 중 | 부산시립극단 청소년을 위한 특별공연 '나의 라임오렌지나무' 11:00 균일 2천원/부산문화회관(607-6046)	**12/3** 대 | 부산시립교향악단 청소년을 위한 특별공연 11:00 균일 2천원/부산문화회관(607-6046) 중 | 부산시립극단 청소년을 위한 특별공연 '나의 라임오렌지나무' 11:00 균일 2천원/부산문화회관(607-6046)	**12/4** 대 | 영화음악플러스콘서트 19:00 부산선진화포럼(256-7614) 중 | 2010 송영훈 첼로 리사이틀 17:00 5만원·4만원·3만원/더 스톰프(02-2658-3546) 소 | 토요상설무대-부산시립합창단 연주회 16:00 무료/부산문화회관(607-6056)

-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초대(무료) 공연은 반드시 주최측에 문의 바랍니다.
- 자세한 공연안내는 http://culture.busan.go.kr을 click하세요.





세계발레의 살아있는 역사
러시아 마린스키 발레단 내한공연

백조의 호수 *Swan Lake*

11월 5일~6일 금요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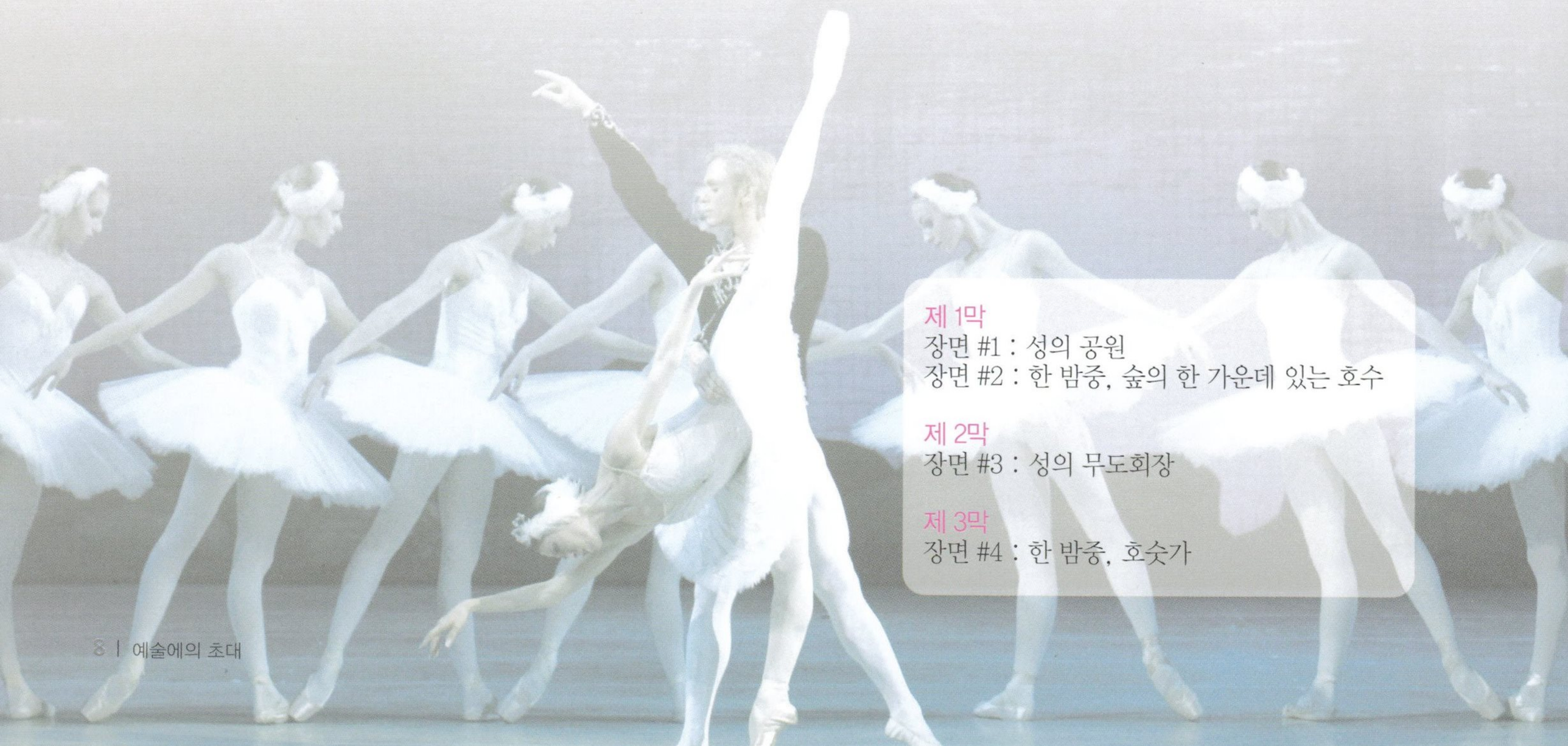
작 곡 표트르 차이코프스키
대 본 블라디미르 베기체프 , 바실리 게르체르
안 무 마리우스 프티파, 레프 이바노프(1895)

개정안무 및 무대감독 콘스탄틴 세르게예프(1950)
무대디자인 시몬 비르살라제
의 상 갈리아나 솔로비요바

주요 출연진

5일 오데트-오딜 빅토리아 테레쉬키나(Viktoria Tereshkina), 지그프리드 왕자 안드리안 페데예프(Andrian Fadeyev),
광대 그리고리 포포브(Grigory Popov), 마법사 로스발트 콘스탄틴 즈베레브(Konstantin Zverev)

6일 오데트-오딜 울리아나 로파트키나(Uliana Lopatkina), 지그피리드 왕자 예프게니 이반첸코(Evgeny Ivanchenko)
광대 라펠 뮤신(Rafael Mussin), 마법사 로스발트 이반 시트니코프(Ivan Sitnikov)



제 1막
장면 #1 : 성의 공원
장면 #2 : 한 밤중, 숲의 한 가운데 있는 호수

제 2막
장면 #3 : 성의 무도회장

제 3막
장면 #4 : 한 밤중, 호숫가

세계 발레의 살아있는 역사, 러시아 발레의 자존심 마린스키 발레단이 한 · 러 수교 20주년을 맞아 11월 5일과 6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무대에 오른다.

250년의 장구한 역사를 자랑하며 세계 발레의 요람이 되어 온 마린스키 발레단은 우리에게 키로프라는 이름으로 더 친숙한 세계적인 발레단이다. 부산문화회관 재개관을 기념한 이번 무대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고전 발레의 명작 '백조의 호수'로 러시아 발레의 진수를 보여준다.

발레 '백조의 호수'는 1877년 볼쇼이극장에서 볼쇼이극장의 레퍼토리 디렉터인 베기체프와 발레마스터였던 겔체르 대본, 벤젤 레이징거의 안무로 초연되었다. 초연당시 참담한 실패로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백조의 호수'는 마린스키극장의 예술감독으로 있던 마리우스 프티파(Marius Petipa)에 의해 다시 세상에 알려졌다. 차이코프스키가 죽은 뒤 볼쇼이 극장에서 이 작품을 발견한 프티파는 마린스키 극장장에게 '백조의 호수'를 차이코프스키 추도공연의 레퍼토리로 공연하도록 추진했다. 프티파와 조감독으로 있던 이바노프의 안무로 2막만 추도공연으로 공연, 대호평을 받았고 다음해 1895년 1월 '백조의 호수' 전막을 무대에 올렸다. 이번에 선보이는 '백조의 호수'는 1895년 프티파-이바노프 버전의 작품으로 악마의 마법에 걸려 낮에는 백조, 밤에는 인간으로 돌아오는 오데트 공주와 그녀를 구하려는 지그프리트 왕자의 짧지만 아름다운 사랑을 그린 내용으로 발레사에 길이 남을 만한 명장면들이 있다.

이번 무대는 러시아 예술의 결정체인 마린스키 발레단의 화려한 무대세트와 의상은 물론 세계 최고의 발레리나 울리아나 로파트키나, 빅토리아 테레쉬키나를 비롯한 스타 출연진이 내한, 발레 애호가들의 가슴을 설레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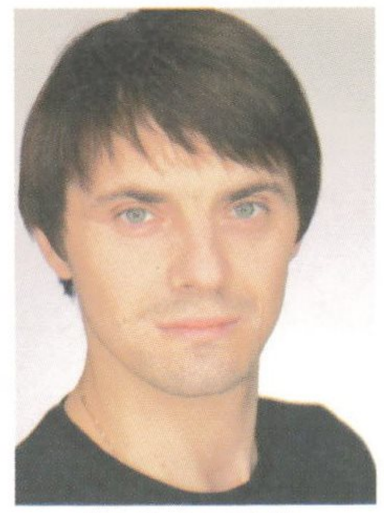
1991년 마린스키 발레단에 입단한 울리아나 로파트키나는 국제 바가노바 콩쿠르 수상(상트 페테르부르크, 1991)을 시작으로 Golden Sofit(1995), Divine 및 Best Ballerina(1996), Golden Mask(1997), Baltika(1997 및 2001 : 마린스키 극장의 위상을 떨친 그랑프리), Evening Standard(1998), Monaco World Dance Awards(2001), Triumph(2004) 등을 수상하며 세계적인 발레리나로 이름을 알렸다. 2005년 러시아 공훈 예술가 지정을 받은 울리아나 로파트키나는 6일 오데트와 오딜역을 맡아 발레애호가들과 만난다. 울리아나 로파트키나와 호흡을 맞추는 왕자역에는 예프게니 이반첸코가 열연한다. 예프게니 이반첸코는 1992년 마린스키 발레단에 입단, 1996년부터 솔로이스트로 활동해왔다.

또 한 명의 오데드-오딜로는 빅토리아 테레쉬키나가 열연한다. 2008년 러시아 공훈 예술가가 된 빅토리아 테레쉬키나는 2001년 마린스키 발레단에 입단했다. 빅토리아는 제 9회 아라베스크 국제발레콩쿠르, 2006년 발레 紙에서 수여하는 Spirit of Dance(2006년 라이징 스타)상과 2006년 발레 옹딘에서 물의 여왕 역으로 발레 공연 최고의 역할을 수행한 자에게 수여되는 Golden Sofit(극장 최고영예의 상)상을 수상했다. 빅토리아 테레쉬키나는 5일 러시아 공훈 예술가 안드리안 페데예프와 호흡을 맞춘다. 1995년 마린스키 발레단에 입단한 안드리안 페데예프는 1997년부터 수석 무용수로 활동해왔다. 국제 바가노바 콩쿠르(1995)에 입상하고 발티카상(1998 년)을 수상한 안드리안 페데예프는 크리스토퍼 휠든의 For Four(2008)로 발레 공연 최고의 역할을 수행한 자에게 수여되는 Golden Sofit 수상을 수상했다.


빅토리아 테레쉬키나


안드리안 페데예프


울리아나 로파트키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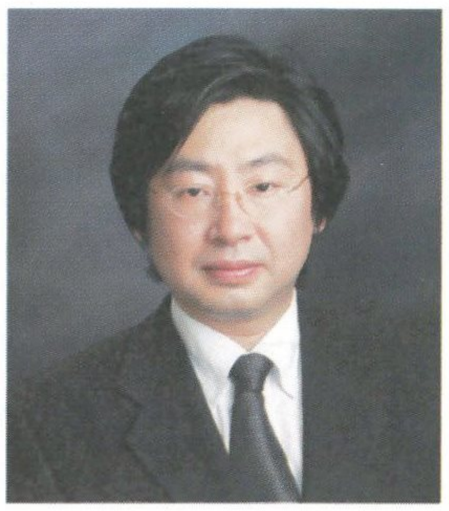

예프게니 이반첸코

• 문 의 부산문화회관 공연과(607-60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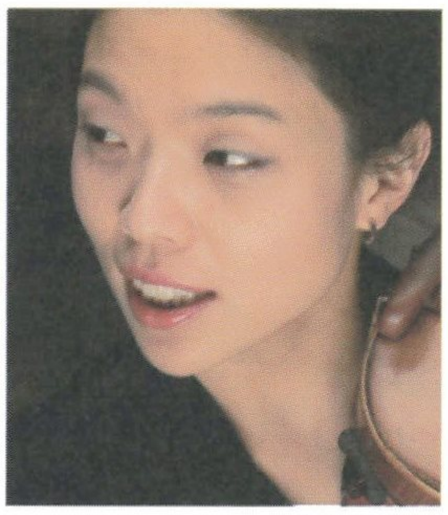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2010 웰빙콘서트 Dance in Classic IV'

좋았던 시절-왈츠, 폴카, 마주르카, 차르다시

11월 4일 목요일 오전 11: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지휘 이동신


해설, 진행 김문경


바이올리니스트 임가진


소프라노 성정하

저녁 시간 공연장을 찾을 수 없는 청중들을 위한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 기획공연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2010 웰빙콘서트' 마지막 무대가 11월 4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무대는 클래식 음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도 다소 평가절하된 측면이 있는 춤곡을 조명한 'Dance in Classic' 마지막 무대로 '좋았던 시절-왈츠, 폴카, 마주르카, 차르다시'로 다양한 춤곡들을 들려준다.

부산시립교향악단 지휘자 이동신의 지휘, 음악칼럼니스트 김문경의 해설로 진행되는 이번 무대는 바이올리니스트 임가진, 소프라노 성정하, 안무가 김희쟁이 브람스 '헝가리 무곡'을 시작으로 '좋았던 시절-왈츠, 폴카, 마주르카, 차르다시'의 열정적인 무대를 열어준다.

해설을 맡은 김문경은 말러의 생애와 교향곡 분석을 집대성한 '구스타프 말러' 3부작을 완간하여 음악애호가의 찬사와 더불어 언론의 조명을 받았다. 각종 언론매체에 기고와 저술활동을 통해 음악칼럼니스트로서의 지평을 넓혀온 그는 현재 클래식 음반 전문매장 '풍월당', 대구 수성아트피아에서 음악강의를 개설하여 활동하고 있다.

바이올리니스트 임가진은 줄리아드 음대, 맨해튼 음대에서 음악수업을 하고 귀국,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을 거쳐 현재 서울시립교향악단 제2바이올린 수석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1년 대만국립교향악단 솔리스트로 초청되어 타이충 등 대만 4개 도시에서 연주한 임가진은 국내에서는 부산시립교향악단, 대구시립교향악단,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부산신포니에타, 수원시립교향악단 등과 협연한 바 있다. 오랜만에 부산무대에 서는 임가진은 이번 무대에서 라벨의 치간느를 들려준다. '치간느'의 반주 없는 도입부는 즉흥적인 느낌을 갖게 하며 주요 부분은 집시풍의 동기에 기초하는 환상곡이다.

요한 스트라우스 2세의 오페레타 '박쥐' 중 '여보세요, 후작님(아델레의 웃는 노래)', '고향의 소리(로잘린데의 차르다시)'를 들려줄 소프라노 성정하는 이탈리아 푸치니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귀국, 금난새 오페라시리즈 라트라비아타, 한·중 음악교류 초청음악회, 부산, 마산, 김천, 목포시립교향악단, 폴란드 브라티슬라비아 챔버 오케스트라 협연 무대 등을 통해 음악애호가들과 만나왔다. 성정하는 이탈리아 국제 콩쿠르 NOTE d'rodo에서 2위 입상한 바 있다.

이 곡 외에도 스메타나 '팔려간 신부' 중 '폴카', J.슈트라우스 2세 '기차여행' 폴카, 시벨리우스 '쿠올레마' 중 '슬픈 왈츠', 들리브 '코펠리아' 중 '왈츠-마주르카-차르다시'로 2010년 'Dance in Classic'의 대미를 장식한다. 들리브 '코펠리아'에서는 브이쉬발레단 대표 김희쟁의 안무로 춤과 어우러진 클래식 음악의 매력을 전해준다.

- 관람료 균일 10,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 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위촉작품 명곡전 창단부터 오늘까지

11월 18일 목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11월 18일 부산국악계에 큰 획을 그은 그동안의 활동을 되돌아보며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위촉작품 명곡전-창단부터 오늘까지'라는 타이틀로 국악애호가들을 위한 특별한 무대를 연다.

전통음악의 깊은 정신과 아름다운 정서를 현대적 레퍼토리로 창조해 내고 있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김철호 수석지휘자가 지휘하고 울산대학교 교수 여인호,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전혜정이 협연하는 이번 무대는 창단부터 현재까지 국악관현악단에서 위촉한 작품들 중에서 많은 사랑을 받은 명곡을 엄선, 창작 국악관현악의 매력을 전해준다.


수석지휘자 **김철호**

첫 곡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창단공연 위촉곡으로 초연된 이래 널리 연주되고 있는 김기수 작곡 '청사포 아침해'로 연다. 부산 앞바다에 아침해가 떠오르고 뱃고동 소리를 울리며 떠나는 모습 등을 매우 정감있게 표현한 '청사포의 아침해'는 깨끗한 백사장이 펼쳐진 포구위로 아침 해가 솟아올라 온 누리에 퍼지기까지를 표현하고 있다. 김기수선생은 15세에 이왕직아악부에서 음악을 시작, 1939년 12월 이왕직 공모 선곡에 '황화만년지곡(皇化萬年之曲)'이 당선되면서 신국악 창작을 시작했다. 국립국악원장, 국립국악고등학교장을 지낸 김기수선생은 중요무형문화재 제 1호 종묘제례악기·예능보유자, 처용무 예능보유자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클라리넷 **여인호**

이어지는 곡은 1997년 위촉곡인 신영순 작곡 클라리넷 협주곡 '부림', 2005년 위촉곡인 김선 작곡 '축제의 향연'. '부림'은 한국전통악기와 서양악기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음악의 장르를 창출해 내고자 하는 작곡자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수원시립교향악단 수석, 유라시안 필 수석 주자를 역임하고 울산대학교 교수로 있는 클라리네티스트 여인호가 협연한다. '축제의 향연'은 부산국제영화제, 부산바다축제, 부산비엔날레, 부산세계불꽃축제 등 부산에서 매년 열리는 다채로운 문화축제가 미래지향적인 축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낸 곡이다.


거문고 **전혜정**

후반부 무대는 2010년 위촉곡 '이렇게 슬픈 날에는' '우삭도' 초연 무대로 마련된다. 부산대학교 황의종 교수가 작곡한 '이렇게 슬픈 날에는'은 눈이 부시도록 파란 하늘을 보면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은 아련한 그리움을 표현한 작품이다. 1악장은 아련한 그리움을 나타내는 주제 선율을 대금과 해금으로, 2악장은 물 흐르는 듯이 유려한 선율로 행복해진 마음을 표현한 곡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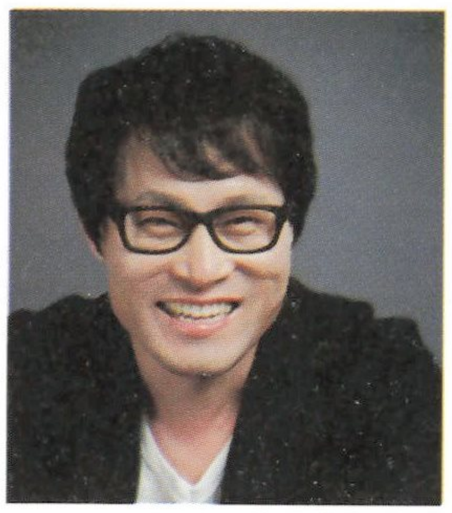
마지막 무대를 장식하는 '우삭도'는 부산을 상징하는 오륙도의 첫 번째 섬인 우삭도의 아픔과 슬픔을 거문고로 표현한 강봉천의 창작곡이다. 우삭도는 태평양 전쟁 시 일본의 방어진지가 오륙도 인근에 있어 대형폭탄 세례를 4차례 당하면서 섬이 깎여 나가는 아픔을 겪으면서 또 우(又), 깎일 삭(削), 섬 도(島)를 써서 우삭도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늘소리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전혜정이 우리민족의 아픔을 담고 있는 우삭도를 거문고 선율에 담아낸다.

- 관람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 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1~4)

형사DUELIST 춤 영화를 만나다

Dance Meets Movie...

11월 18일-19일 목-금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수석안무자 **홍기태**

지난 5월 끝없이 넓고 큰 바다를 항해하는 갈매기의 꿈을 춤언어로 그려낸 '허허바다-갈매기의 비상'을 선보인 부산시립무용단이 11월, 영화 '형사DUELIST'를 춤으로 재해석한 새로운 창작무대 '형사DUELIST- 춤! 영화를 만나다'로 부산무용애호가들과 만난다.

수려한 영상미와 연출기법으로 사랑받고 있는 이명세 감독의 2005년 영화 '형사DUELIST'를 춤 무대로 옮겨온 이 작품은 영화 속 캐릭터에서 무용수로 이어지는 끊임없는 흐름을 통해 영상과 춤이 한 작품 속에 녹아있는 새로운 장르의 창작무용작품이다. 영화 '형사DUELIST'는 발표 당시 눈이 시리도록 황홀한 색조와 무용이 가미된 액션으로 탐미주의의 극치를 선사한 작품으로 평가 받았다.

수석안무자 홍기태가 안무, 구성을, 허은희가 대본, 연출을 맡은 '형사DUELIST- 춤! 영화를 만나다'는 영화의 뛰어난 영상과 부산시립무용단 단원들의 춤사위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연출을 맡은 허은희는 California Institute of the Arts 영화연출과를 졸업하고 현재 동의대학교 교수, 부산아시아단편영화제 집행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0년 허은희 감독이 직접 각본과 연출, 제작을 맡은 장편영화 '심장이 뛰네'는 2010 LA International Film Festival 심사위원 특별언급상, LA Asian Pacific Film Festival 공식경쟁부문초청, Philadelphia Independant Film Festival 공식경쟁부문초청, Napa-Sonoma Wine Country Film Festival 'Best of Best'초청, 상파울로 국제영화제 공식경쟁부문 초청, 로마국제영화제 EXTRA 공식경쟁부문에 초청되기도 했다.

영화의 이야기는 단순하다. 열혈 포교 남순은 안포교와 함께 장안에 떠도는 가짜 상평통보의 출처를 밝히기 위해 조사에 착수하던 중 '슬픈 눈'과 맞닥뜨린다. 잡아야 하는 상대지만 묘한 동질감을 느낀 남순은 갈등한다. 슬픈 눈과의 반복되는 마주침과 숙명적인 대결 속에서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의 감정이 싹트고, 결국 병판의 그릇된 야심을 알아차린 슬픈 눈은 남순에게 위조 엽전을 만들기 위해 거래한 구리 장부를 건네 병판의 음모를 알린다. 슬픈 눈의 배후에 역모를 꾀하는 병판 대감이 있음을 알고 남순과 안포교는 물증을 잡기 위해 과감히 담을 넘는다.

이번 작품에서는 시립무용단 단원 류권홍이 슬픈 눈(강동원)을, 안주희가 남순(하지원), 최의옥이 안포교(안성기), 이정식이 병판(송영창)으로 열연한다.

- 관람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가족할인이벤트(3+1)와 우수감상후기 이벤트)
- 문 의 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첼리스트 지안 왕 초청 연주회

11월 20일 토요일 오후 4: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동양인 최초로 도이치 그라모폰 입성으로 화제를 모은 세계적인 첼리스트 지안 왕(Jian Wang)이 부산시립교향악단 협연자로 11월 20일 부산 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지휘자 리 신차오가 지휘하고 첼리스트 지안 왕이 협연하는 이번 무대는 보헤미아의 정서가 깃든 드보르작의 대표적인 작품들을 선곡, 가을의 낭만과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

음반의 예술성, 대중성을 갖춘 연주자로서 정상 가도를 달리고 있는 첼리스트 지안 왕은 10살 때 다큐멘터리 영화 '모택동에서부터 모차르트까지 : 중국의 아이작 스턴'에 출연하면서 세계에 이름이 알려졌다. 아이작 스턴의 지지와 후원으로 미국 유학길에 오른 지안 왕은 1985년 예일음대에 입학하여 유명한 첼리스트 알도 파리소를 사사했다. 1986년 뉴욕 카네기 홀에서 공식 데뷔한 지안 왕은 이후 국제적인 명성을 얻기 시작하여,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말러 청소년 오케스트라, 리카르도 샤이가 지휘하는 로얄 콘체르트헤보우 오케스트라(암스테르담, 중국투어)와의 공연으로 일찍부터 각광받았다.


수석지휘자 리 신차오


첼리스트 지안 왕

필라델피아, 보스톤, 디트로이트 클리블랜드, 시카고 심포니, NHK 심포니, 취리히 톤할레, 스톡홀롬 필하모닉, 산타 체칠리아, 파리 오케스트라, 말러 챔버, 카메라타 잘츠부르크 등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구스타보 두다멜, 샤를 뒤투와, 정명훈, 앨런 길버트, 엠마누엘 크리빈 등 유명한 지휘자들과 함께 공연한 지안 왕은 2010/11시즌에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지휘/크리스티안 예르비), 신시내티 심포니오케스트라(지휘/루이 랑그리)와의 공연을 앞두고 있으며, 홍콩 필하모닉, 스웨덴 챔버 오케스트라, 스코틀랜드 챔버 오케스트라와 재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도이치 그라모폰에서 많은 음반을 발매한 지안 왕은 최근 발표한 첼로와 기타로 편곡된 '몽상'과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을 비롯해 카메라타 잘츠부르크와 함께 바로크 앨범, 베를린 필하모닉(지휘/클라우디오 아바도, 바이올린/길 샤함)과 함께 브람스 이중 협주곡, 무하이 탕 지휘의 굴벤키안 오케스트라와 함께 하이든 협주곡, 메시앙의 시간의 종말을 위한 사중주곡(피아노/정명훈, 바이올린/길 샤함, 클라리넷/파울 마이어) 등을 녹음했다.

이번 무대에서 지안 왕은 드보르작의 대표적인 명곡으로 고금의 첼로 협주곡 가운데 최고의 걸작이라 할 수 있는 드보르작 첼로 협주곡을 들려준다. 드보르작 첼로 협주곡의 멜로디나 화성적 구상은 당시 드보르작이 열중했던 아메리카 인디언과 흑인의 민요 등을 넣어 보헤미아 민요 음악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또 낭만파 협주곡답게 거장적 기교를 집중시켜 화려한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첼로가 노래하는 폭넓은 남성적 위엄도 느낄 수 있다. 2부에서는 드보르작이 나이 48세 때인 1889년 작곡한 교향곡 제 8번을 연주한다. 교향곡 제 8번은 가끔 신세계 교향곡의 유명세에 가리기도 하지만, 보헤미아의 시골길을 산책하는 듯 낙천적인 19세기 후반 교향곡의 최고봉에 위치한다.

- 관람료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 A석 30,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 문 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Open Rehearsal
합창의 자격

11월 23일 화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수석지휘자 김강규

모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새롭게 붐을 일으키고 있는 합창의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11월 23일 부산시립합창단이 'Open Rehearsal-합창의 자격'으로 부산시민들과 만난다.

올해 처음 선보이는 'Open Rehearsal-합창의 자격'은 청중들이 객석에서만 바라보는 무대 위의 합창을 보다 쉽고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관객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부산시립합창단과 관객이 함께 곡을 배우고 불러보는 무대이다.

'Open Rehearsal-합창의 자격'에서 마련되는 네 번의 오픈리허설 무대를 통해 청중들은 부산시립합창단과 함께 합창단원이 되어 김강규 수석지휘자의 지휘로 합창 연습방법과 소리의 조화를 이끌어내는 블랜딩 작업을 직접 경험하게 된다. 합창의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합창의 자격을 오픈리허설 무대를 통해 배우게 되는 것.

오픈 리허설곡은 객석에 있는 청중들이 평소 즐겨부르는 곡을 선곡했다. 첫 무대에서는 하얀 손수건, Top of the World, 두 번째 무대에서는 그리워라, 꽃동네 새동네, 개똥벌레, 세 번째 무대에서는 모두가 사랑이예요, 한계령, 젊은 그대 등으로, 무대와 객석이 함께 어우러지는 즐거운 합창의 매력을 선사한다.

본격적인 음악회 첫 무대는 부산시립합창단이 들려주는 오프닝 앙상블 마드리갈 합창곡 '함께 노래하자(Sing we and chant it, T.Morley)', '달콤한 사랑이여, 오라(Come away sweet Love, T.Greaves)'로 연다. '함께 노래하자' '달콤한 사랑이여, 오라'에 이어 청중과 함께 하는 오픈 리허설 1, 2, 3, 4와 부산시립합창단 단원 남순천, 손미숙, 이재원, 김창돈, 구명금으로 구성된 에피소드 앙상블이 노래하는 앙상블 무대, 남성합창무대가 이어진다. 마지막 무대는 전체 합창무대로 'Thank you for the music', 'Nella Fantasia'로 'Open Rehearsal-합창의 자격'의 대미를 화려하게 장식한다.

- 지휘/김강규
- 피아노/이승윤, 이경미
- 앙상블/권순유, 이찬미, 정재연, 백지은, 서미선, 박성환, 강은태, 김태우, 장용균, 이현성
- 에피소드 앙상블/남순천, 손미숙, 이재원, 김창돈, 구명금

- 관람료 균일 5,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 의 부산시립합창단(607-3141~2)

장사익 소리판 역(驛)

11월 30일 화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잎사귀 하나가 가지를 놓는다 / 한세상 그냥 버티다 보면 /
덩달아 뿌리내려 나무 될 줄 알았다 / 기적이 운다 /
꿈속까지 찾아와 서성댄다 / 세상은 다시 모두 역일 뿐이다'

우리시대의 소리꾼 장사익이 부산문화회관 재개관을 기념해 2년 만에 부산무대를 찾는다.

마흔 여섯 늦깎이 신인으로 데뷔한 장사익은 그동안 한국적인 혼과 정이 담긴 노래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가수 데뷔전 태평소 연주자로 이름을 알린 장사익은 1993년, 1994년 전주대사습놀이에서 장원, 1995년 KBS 국악대상 대통령상, 1996년 KBS 국악대상 금상을 수상했다. 노래는 태평소를 하던 시절 공연 뒷풀이에서 한 두 차례 부른 것이 계기가 되어 1994년 11월 본격적인 가수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장사익은 1집 '하늘가는 길'(1995년)을 시작으로 2집 '기침'(1999년), 3집 '허허바다'(2000년), 4집 '꿈꾸는 세상'(2003년), 5집 '사람이 그리워서'(2006년), 6집 '꽃구경'(2008년)과 라이브 앨범 '장사익'(2009년)까지 그동안 7장의 앨범을 발표하고 2006년 국회 대중문화, 미디어 대상 국악상을 수상했다.

이번 공연에서 장사익은 '역(驛)'이란 타이틀로 관객들과 만난다. 역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다. 장사익은 늘 그렇듯 스쳐 지나가는 '역(驛)'을 통해 오고가는 많은 사람들, 머물다 가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 삶을 반추하는 노래들로 반복되는 삶의 일상을 노래할 예정이다.

1부에서는 여행, 역, 행복, 자동차 등을, 2부에서는 기형도 시인의 엄마생각, 찔레꽃, 이게 아닌데, 허허바다 등으로 기존 음반을 통해 널리 알려진 그의 대표곡과 신곡들을 함께 들려준다. 타이틀곡 '역(驛)'은 한 신문의 '시가 있는 아침'에 소개된 김승기 시인의 시를 읽고 시인에게 직접 연락해 노랫말로 쓰고 싶다고 허락을 얻어 작곡한 곡이다.

기존의 틀에 짜여진 타 음악과의 차별성을 두고 있는 장사익표 음악. 가장 한국적인 감성과 자연스럽고, 시적인 노랫말로 늦가을 즐거움을 선사한다.

• 관람료 R석 100,000원 · S석 80,000원 · A석 60,000원 · B석 30,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5% 할인)
• 문 의 부산문화회관(607-6057), 행복을뿌리는판(02-396-0514)

가을 풍성한 음악의 향연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피아니스트 김선욱, 중국내셔날심포니오케스트라



지휘자 **오충근**



바이올리니스트 **데이비드 김**



피아니스트 **김선욱**

10월 부산국제영화제, 부산세계불꽃축제 등에 이어 11월에는 세계적인 연주자, 단체들이 풍성한 음악의 향연을 펼친다.

11월 8일 부산시립교향악단과 민간교향악단들의 대형 연합 오케스트라의 만남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산월드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2009년에 이어 2010년 부산음악애호가들을 찾아온다. 부산의 교향악 역사를 대변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과 민간 오케스트라의 연주자, 미국 필라델피아, 미시시피, 일본 도쿄필의 연주자, 세계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출신의 아티스트들 등 120여명이 함께 하는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한국 지휘계에 새로 태어난 스타로 주목받고 있는 오충근이 예술감독 겸 지휘자로, 미국 필라델피아오케스트라 100년 역사상 최초의 동양인 악장 데이비드 김이 악장으로 최고의 하모니를 끌어낸다.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올해 인간 내면의 따뜻함을 담고 있는 브람스의 음악으로 세계의 중심을 향해 나가가는 부산의 비전을 담은 '브람스의 비전, 부산의 비전'을 타이틀로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다. 특히 올해는 국내 음악인들의 교류를 통해 우수한 음악적 역량을 널리 알리고, 장래가 촉망되는 차세대 유망주를 발굴 육성하는 데 큰 의미를 가지고 의욕적인 무대를 열어준다. 브람스의 대학축전 서곡과 데이비드 김이 협연하는 브람스 바이올린 협주곡, 브람스 교향곡 1번을 들려준다.

2006년 리즈 콩쿠르에서 동양인 최초 및 최연소 우승으로 이름을 떨치며 세계적인 스타로 떠오른 피아니스트 김선욱은 11월 23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무대에서 첫 부산 독주회를 갖는다. 1988년 서울에서 태어난 김선욱은 3살 때 피아노를 시작하여 10살 때 금호영재콘서트 시리즈의 독주회 무대를 통해 데뷔하였다. 데뷔 무대 이후 꾸준한 주목을 받으며 서울시립교향악단, KBS 교향악단 등 국내 유수 오케스트라와 정기적인 협연 무대를 가진 김선욱은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훌륭한 무대를 선보이는 연주자로 성장했다. 이번 무대에서는 슈베르트 방랑자 환상곡, 후지쿠라 다이 줄, 무소르그스키 전람회의 그림 등을 들려준다.

그 외 11월 14일 부산문화회관에서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지휘자 리신차오가 이끄는 중국 내셔날 심포니오케스트라 내한공연, 11월 21일 을숙도문화회관에서는 권위있는 해석의 바이올리니스트 미리암 프리드, 열정과 음악성을 두루 갖춘 피아니스트 조너선 비스, 풍부함 감성의 지휘자 폴 비스가 함께 하는 '가을의 기억과 歌族'이 가을 부산음악계를 빛내준다.

16개국 41개 합창단이 참여하는 경연과 축제의 한마당

2010 부산국제합창제

11월 10일~11월 13일 부산문화회관, 영도문화예술회관 등



2005년 APEC을 기념해 부산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부산국제합창제 2010년 합창축제가 11월 10일 개막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4일간 부산문화회관을 비롯한 부산전역에서 펼쳐진다.

그동안 국내보다도 해외에서 더 알려져 있던 문화와 예술의 도시 부산의 이미지를 알려온 부산국제합창제는 올해 미국, 체코, 러시아, 가나, 중국,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폴 등 세계 15개국 21개의 우수합창단과 국내 20개 합창단이 참가하여 열띤 경연과 콘서트를 펼친다. 특히 올해는 최근 상영된 영화 '하모니'와 KBS 방송사의 예능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합창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여느 때보다 열기가 뜨겁다.

11월 10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막이 오르는 개막공연에는 국내 청소년합창을 대표하는 부산 및 성남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아프리카 가나와 체코에서 온 청소년 합창단 등 각 대륙의 수준 높은 청소년 합창단이 출연하는 개막공연 '세계청소년합창의 밤'이 펼쳐진다. 11일과 12일에는 필리핀 노말대학합창단, 중국 BG콰이어, 인도네시아 ITS대학합창단, 러시아 나스트로니합창단 등 참가합창단 중에서도 우수한 합창단을 선별하여 이틀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갈라콘서트를 개최한다. 그 외에도 공연장, 시청로비, 사회복지시설, 민주공원, 어린이 대공원 등 시민들이 손쉽게 걸음할 수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이색적인 프로그램과 함께 다양한 공연이 펼쳐진다.

뿐만 아니라 11일에는 영도문화예술회관에서 영도구 여성합창단이 대만에서 온 여성합창단과 함께 우정의 콘서트를, 12일에는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부산의 은파여성합창단, 멜로매니아 어울림앙상블이 싱가포르와 일본의 합창단과 우정의 연주회를 갖는다.

특별 프로그램으로 국제적인 영화의 도시로 알려진 부산의 이미지에 걸맞게 합창과 영화 '하모니'와 '록큰록 인생'을 12일과 13일에 마련, 영상으로도 합창음악의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마음에 마음을 합하여 하나의 목소리를 만들어내기까지 수년을 준비해온 각국 합창단들의 아름다운 하모니가 11월 부산시민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한다.

■ **주요일정**

• 2010 부산국제합창제 개막축하공연 '세계 청소년합창의 밤'

11월 10일(수)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출연/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성남시립소년소녀합창단, 체코 세베라첵합창단, 가나 위네바합창단

• 2010 부산국제합창제 갈라콘서트 '세계합창의 향연'

11월 11일(목) – 12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중극장

11일(목) 대극장

출연/필리핀 노말대학합창단, 중국 BG콰이어, 인도네시아 ITS대학 합창단, 러시아 나스트로니 합창단

12일(금) 대극장

출연/필리핀 템파르합창단, 미국 S.T.A.R.합창단, 인도네시아 브라이자와합창단, 한국 KEPCO합창단

12일(금) 중극장

출연/부산은파합창단, 멜로메니아어 울림앙상블, 일본 권스앙상블, 싱가폴 산가브리엘합창단

• 문 의 한국합창조직위원회(622-0534)



부산시립교향악단 협연자로 부산무대 서는

세계적인 첼리스트

지안 왕

중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첼리스트 지안 왕이 11월 20일 부산시립교향악단 협연자로 부산을 찾는다.

10살에 '모택동으로부터 모차르트로'라는 다큐멘터리를 찍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 아이작 스턴에게 발탁되어 스턴의 지지와 후원으로 미국 유학길에 오른 지안 왕은 1985년 예일음대에 입학하여 특별 프로그램 하에 유명한 첼리스트 알도 파리소를 사사했다.

1986년 뉴욕 카네기 홀에서 공식 데뷔한 지안 왕은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말러 청소년 오케스트라, 리카르도 샤이가 지휘하는 로얄 콘체르트헤보우 오케스트라(암스테르담, 중국투어)와의 공연으로 일찍부터 각광받았다. 중국에서도 자랑스러운 천재로 아낌없는 사랑을 받은 지안 왕은 11살 때 상하이 교향악단과 함께 생상의 첼로 협주곡을 연주하고 14살 때 백악관 지미 카터 대통령을 위한 중국인 엄선 음악가로 뽑힌 바 있다. 보스턴 심포니와 중국 투어를 가지기도 한 지안 왕은 피아니스트 마리아 조앙 피레스와 바이올리니스트 오귀스탱 뒤메이와 함께 〈브람스 피아노 트리오〉를 함께 연주하여 1996년, 한국음반평론가협회에서 제정한 제 1회 음반평론가상 대상을 차지하기도 했다.

첫 부산 무대에 앞서 부산 음악팬들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는 지안 왕과 e-mail로 특별한 만남을 가졌다.



부산 첫 연주

지난해 윤이상 국제콩쿠르 심사위원으로 부산을 방문했었습니다. 부산은 무척 아름다운 도시였고, 꼭 다시 오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부산연주가 기다려집니다.

대관령국제음악제를 통해 만난 한국 음악팬

한국의 팬들은 세계 최고의 팬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음악에 대한 지식도 매우 풍부하고 마음이 따뜻합니다. 한국 팬들을 위해 연주하는 것은 언제나 기쁨이 되지요.

부산시립교향악단 지휘자 리 신차오

리 신차오는 제가 아는 가장 재능있는 지휘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는 이미 세계의 수많은 교향악단과 함께 굉장히 멋진 공연을 많이 했습니다. 젊은 지휘자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경험이 많은 분이지요. 흔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리 신차오와 함께 연주를 할 때면 안정적인 느낌과 믿음이 생겨 편안하게 연주에 임할 수 있어 행복감을 느낍니다.

세계무대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중국연주자들

성공의 질과 확률에 관한 것인데요, 한국은 클래식 음악 분야에서 중국보다 앞서 있지 않나요? 우리는 한국에서 여전히 많은 것을 배웁니다.

4살에 시작한 첼로 공부

아버지께서 첼리스트신데, 처음에 비올라를 주셨지요. 비올라로 마치 첼로를 연주하는 것처럼 놀았답니다. 하나의 놀이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진지하게 된 것이지요.

아이작 스턴과의 만남으로 유학길에 오르다

스승인 아이작 스턴은 저의 멘토였고, 친구이자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분이셨습니다.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위대한 음악가였고, 그 무엇보다도 한 인간으로서 위대한 분이셨습니다. 저는 그 분의 마음과 삶의 모습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아이작 스턴, 알도 파리소…훌륭한 스승들과 만나다

제 최고의 스승은 알도 파리소입니다. 위대한 첼리스트시죠. 게다가 제자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계신 스승입니다. 가르침에 임하실 때는 공정하면서 풍부한 상상력으로 독려하십니다. 저는 연주를 할 뿐, 어디에도 제자를 두고 가르치진 않습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유일한 기회는 여름 시즌에 페스티발에 참여할 때입니다.

무대밖에서는 언제나 미소

듣기가 좋군요. 제 미소가 그렇게 좋은지 미처 몰랐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미소 짓는 모습은 보기 좋고 아름답지 않나요? 또한 제가 성격이 좋은 지도 잘 모르겠어요. 때로는 급속히 마음이 상하는 경우도 있는 게 사실이지요. 누구나 성격에는 종합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서로 따뜻하게 대해야겠지요.

부산에서 연주하는 드보르작 첼로 협주곡

드보르작 첼로 협주곡은 첼로의 가장 아름다운 명곡입니다. 한 폭의 유화와 같이 곳곳에 색채감과 감정이 풍부하게 깃들어 있습니다. 첼로가 오케스트라의 한 부분이 되고, 오케스트라가 첼로의 한 부분이 되는 그런 곡입니다.

부산 음악애호가들과의 첫 만남에 거는 기대

안녕하세요. 부산 시민들께서 저의 음악을 좋아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음악과 함께 멋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996년 첫 국내 연주회를 가진 이래 세계적인 거장으로 음악애호가들의 마음을 녹이고 있는 지안 왕. 그와 함께 하는 가을 첼로의 향연이 기다려진다.

11월의 지는 꽃을 위하여

정일근 _ 시인, 경남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사진/정일근

'꽃이 지는 아침은 울고 싶어라'라고 지훈은 노래했습니다. 꽃이 피는 것은 만남이고 꽃이 지는 것은 작별이라 저도 지는 꽃 앞에서 괜히 쓸쓸해집니다. 봄과 여름의 꽃과는 달리 가을꽃이 질 때는 마음 더욱 스산해집니다.

꽃은 해를 따라 피는데 추분 지나고 나서 갈수록 해의 길이는 노루꼬리처럼 짧아지고 햇살의 온기 또한 서늘해집니다. 서리 내리는 밤이 오면 마침내 꽃은 입을 다물고 묵언의 동안거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인디언 아라파호족 달력의 11월은 '모두가 사라진 건 아닌 달'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꽃이 진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꽃이 진다고 말하지만 꽃이 져야 씨앗이 맺히는 법입니다. 씨앗은 생명이며 다음 해를 기약하는 약속이니 사실 지는 꽃은 사라지는 꽃은 결코 아닙니다.

은현리에 놀러오는 시인 중에 예쁜 꽃을 보면 꼭 씨앗을 받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꽃 저 꽃 꽤 많은 씨

은현리 풍경에서 詩를 읽다



앗을 받아가지만 꽃을 피워 놓고는 되돌아오는 대답은 '은현리에 피어있을 때 보다 아름답지 않다' 고 합니다.

꽃은 피는 자리가 제 자리고 지는 자리도 제 자리입니다. 은현리에 시를 읽는 제 작은 방이 있는 곳, 대문 입구 보안등 아래 붉은 나팔꽃이 두어 송이 피었을 때 제 마당 앞으로 옮겨 놓을까 했습니다. 보안등과 나팔꽃, 무엇인가 어울리지 않았지만 꽃이 택한 제 자리이니 그대로 두고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두어 해 지나니 나팔꽃이 수북하게 피는 풍경은 아침의 기도문 같았습니다. 시멘트 덩어리인 보안등 아랫도리를 가려주는 꽃무더기가 축복 같았습니다. 가끔 택배가 올 때 위치를 물으면 나무대문 앞에 나팔꽃이 피어있는 집, 제일 안집이라고 하면 시골마을에서 길을 잃지 않고 척척 찾아옵니다.

꽃이 지는 자리도 꽃의 자리입니다. 무거운 씨앗은 제 발밑에 거두고 가벼운 씨앗은 바람에 날려 보냅니다. 사람들은 꽃을 두고 피는 자리가 있어 지는 자리가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꽃에게, 지는 자리가 있어야 피는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한 때는 여러해살이 덩굴풀인 '박주가리'가 꽃이 피고 타원형의 씨앗주머니가 익어갈 때면 모두 따다가 모아 놓았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하얀 털이 달려있는 씨앗이 그득하게 들어있습니다. 옛사람들은 그 하얀 털로 인주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모임이 있는 자리에서 입바람으로 박주가리 씨앗을 낙하산처럼 날려 박수를 받았지만 그게 박주가리에겐 죄라는 것을 오래지않아 깨달았습니다.

꽃이 지는 11월입니다. 은현리의 모든 꽃이 지고 나면 잠시 눈꽃 얼음꽃이 꽃의 자리를 대신하겠지만 내년이면 또 다시 약속처럼, 시계처럼 꽃이 필 것입니다. 꽃이 피었다 지는 일, 그건 또 우리 삶에서 또 한 해가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노래하지만 꽃은 새로 피기 위해 지지만 사람은 늙어가는 꽃일 뿐입니다.

꽃이 필 때는 눈으로 보고 꽃이 질 때는 마음으로 봅니다. 허나 피는 꽃도 꽃이요, 지는 꽃도 꽃이니 아름답습니다. 지는 꽃도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참 거룩한 꽃의 시간입니다. 11월입니다.

뉴욕에서 만난 조선통신사

장은혜 _ 뉴욕통신원(Brough of Manhattan Community College Theater Major)

지난 10월 2일 미국 뉴욕 맨해튼은 온통 한국의 물결이었다. 뉴욕의 중심가인 맨해튼 브로드웨이 27번가부터 38번가 사이에서 제 30회 코리언 퍼레이드 & 페스티벌이 펼쳐진 것이다. 뉴욕 5대 거리 축제 중 하나인 코리언 퍼레이드 & 페스티벌이야 30년째 열려 온 것이지만 이날 행사가 유난히 뉴욕 시민들과 세계 각국 관광객의 눈길을 온통 사로잡은 이유가 있다. 바로 부산시가 파견한 조선통신사 행렬과 한국 춤 공연 등의 특별무대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4백년전 한국과 일본을 이은 평화의 사절, 조선통신사 행렬이 길고도 먼 시공을 넘어 세계의 중심 뉴욕의 한 마당에서 선을 보인 것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조선통신사 행렬은 하나의 멋진 문화상품으로서 뉴요커의 호기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그뿐 아니었다. 뉴욕은 2002년 온 세계를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던 9 · 11 테러의 현장이다. 바로 증오와 폭력의 현장에서 평화와 화합을 갈구한 행렬이 재현됐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었다.



행사당일 취타대를 필두로 통신사 수장인 정사(正使)역을 맡은 허남식 부산시장이 탄 가마와 신라대 정신혜 무용단, 남산놀이마당 등이 맨해튼 한복판을 누볐다.

이날 현장에서는 적어도 한국과 일본을 오간 조선통신사가 뉴욕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는 의문을 나타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맨해튼 중심가에 몰려든 뉴욕 시민과 세계 각국의 관광객은 옛 조선통신사 행렬의 의미를 알든 모르든 흥에 겨워했다. 그 자체로서 하나의 문화상품으로 즐기며 어깨를 들썩였고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우리 교민들은 예년과 다른 특별한 행렬을 세계인에게 선보인데 대해 남다른 자부심을 한껏 느낄 수 있었다.

한인회 관계자에 의하면 행사 준비를 위해 뉴욕 맨하탄 24번가의 한인회관 6층 사무실 공간에 조선왕조의 권위를 자랑하는 혁명기, 정사 가마, 문무관 의복, 활과 창 등 조선통신사 물품이 진열되자 이를 관람하려는 외국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행사 당일 취타대를 필두로 통신사 수장인 정사(正使)역을 맡은 허남식 부산시장이 탄 가마와 신라대 정신혜 무용단, 남산놀이마당, 비보이그룹 킬러몽키즈 등이 맨해튼 한복판을 누비며 펼친 춤과 음악은 이날 퍼레이드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다. 170여명 규모의 조선통신사 행렬이 재현되자 '원터풀'이 곳곳에서 쏟아졌다. 함께 퍼레이드를 구경한 미국인 친구는 "뉴욕의 한복판에서 4백년 전 한국과 일본의 평화 교류 행렬을 보게 된 건 큰 행운이다. 특히 인류의 평화와 화합을 기원하는 행렬이라니 더욱 반갑다"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부산에서 온 행렬단은 맨해튼 32번가 코리안타운에 마련된 특설무대에서 '조선통신사 친서교환식 및 평화마당 행사'를 갖고 허남식 시장이 일본 번주 역을 맡은 세기키 슈미 유엔 일본대표부 대사와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담은 친서를 낭독·교환한데 이어 부산을 대표한 정신혜 무용단의 한국 춤 공연과 남산놀이마당의 사물놀이, 퓨전 재즈 및 비보이 공연 등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신명나는 난장을 펼쳐 이날 코리안 퍼레





맨해튼 중심가에 몰려든 뉴욕 시민과 세계 각국의 관광객은 옛 조선통신사 행렬의 의미를 알든 모르든 흥에 겨워했다.

이드 & 페스티벌의 대미를 장식했다.

뉴욕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경상도 출신의 필자로선 참으로 감격적인 행사였다. 그동안 미국의 한인회 행사에는 대개 대한민국 정부나 서울시가 파견한 공연단이 참가해 왔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엔 부산시가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이라는 독특한 문화상품을 가지고 지역의 공연단을 파견해 세계의 중심 뉴욕을 매혹시킨 것은 동북아 중심 글로벌 도시를 지향하는 부산이 세계를 대상으로 펼친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큰 찬사를 받을 만했다.

더욱이 이번 부산 사절단의 일정은 거의 살인적인 강행군이었다. 허남식 시장을 비롯한 부산시 대표단과 공연단은 2박 4일의 짧은 일정에 14시간의 비행시간과 11시간의 시차를 견디며 오직 부산을 세계의 중심 뉴욕에 각인시키기 위해 온 정열을 다 바쳤다. 그들은 세계에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 부산을 홍보하기 위해 쏟아지는 피로와 졸음을 이기며 길거리 행진과 무대 위 공연을 멋들어지게 해 냈다. 부산사람의 화끈한 기질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리라 생각하며 다시 한 번 큰 박수를 보낸다.

필자가 무용을 전공하기 때문에 이번 코리안 퍼레이드 & 페스티벌의 여러 프로그램 중 특별히 신라대 정신혜 무용단 공연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국의 차세대 대표 무용가 정신혜 교수가 이끄는 정신혜 무용단의 실력과 열정은 바다 건너 미국의 한국무용계에서도 잘 알려져 있지만 이번 맨해튼 공연에서도 유감없이 확인됐다. 하루 전날 14시간의 비행으로 뉴욕을 찾은 정신혜 무용단에게 바로 이튿날 거리 퍼레이드 2시간, 야외무대 공연은 엄청난 부담이었다.

무용수에게 체력은 생명이다. 그런데 한국시간으로 새벽 2시쯤 되었을 시간에 무용단은 아름다운 미소와 멋들어진 춤을 추며 맨해튼 중심가를 행진했다. 그 미소와 그 몸짓 그대로 한국시간으로 새벽 4시쯤에는 수많은 뉴욕 시민과 세계 각국의 관광객 앞에서 한국무용의 아름다움을 한껏 뽐냈다. 그들은 언제 어디서건 춤을 추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았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춤에 빠져들게 했을까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얼마 전 뉴욕 지하철에서 본 무용가 피나바우쉬의 공연 포스터에 이런 글이 있었다. '나는 어떻게 춤을 추느냐에 흥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 가에



정신혜무용단은 야외무대 위와 아래로 무용수를 배치, 화려하면서도 풍성한 무대를 선보였다.

흥미가 있다'. 아마도 정신혜 무용단에게는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 그들만의 무엇인가가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이번 정신혜 무용단의 뉴욕 공연은 한국 무용의 멋을 한껏 살리면서도 기존의 그것과는 사뭇 달랐다. 우선 리드미컬한 음악은 축제의 흥을 어깨에서부터 손끝과 발끝까지 온몸으로 퍼지게 했다. 분홍색 전통의상은 한국 여인의 수줍은 미소에 살포시 실린 홍조를 연상하게 했고 무용수들의 손에 들린 앙증맞은 소고는 어느새 흥겨운 가락을 터뜨리며 여인의 성숙미를 표출했다. 야외무대 위와 아래로 배치된 무용수들의 과감한 자리 구성은 마치 하늘과 땅이 분홍으로 덮어진 듯 너무나 화려하고 풍성했다. 승무 의상의 장삼을 연상하게 하는 보라색의 긴 소매가 표현해내는 그것에는 한국 전통의 흥을 넘어 한국인들이 가진 특유의 집요함과 강인함, 그러면서도 부드러움을 동시에 느끼게 하였다.

그들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주어진 시간에 그들의 아름다움을 최대한 표출할 줄 아는 호소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 공연을 보는 내 몸은 움직이고 있었고 내 입은 추임새를 넣고 있었다. 너무나 그리웠던 음악과 몸짓들이었다. 나 뿐만 아니었다. 푸른 눈의 뉴욕 시민과 다양한 피부색을 가진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도 그 춤의 신명과 아름다움이 흠뻑 빠져들었다. 한 관객은 "신내림 춤인가?"라고 물었을 정도였다. 그만큼 무용수도 관객들도 몰입케 한 멋진 춤이었다. 뉴욕 시민 한 분은 공연이 끝난 뒤 아쉬운 듯 발길을 돌리면서 "언제 또 저 공연을 하느냐"고 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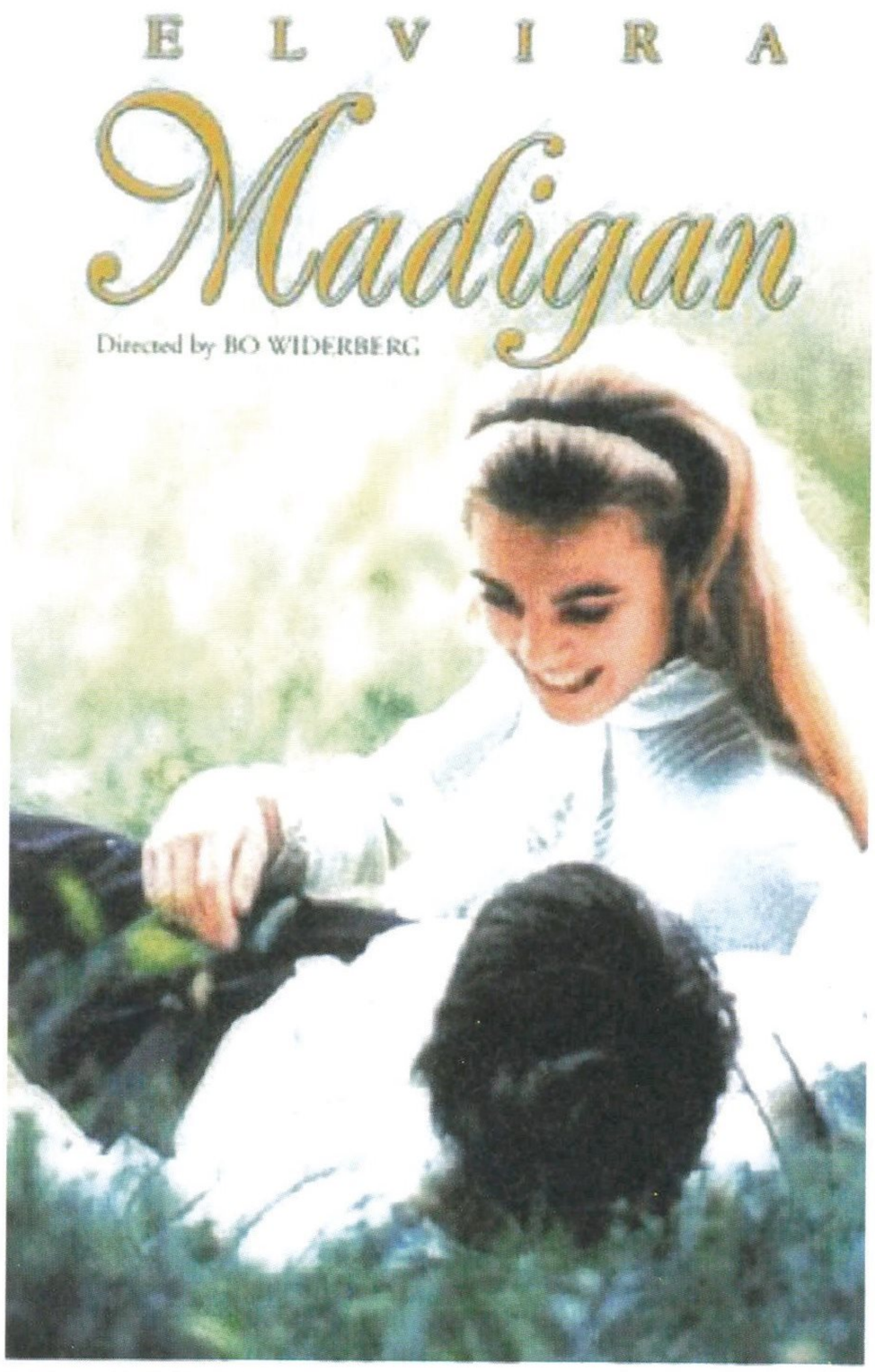
비단 정신혜 무용단 공연 뿐 아니라 남산놀이마당의 사물놀이 공연, 한국이 자랑하는 비보이 공연, 퓨전 재즈 등도 대단히 훌륭했고 박수갈채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한마디로 부산시가 이번에 뉴욕에서 펼친 조선통신사 행렬과 공연 등은 대 성공이었다. 세계 문화의 중심 뉴욕에 많은 의미를 남기고 간 뜻깊은 행사였다.

이번 공연으로 뉴욕 시민과 관광객이 부산을 얼마나 더 알게 됐을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부산이라는 도시 이름을 들으면 조선통신사 행렬과 힘찬 북소리, 아름다운 한국 춤 등의 멋진 추억을 떠올릴 것임엔 틀림없다.

다시 한번 뉴욕에서 부산과 조선통신사의 화려한 행렬을 만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영화 엘비라 마디간

이동신 _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1번 2악장이 영화 주제곡으로 사용되어 한 편의 아름다운 영화로 탄생된 영화 '엘비라 마디간'.

1994년에 발표된 노래 '칵테일 사랑'은 당시 유행하던 레게풍의 리듬에 듣기 편한 선율을 접목하여 큰 인기를 얻었다. 다음은 이 노래의 가사 중 한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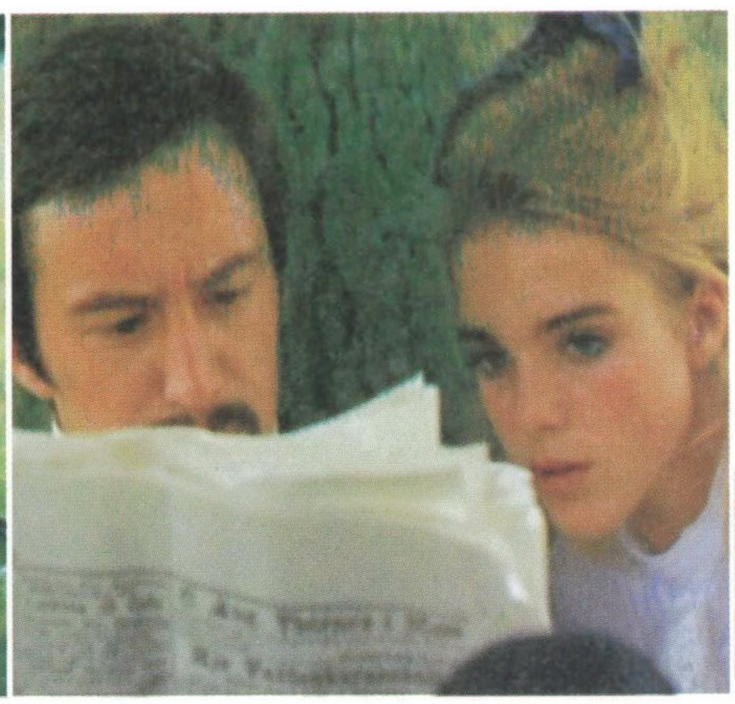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1번 그 음악을 내 귓가에 속삭여주며 아침 햇살 눈부심에 나를 깨워줄 그럴 연인이 내게 있으면…'

특히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1번의 2악장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데 그렇게 되기에는 한 편의 아름다운 영화가 큰 역할을 했다. 〈엘비라 마디간〉이란 영화의 주제음악으로 사용되어 영화 전체를 로맨틱한 분위기로 끌어가는데 일조를 하고 그 덕분에 이제는 이 음악이 〈엘비라 마디간〉이란 부제로 불릴 만큼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특히 나비를 잡으러 꽃밭을 달리는 이 영화의 명장면을 비롯하여 피크닉 장면 등에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오는 모차르트의 음악은 마치 이 영화를 위해 모차르트가 오래전에 미리 준비해 놓은 주제곡 같은 느낌을 준다. 아름다운 영상위에 흐르는 잔잔한 현악기의 피치카토반주와 영롱한 피아노 선율은 너무나도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

〈엘비라 마디간〉은 1889년에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1967년에 제작된 스웨덴 영화이다. 독일 북부의 플렌스부르크에서 태어난 엘비라 마디간. 어머니가 서커스 단원이었기에 그녀도 태어나서부터 서커스 단원으로 자란다. 예쁜 외모 때문에 인기가 많았던 그녀는 열일곱 살에 스웨덴 공연에서 처음이자 마지막 사랑을 만난다.

서른다섯 살의 남자는 스웨덴 귀족 출신의 장교인 식스틴 스파레 중위. 게다가 그는 이미 결혼을 하고 두 명의 자녀를 둔 유부남이었다. 하지만 사랑에 빠진 둘은 결국 도피행각을 벌


아름다운 영상위에 흐르는 모차르트 음악 속 잔잔한 현악기의 피치카토반주와 영롱한 피아노 선율은 너무나도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

인다.

그들은 아무도 모를 것 같은 한적한 곳에서 피크닉을 즐기며 행복한 나날을 보낸다. 가끔 마디간은 나무사이에 줄을 걸어 놓고 줄타기를 한다. 그때 여관집 주인이 그 모습을 보고 여자가 마디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두 사람의 스캔들은 신문에 기사화 될 정도로 유명한 사건이 되어버린 것이다. 사람들이 알아보면 도망가야 하는 이들은 마침내 국경을 넘나들면서 도피행각을 이어간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도피가 계속 되지는 못한다. 그 이유는 돈 때문이다. 식스틴은 탈영병이라서 취직을 못하고 대신 마디간이 춤을 춰서 돈을 구하지만 이 때문에 식스틴은 더욱 괴로워한다. 배고픈 나머지 마디간은 열매나 풀을 뜯어 먹는다. 풀을 뜯어 먹다가 그걸 토하는 그녀와 탈영병 신세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괴로워하는 식스틴은 서로 다투게 되고 강을 사이에 둔 채 토라져있다. 이때 식스틴은 종이 한 장을 강물에 띄워 보낸다. 하염없이 강물만 바라보던 마디간의 눈에 하얀 종이가 들어오고 거기에 쓰인 식스틴의 "용서해줘!"라는 말에 둘은 화해한다. 이 장면은 너무나 유명해서 후에 다른 영화에서도 인용된다.

둘은 이 사랑의 끝이 왔음을 직감한다. 식스틴이 팔씨름을 이겨서 얻은 음식을 들고 둘은 마지막 피크닉을 간다. 마디간은 풀밭에서 나비를 쫓아 뛰어다닌다. 모차르트 피아노협주곡 21번 2악장이 흐르고 마디간이 나비를 잡는 장면에서 영화는 멈춘다. 그리고 두발의 총성!

처자식이 있으면서도 사고를 치고 탈영한 어느 장교의 불륜 행각임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낭만적인 이유는 차분한 줄거리 전개와 함께 너무나 아름답게 찍은 영상이다. 화면에 가득 찬 맑은 햇살과 푸르른 신록이 엘비라역의 '피아 디거마크'의 아름다운 모습만큼이나 상큼함을 전해준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무엇보다도 관객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모차르트의 음악이다.

그러나 세속적인 이야기를 아름다운 촬영과 음악으로 포장한 '보 비더버그' 감독의 훌륭한 연출솜씨야 말로 빠뜨릴 수 없는 성공요인인데 각본에서부터 편집까지 전부 직접 작업을 했다. 영상미를 우선으로 한 감독의 차분한 연출솜씨는 그 처절한 마지막 자살순간까지도 흰 나비와 정지 영상을 통하여 매우 아름답게 표현하였다. 정지화면 위로 들리는 총소리는 누구에게나 이 끝 장면을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명장면으로 기억하게 끔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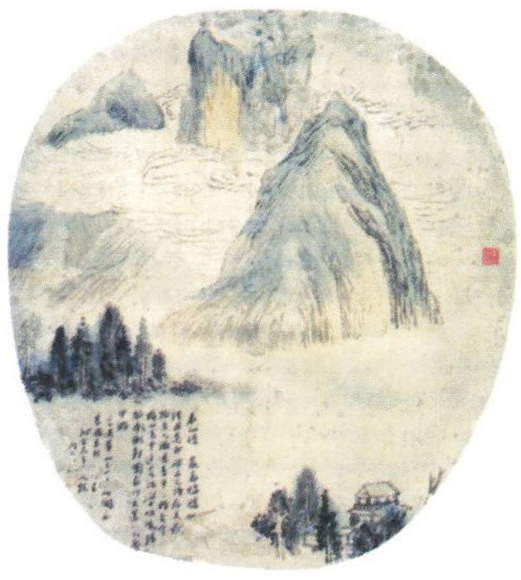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주연 여배우인 '피아 디거마크'의 눈부신 외모도 이 영화의 성공에 큰 기여를 했다. 1976년도까지 총 5편의 영화에 출연한 이 배우는 〈엘비라 마디간〉으로 1967년도 칸영화제 최우수 여우주연상과 미국 뉴욕비평가상 그리고 골든글러브상을 수상하면서 대중들에게 크게 인기를 얻는다. 그러나 이 영화 출연 후에 거식증과 약물중독으로 불운한 시절을 보내기도 한다.

요즈음은 이런 느린 템포의 순정영화를 찾기 어렵다. 세상이 빨라지다 보니 영화도 정신없이 빠른 진행으로 만들어야만 흥행이 되는 세상에서 이렇게 숨은 보석 같은 여유가 넘치는 이 영화가 더욱 귀하게 느껴진다.

'五出五歸' 다섯 번의 여행, 그리고 山居

김남희 _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용산칠자도


화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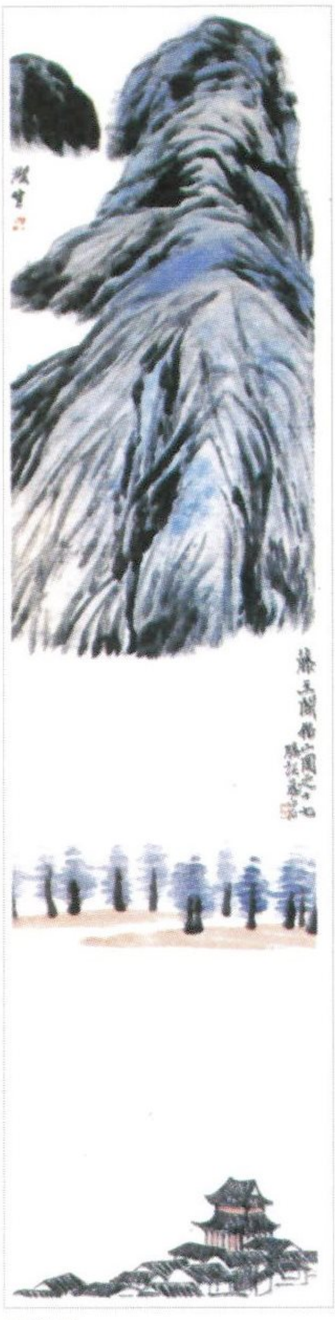
27세부터 화가의 길을 가게 된 백석은 인물, 산수, 화조 등 거의 모든 소재를 다 소화해 냈다. 그러나 그림만 잘 그리는 것으로는 일류 화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그는 항상 글공부에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의 눈물겨운 노력을 지켜보던 지인들의 소개로 고향 상담의 문화계 명사들을 하나 둘씩 만나게 되었다. 그들의 아낌과 배려로 그는 시를 짓고, 글씨를 쓰고 도장도 새길 수 있게 되었다. 물론 그 과정은 인고의 노력이 전제되는 것이었지만, 백석은 겸허하게 그리고 굳건하게 모든 시련을 이겨냈다. 그가 어엿한 화가로 북경에 진출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무려 40년이라는 긴긴 세월이었다.

그의 예술세계가 성숙할 수 있었던 것은 스승과 지인들의 아낌없는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으리라. 그에게 서책과 자료를 아낌없이 빌려주고, 소장하고 있던 명화의 진품들도 감상할 기회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림을 가르치고 도장을 새겨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배려를 아끼지 않았던 덕분이다. 그리고 약 8년간에 걸쳐 5번의 여행 기회도 주어졌다. 서안, 강서, 광저우, 베이징, 상하이, 베트남 국경지대 뭉카이 등지의 여행을 통해 그는 수많은 명승지와 아름다운 산수를 친히 유람할 수 있었다. 그것은 백석의 예술세계에 더 없는 밑거름이 되었다. 그것을 그는 '五出五歸'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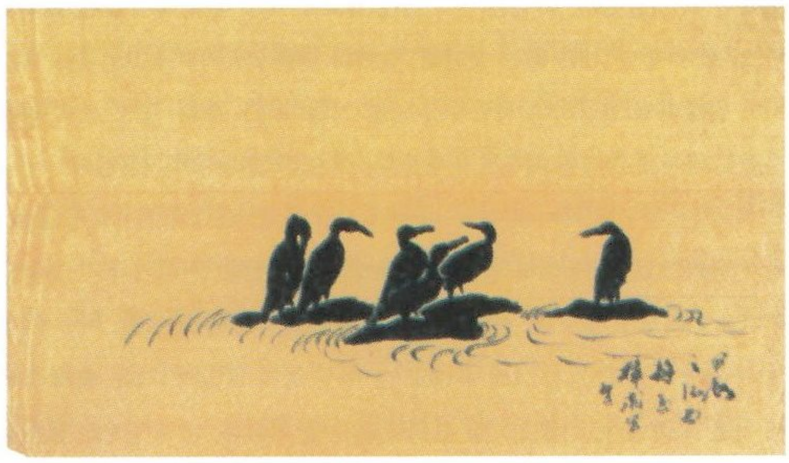
화가의 길로 들어선 백석은 후친위안등에게 시화를 배우고 그들의 소장품들을 감상했다. 작품은 주로 팔대산인, 석도, 김동심 등 대가들의 작품을 임모하면서 자신의 기량을 키워나갔다. 동년배인 왕중옌등과 고전공부를 시작했다. 5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그들과 더불어 시사를 결성하여 시를 짓고, 전각을 배웠다. 서예는 하소기의 서법을 익혔다.

다시 5년 뒤인 1899년에 첫 번째 인보〈寄園印存〉을 펴냈다. 1900년 梅公寺에 세 들어 살면서 '白梅書屋'이라고 당호를 지었다. 나중에 집을 한 칸 짓고 산을 빌려 산다는 뜻의 '借山吟館'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리고 다섯 번의 여행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 여행은 1902년 겨울, 샤서우텐의 소개로 서안에 그림을 가르치러 떠나 이듬해에 베이징까지 다녀왔다. 도중에 눈 내리는 화산의 광경에 매료되어 〈화산도〉를 그렸다. 시안에서 판판산이 소장하고 있던 팔대산인, 김농, 라빙등의 명화와 화첩 등을 구경했다. 그 경험이 백석의 창작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판산은 그에게 도장 새기는 가격인 刻印潤筆料를 책정해 주었다. 이때부터 화조화의 기법이 사의화로 바뀌기 시작했다.

그 다음 해 1903년, 41세가 된 백석은 처음으로 베이징에 가게 되었다. 그의 재주를 알아 본 샤우이가 서태후에게 그를 궁정화가인 내정공봉으로 천거하려면서 "경성에는 은자가 널려 있다네. 재주 있는 이는 허리 굽혀 줍기만 하면 되지" 하며 설득했으나, 그는 "세상물정도 모르는데 궁정에 들어가다니요? 그저 이 두 손으로 한 이 삼천 냥 벌어서 고향에 내려가 한 평생 먹고 살면 되지요." 하며 고사했다. 돌아와서 화첩 〈차산음관도〉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판판산이 모든 화제를



등왕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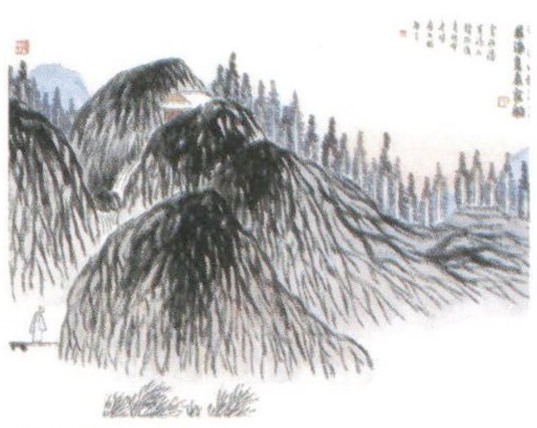


귀이린의 명물 가마우지

차산도책 22-20



김동심 모화 초고



석문 24경

써주었다.

두 번째 여행은 1904년, 왕카이윈을 따라 장시로 갔다. 두산과 난창을 돌아보고 〈등왕각〉을 그렸다. 두 번째 인보 〈白石草衣金石刻畵〉를 펴냈다. 그때부터 낙관은 김동심체로 쓰기 시작했다. 김동심을 동경하고 많은 작품을 임모했다.

세 번째 여행은 1905년 8월부터 1906년 가을까지 이어졌다. 우선 광시 귀이린으로 향했다. 천하제일의 산수라는 귀이린을 유람하고, 다시 귀이린의 으뜸이라는 양쉬에서 산수 풍광의 극치를 만끽했다. 그 변덕스런 날씨를 이렇게 재치 있게 읊었다.

광시의 날씨는 알다가도 모를 일
옷 보따리 챙겨서 놀러나가네
작은 배 하루 타고 양쉬 건너니
남풍 가벼이 스친 곳에 북풍이 달려드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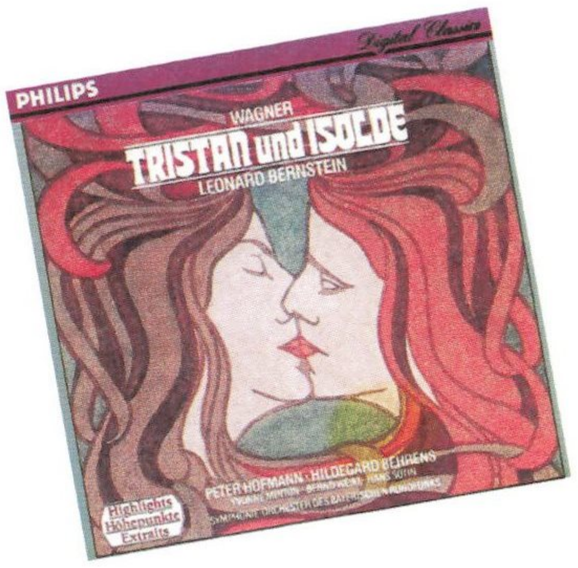
그 다음 해 춘절이 지난 지 얼마 안 되어, 우저우에서 광저우를 거쳐 친저우로 궈바우성에게 그림을 가르치러 갔다. 그림을 가르치며, 그가 소장한 서위, 김동심, 팔대산인 등의 진품을 감상하고, 궈의 대필도 많이 해 주었다. 그렇게 번 돈으로 루자충에 낡은 가옥과 논밭을 조금 샀다.

네 번째 여행, 1907년 루자충으로 이사를 하고, 봄에 집을 떠나 친저우, 베트남 국경지대 베이룬허 남쪽까지 유람하고, 겨울에 돌아왔다. 뭉카이의 풍광을 화첩 〈차산도권〉에 그려 넣었다. 다섯 번째 여행, 1908년 봄 광저우에서 도장을 새겨 돈을 벌면서 쑨원의 혁명문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1909년 초에 친저우로 갔다가 초여름에 상하이, 쑤저우, 난징을 두루 거쳐서 10월에 돌아왔다. 그리고 세 번째 인보를 펴냈다. 그의 여행은 결코 단순한 유람이 아니라 배움과 생계유지의 방편과 수단이었던 것이다.

다음 해인 1910년부터 루자충에 '寄萍堂'을 마련하고 山居에 들어간다. 두문불출하고 창작과 공부에만 열중하는 생활이 약 칠년 동안 계속되었다. 그러는 동안 그의 화조화는 섬세한 필법에서 점점 간결한 필법으로 변해갔다. 화첩 〈차산도권〉, 〈석문이십사경도〉등을 엮었다.

가을의 전설 트리스탄과 이졸데

김의호 _ 삼성여고 교사



한손에 시적 재능을, 다른 한손에 음악적 재능을 모두 가진 바그너. 그러나 찬사만큼 많은 비난도 받았다. 허약하고 수치심이 가득한 반항아였고,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았지만 출세에 대한 야망은 가득했다. 부도덕했고 오만함과 자아도취에 빠져있었다. 유대인에 대해 반감을 표출했고 작품에서는 게르만의 우수성을 드러내었다. 낭비벽은 극에 달했고 추악하게 권력을 지향했다. 그럼에도 그는 문학, 미술, 연출, 극작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출중하였다. 그가 새로이 시도한 극음악은 독일음악의 선율과 화성양식의 절정을 보여준다.

바그너의 성공에는 바그너의 영웅 서사시에 심취한 바이에른의 국왕 루트비히 2세의 공을 빼놓을 수 없다. 왕은 어려서부터 중세영웅들의 이야기를 좋아했고 영웅들의 벽화가 그려진 성에서 자랐다. 그는 성인이 되어서도 동화 같은 환상 속에서 살기를 바랐다. 전쟁과 다툼이 가득한 현실의 잔인함이 싫었다. 왕의 후원으로 바그너는 바이로이트를 찾았고 오페라를 위한 전용극장을 짓기로 결심한다. 후원회가 결성되고 루트비히 2세의 결정적인 재정지원으로 소도시 바이로이트를 오늘날 음악애호가들의 순례지로 만든 바이로이트축제 극장이 완성되었다.

바그너에게 음악은 극, 사상, 서사시를 전달하는 도구였다. 어린 시절 예민한 감수성과 풍부한 상상력을 가지는데 큰 영향을 준 계부 가이어는 배우이자 극작가였다. 그는 유대인이었고 바그너의 친부라는 소문이 있었다. 평생 바그너를 두렵게 한 것은 유대혈통의 가능성이었다. 어머니의 원죄로부터 시작된 세계는 그가 숙명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세계였다. 개인적 체험을 바탕으로 세상을 들어다보는 데에는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신화가 가장 적합한 소재라 생각했다. 중세 영웅들의 서사시는 오페라를 통해 사랑과 배반, 모험과 서스펜스 등 낭만적 요소를 골고루 갖춘 작품들로 부활되었다.

작품을 통해 드러나는 그의 예민한 정서의 바닥에는 기독교 사상의 핵심인 사랑이 자리하고 있다. 십계명에 나타난 사랑이 결여된 구약의 신은 신약의 예수 아버지로서 신과 다르다고 선을 긋고, 예수를 단죄한 유대인에 강한 거부감을 표출하였다. 신은 사랑의 실체이며 신이 내린 인간에 대한 진단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처방은 아들 예수를 희생하여 사람을 살리는 것이었다. 오페라 '탄호이저'는 바로 그 숭고한 사랑을 그리고 있다. 엘리자베스의 희생이 타락한 탄호이저를 구원 한다는 '구제의 이데아'가 주제다. 이 주제는 서곡부터 나타난다. 관악기에 의해 '순례의 동기'가 장엄하게 수평으로 흐르며 점점 고조되고 여기에 수직으로 오르내리는 바이올린 파트가 더해져 두 선율은 십자가를 이룬다. 이 선율이 만들어 내는 음향의 강렬함은 희생의 아픔만큼이나 감동을 준다.

역설인가? 숭고한 사랑에 대한 자기 확신은 원죄의 굴레를 벗지 못하고 또 다른 부도덕한 사랑이 숙명이라는 이름으로 꿈틀거리며 나타났다. 망명으로 취리히에 머물 때 그를 돌봐준 마틸데 베젠동크 부인과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은 '트리스탄과 이졸데'로 승화되었다.

중세 콘월의 기사 트리스탄은 왕비 이졸데와 숙명적 사랑에 빠진다. 이 켈트족의 전설은 13세기 초 스트라스부르크의 서사시로, 19세기 중반 바그너의 악극으로 만들어 졌다. 그 후 20세기 헐리우드에서 영화 '가을의 전설'로 부활한다. 바그너는 이 마법 같은 이야기에 홀렸는지 원죄의 굴레를 쓴다. 자신의 열렬한 숭배자인 지휘자 한스 폰 뷜로의 아내, 24세 연하의 코지마와 불륜에 빠진다. 사생아를 낳았는데 이졸데라 이름지었다.

이 비극은 바이에른방송교향악단과 합창단의 음반에 담겨 바그너가 꿈꾸었던 '보이지 않는 극장'으로 완성된다.

정겨운 부산, 부산 사람들

안나 기르소바 _ 부산국제여성회 회원

가장 뚜렷한 기억들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희미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산지 8년이 지나고 나니 모든 것이 나에게는 다 똑같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기억을 더듬어 보니, 그제야 모든 것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지켜본 것이 나의 한국생활 전체를 통해서 가장 강렬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 놀랄만한 발전을 지켜보면서 나는 한국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주중에 밖으로 나가서 주위를 둘러보면 모든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무엇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나를 가장 놀랍게 하는 것일 것입니다.

나는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관찰할 수 있는 여행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기 한국에서 8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나는 일상생활의 세세한 부분들까지 관찰하게 되는 것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작은 부분들이 이 나라를 알게 되는 어떤 다른 방법 보다 더 나에게는 의미가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면, 내가 처음 보게 되는 것은 재활용 쓰레기를 구분하는 청소아줌마를 도와주고 있는 우리아파트 경비원입니다. 가까이에서 나무를 자르고 있는 정원사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꽃집 아주머니가 화분에 물을 주고 있는 화원을 지나가게 되고, 세탁소 창문을 통해서 다림질 하는 사람도 봅니다. 바닷가로 가려면 나는 철로를 건너야 합니다. 거기에서는 철로관리인이 상추를 심은 작은 밭에 허리를 구부리고 잡초를 뽑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한국사람들은 땅을 일구는 것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는 지를 아직도 알고 있다는 사실에 항상 놀라곤 합니다. 가장 현대적인 아파트 건물들 사이에서도 아주 작은 밭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서구세계에서 보기는 불가능하지요.

좀 더 가면 해변가 길을 구석구석 청소하는 한 그룹의 노인들을 보게 됩니다. 일을 끝내면 그들은 모두 같이 아침식사를 하면서 매 순간순간을 즐거워합니다. 모퉁이를 돌아서 시장으로 갑니다. 거리는 아름답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원사들이 길가에 새로운 꽃을 심고 있습니다. 좀 더 가다 보면 종이와 판지를 가득 실은 무거운 손수레를 끌고 가는 노인과 길가에서 나물을 팔고 있는 나이 많은 아주머니들, 또 막 잡은 생선을 트럭에서 내리는 어부를 보게 됩니다. 이들 중 일부는 적은 수입이나마 얻기 위해, 또 일부는 건강이나 걱정하는 가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해서 일을 합니다. 그들의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자진해서 기꺼이 일을 하려는 그들의 마음, 그들의 인내심과 지구력은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내일 산책에서 나는 똑 같은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 밖에 있는 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그마한 변화들이 있을 것입니다–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작은 변화들이. 어느 날, 최신 고층 아파트들, 믿기지 않는 고도의 기술, 유행 첨단 자동차들 그리고 점 점 더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될 때까지. 그러나 이러한 매일 매일의 짧은 여행을 하고 나면, 우리는 전혀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속성, 인내심 그리고 끈기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에 크게 놀라게 될 것입니다.

※ 러시아가 국적인 안나 기르소바는 아시아에서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다. 안나 기루소바는 남편과 부산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작은 딸과 함께 부산에 살고 있으며 현재 부산국제여성회 회지인 Dove 편집인으로 활동 중이다.



천년을 빚어낸 흙빛 숨결이 살아있는

울산 외고산옹기마을



'숨쉬는 그릇' 옹기를 테마로 한 새로운 지역문화 축제 '2010 울산세계옹기문화액스포'가 지난 10월 성황리에 열렸다. 자연과 인간이 빚은 생명의 그릇이라 불리는 옹기는 최근 '웰빙 바람'과 함께 다시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는 이렇듯 우리민족의 삶의 지혜가 담긴 옹기의 새로운 가능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올해 처음 개최됐다.

축제가 열리면서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외고산옹기마을은 전국에서 몇 남지 않은 옹기마을 중에서도 규모가 가장 큰 옹기마을이자 우리나라 옹기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는 국내 최대 옹기 집산지이다. 195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30여가구가 모여살던 이 곳에 옹기가마가 세워진 것은 지난 1957년. 당시 영덕에서 옹기업을 하던 허덕만 옹기장이 이 곳 외고산마을에 자리잡기 시작하면서 부터이다. 외고산마을은 한국전쟁 직후 많은 피난민들이 몰려들면서 옹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던 부산과 가까우면서도 높은 산이 없어 햇볕이 잘 들고 옹기의 재료인 백토와 마사토 등이 풍부해 옹기마을로서는 최적지였다. 전국의 내노라하는 옹기장들이 모여들면서 1970년대에는 세대수가 200여 세대가 넘을 정도로 번창했지만 1980년대 후 가볍고 값싼 플라스틱용기가 보급되면서 점차 쇠퇴의 길을 걷다 지금은 40여 가구가 옹기업에 종사하면서 그 맥을 잇고 있다.

최근 들어 전통문화와 건강에 대한 관심과 맞물려 '숨쉬는 그릇' 옹기에 대한 재조명 작업이 활발해지면서 외고산옹기마을도 이에 발맞춰 지난해 11월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되었다. 평범했던 마을에는 옹기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옹기문화관과 교육기관인 옹기아카데미, 옹기공방, 옹기가마 등이 새롭게 들어서 명실공히 '옹기의 메카'로 거듭났다.

'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가 한창이던 지난 10월 14일, 그 축제의 중심에 있는 울산 외고산옹기마을에는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관람객들로 북적였다. 특히 이 날은 외고산옹기마을이 주최하는 '울주외고

산옹기축제'가 열리는 날. '축제 속의 축제'로 보다 풍성해진 행사 프로그램에 이 곳을 찾은 관람객의 발길이 분주하기만 하다.

축제 분위기로 가득한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외고산옹기마을을 알리는 대형 옹기탑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마을의 시작을 알리는 마을정보센터에는 옹기마을의 역사와 전통을 알 수 있는 마을정보실과 옹기역사관, 영상실 등이 들어서 있다. 이 곳을 둘러본 후 길을 따라 위쪽으로 올라가면 외고산옹기마을의 상징인 옹기문화관을 만날 수 있다. 옹기문화관은 옹기와 함께 숨쉬며 살아온 장인들의 발자취와 옹기의 역사, 문화 그리고 미래를 전시하는 공간으로, 옹기의 역사를 시대별로 전시하고 지역별, 용도별, 나라별로 옹기 256점을 전시하고 있는 전국 최대 규모의 옹기전시관이다.

또, 마을 곳곳에는 울산시 무형문화재 제 4호 '울산 옹기장'으로 지정된 옹기장인들이 운영하는 공방 8곳이 자리하고 있다. 전통방식을 고수하며 옹기산업을 이끌어온 이 곳 옹기장인들은 일반옹기 뿐 아니라 작품성 있는 다양한 옹기작품을 제작해오고 있다. 공방마다 전시된 장인들의 개성넘치는 작품들을 둘러보는 재미도 쏠쏠하기만 하다. 마을 한켠 경사지를 활용해 조성된 대형 옹기가마 역시 다른 곳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볼거리이다.

대형가마 옆에는 이번 '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 개막을 앞두고 제작된 세계 최대 크기의 옹기가 시선을 끈다. 다섯 번의 실패 끝에 뚝심으로 완성시킨 이 옹기는 높이 2.46m, 둘레 5.77m, 무게만 0.7t에 달하는 초대형 옹기 항아리로, 세계 기네스협회에도 등재될 예정이다.

공방과 가마를 지나 마을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옹기아카데미가 관람객을 맞는다. 전통 옹기의 맥을 잇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제작기술을 교육, 연구하는 이 곳은 미리 예약을 하면 일반인들도 옹기체험교실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또, 마을 창고를 개조해 만든 갤러리 숨은 1,512개의 옹기타일로 장식된 독특한 건물 외벽이 인상적이다. 울산대학교 임영재 교수가 제작한 이 옹기타일에는 반구대 암각화에서부터 현대중공업 골리앗 크레인, 태화강 자전거 등 울산의 역사와 삶의 애환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이밖에 마을 인근에는 생태연못이 자리한 옹기문화공원도 조성되어 있어 자연 속 휴식공간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 곳 옹기문화관과 옹기아카데미, 마을정보센터는 단체관람시에는 미리 예약을 해야하며, 월요일은 휴관이라 관람할 수 없다.(글, 사진/정복엽)

▪ 문의/외고산옹기마을(052-229-7000, onggi.ulju.ulsan.kr)







지난해 11월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한 외고산 옹기마을은 옹기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옹기문화관과 교육기관인 옹기아카데미, 옹기공방, 옹기가마 등이 새롭게 들어서 명실공히 '옹기의 메카'로 거듭났다.



외고산 옹기마을 입구를 알리는 옹기 조형물

'사랑의 묘약'과 부산오페라계의 묘약은?

하순봉 _ 작곡가



지난 10월 15일, 16일 이틀간에 걸쳐 부산문화회관 재개관 기념공연으로 국립오페라단의 '사랑의 묘약'이 공연되었다. 국립오페라단의 부산공연은 모처럼 만의 귀한 공연이었다. 그 기나긴 여름을 뒤로 하고 이제 가을을 맞이하면서 또 부산문화회관도 새롭게 단장을 하고 심기일전, 여러모로 의미 있는 공연이었다. 공연 이틀 간 1,400여석의 자리는 거의 다 찼다고 한다. 이 번 공연을 얼마나 부산시민들이 기다렸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좋은 작품은 언제나 객석을 채운다는 진리를 다시 한 번 되뇌이며….

그런데 오페라를 보면서 마음 한구석으로 무언가 묘한 자책감이 들었다. 왜 이런 공연에 부산의 오페라단이 한 무대를 차지할 수 없는지? 지금 그렇게 많은 부산의 오페라단들은 다 무얼 하고 있는지? 하반기 공연일정을 보아도 부산 오페라단들의 공연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사실 무대제작기금지원을 받지 못해서 아마 계획된 공연도 포기하고 했을 것이다.

부산은 한때 북항 개발과 함께 시드니 같은 오페라 하우스가 들어설 것이라고 들떴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 실현될지 모르는 아직도 요원한 큰 프로젝트이다. 그리고 그런 오페라하우스를 짓는다고 해도 지금의 부산 오페라계의 실정으론 과연 이 오페라 하우스를 유지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내가 아는 성악가 한 분은 지금 대구에서 공연 중인 오페라에 주역을 맡아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다. 그와 나눈 대화의 핵심은 부산 오페라계의 암울한 현실과 대구의 활발한 오페라 운동이었다. 대구는 이미 오페라 전용극장이 있고 시립오페라단이 있다. 지금 대구에는 오페라 축제가 한창 열리고 있다. 외국처럼 상설 오페라공연이 활성화되어 이미 시민들의 공연관람 문화에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 이번 시즌에는 창작 오페라와 현대 오페라 등 다양한 레퍼토리도 선보인다. 입장료도 싸서 시민들이 전혀 부담을 갖지 않으면서도 대부분이 유료관객이라고 한다.

또 그는 부산에는 노래할 무대가 없다고 한다. 한다고 해도 연주의 조건이 자존심이 상할 정도여서 하고 싶지 않다고 한다. 자기도 여건이 되면 대구에서 활동을 하고 싶다고 한다. 정당한 개런티를 지급해주고 많은 관객이 있고 좋은 레퍼토리와 기획력이 있으니 무얼 또 바라겠는가? 부산보다 재정이 풍부한지, 아니면 인적자원이 더 나은지, 인구가 더 많은지? 아무리 여러 가지 이유를 들먹여도 타당한 답이 나오질 않았다. 대구의 음악인들이 우리 보다 더 열정적으로 더 열심히 뛰었고 또 공동선을 향하여 그들의 힘을 결집했다는 것 밖에는 답이 없었다.

부산의 민간오페라단의 역사는 대략 30여년이다. 지금은 10여개가 넘는 오페라단이 부산에 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것은 거의 없다. 이제는 부산의 성악계와 음악계가 시립오페라단의 발족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부산시에서도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 불꽃축제나 PIFF와 함께 오페라 축제를 한다면 얼마나 좋은 문화상품이 되겠는가? '사랑의 묘약'을 보면서 부산 오페라계에도 이제 어떤 묘약이나 극약처방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다시 호명된 거장의 혼, 부산국제영화제에서의 만남

김희진 _ 영화감독

영화는 타 예술에 비해 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닌, 사멸하지 않는 꿈의 세계가 영화다. 한때 누군가 꿈을 창조하고 그 꿈이 세대를 넘어 다른 이들의 꿈에 영향을 미치는 것, 영화만이 가능한 메커니즘이다. 지워지지 않는 기억으로 남는 영화로의 기록은 창조자에겐 부담이지만 셀룰로이드에 박제된 한 순간의 정염은 무수히 많은 상념으로 되새김질 된다. 그 되새김의 즐거움을 다시 향유하는 것도 영화의 매력이고, 그 매혹은 무한 반복되어 새 창조물로 부활하기도 한다.

이러한 영화의 쾌락을 아는 이들은 그 즐거움의 유희를 다시금 전시한다. 일본의 수오 마사유키 감독은 찰리 채플린이라는 유령을 영화로 다시 불러내었다. 이번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만난 〈댄싱 채플린〉은 발레로 호명된 찰리 채플린을 다시금 영화로 호명한 작품이었다. 알랭 로티가 안무한 '춤추는 채플린'이라는 발레 공연은 수오 마사유키 감독에 의해 영화로 다시 저장되어 보여진다.

감독의 부인인 무용가 쿠사카리 타미요는 알랭 로티와 여러 번 발레 공연을 한 인연으로 '춤추는 채플린'의 영화화를 추진하고 170여회나 채플린 역을 소화한 60세의 루이스 보니노를 일본으로 불러들인다. 공연 그 자체를 그대로 영화로 만들고자 하는 수오 마사유키 감독은 스튜디오에서 실제 공연을 똑같이 재현해낸다. 〈댄싱 채플린〉은 1장 준비과정과 2장 공연으로 나누어져 마치 DVD의 부가영상처럼 영화를 구성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연은 영화로 재탄생하게 되는데 물론 실제 공연을 못 본 이들에겐 이 영화만으로도 '춤추는 채플린' 발레 공연의 감동을 맛볼 수 있지만 한편으론 무대 공연이 영화로 만들어졌을 때 놓칠 수밖에 없는 현장의 생생함이 사라진 공허함도 함께 한다. 박제된 공연이긴 하지만 채플린의 위대함은 다시금 놀라움과 존경심을 준다. 거장의 유령은 여전히 새로운 배우와 감독을 통해 다시 태어나고 여전히 떠돌아다니고 있는 것이다. 이미지로서 최고 명예의 전당이라고 할 수도 있을 영화라는 매체에 재탄생한 발레 공연은 거장의 위대함은 어떤 형태로든 다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부산국제영화제와 같은 영화제에서는 언제나 그런 위대함이 재탄생되거나 그 가치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제공된다. 고전들을 다시 만나게 되는 프로그램들은 그런 환기를 제공해 주기 위해 마련된다. 루이스 브뉴엘의 〈비르디아나〉는 올 해 영화제를 통해 다시 만난 거장의 힘이었다. 이미 고인이 된 루이스 브뉴엘의 에너지는 영화 속에 고스란히 남아 현재 영화를 제작하고 있는 영화인들에게 여전한 자극을 준다. 1961년에 만들어진 이 작품은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이라는 큰 무게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내 상영이 금지되었던 작품이다. 한 귀족의 저택에서 벌어지는 상류층과 하층민의 소동극을 다룬 〈비르디아나〉는 영화 속에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장면이 문제를 일으켰다. 부랑자, 거지, 불구의 하층민들이 귀족의 저택에서 벌이는 만찬 파티는 성스러운 평가를 받는 작품을 재구성해 그 가치의 전복을 꿈꾸고 있다. 언제나 종교와 정치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보여 온 루이스 브뉴엘은 계급 간 갈등과 부르주와의 허위의식을 조롱하며 스페인의 강압적 정치 상황이 빚어 온 불합리한 사회 구조를 은유해 냈다.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하기랄까 거장의 표현은 언제나 진보적이다.

수많은 영화들이 동시에 진열되는 영화제에서 언제나 발견하게 되는 가치는 새로움과 오래된 것 사이의 충돌과 조화다. 만드는 이들의 나이가 젊든 아니든 다루는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영화는 언제나 논쟁의 가능성과 함께 자극의 주고받음이 활발히 일어난다. 거장들이 있기에 지금의 새로움이 있고, 그 가치로 인해 더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진다. 모든 영화는 어쩌면 살아있는 유령들의 집이다. 그곳에서 우린 또 다른 유령을 만들어낸다.

하모니카 도시 부산을 꿈꾸는

한국하모니카예술단



세대를 뛰어넘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친구같은 악기 하모니카. 한국하모니카예술단은 이 같은 하모니카 매력에 빠진 아마추어 하모니카 연주자들의 프로젝트 모임이다.

창단공연이 열리던 10월 14일, 공연장소인 공간소극장에 들어서자 경쾌한 하모니카 선율이 흘러나온다. 무대에서는 공연을 앞두고 회원들의 리허설이 한창이다. 이날 창단공연을 시작으로 힘찬 첫 발을 내딛은 부산하모니카예술단은 하모니카 연주자 이성규 씨를 주축으로 온라인 하모니카동호회 '하모니카마을' 회원들과 실버합주단 '소리모아', 대구를 중심으로 활동중인 멜로스 하모니카앙상블 등 아마추어 하모니카 연주자 4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창단공연에서는 단장인 이성규 씨와 실버합주단 '소리모아'가 무대에 서 관람객들의 많은 박수를 받았다.

한국하모니카예술단이 탄생되기까지는 부산을 중심으로 하모니카 사랑을 펼쳐온 하모니카 연주자 이성규 씨의 열정이 숨겨져 있다. 원래 서울이 고향인 이성규 씨가 부산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지난 1996년. 서울 아닌 지역에 하모니카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열정 하나로 잘나가던 서울생활을 청산하고 아무 연고없는 부산에 새롭게 터전을 잡았다. 하모니카 온라인 동호회인 '하모니카마을'도 그 당시 이성규 씨에의해 처음 문을 열었다. 지역에 흩어져 있는 하모니카 애호가들의 소통의 장이 되기 위해 개설한 '하모니카마



아마추어 하모니카 연주자 40여명으로 결성된 한국하모니카예술단이 지난 10월 14일 창단공연을 가졌다.



10월 16일 서면 롯데호텔 야외무대에서 열린 '2010 젊은공연예술축제' 개막 축하무대에 선 한국하모니카예술단.

을'은 지금은 전국적으로 회원수만 1만여명에 달하는 대표적인 하모니카 동호회로 성장했다. 서울 중심의 여타 동호회와는 달리 '하모니카마을'은 지금도 전국모임을 부산에서 갖고 있다.

체계적인 교육으로 실력있는 연주자를 키우는 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일. 그가 지금껏 키워낸 제자는 헤아릴 수가 없다. 지난 2000년 울산에서 결성된 '모데라토 하모니카합주단'은 지역 최초의 하모니카 합주단으로 화제를 되기도 했다. 울산지역 청소년들로 구성된 '모데라토 하모니카합주단'은 지금도 그가 음악감독을 맡아 활발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부산에서 결성된 '뭉게구름 하모니카합주단' 역시 그의 작품. 그 때 인연을 맺었던 초등학생 제자가 고등학생이 되어 이번 창단무대에 서기도 했다. 하모니카 연주자로서도 꾸준한 활동을 펼쳐온 이성규 씨는 제자인 김병석, 박기국 씨와 결성한 하모니카 트리오 '콘푸레이크', 하모니카 재즈 프로젝트팀 'Gun-Mater' 리더로도 활동하며 지금까지 100여회가 넘는 라이브 무대에 서왔다. 지난 2002년에는 연극 '미친 키스' 무대에서 라이브 연주를 맡아 그해 부산연극제 무대기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하모니카 도시 부산'을 꿈꾸는 이성규 씨에게 한국하모니카예술단은 꿈을 이루기 위한 첫 디딤돌이다. 다양한 프로젝트 무대를 통해 하모니카 애호가들을 한자리에 모으고 또 그 무대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하모니카를 알려나갈 계획이다.

한국하모니카예술단은 창단공연에 이어 지난 10월 16일 서면 롯데호텔 야외무대에서 열린 '2010 젊은공연예술축제' 개막 축하무대에 올라 시민들의 많은 박수를 받았다. 11월에도 '2010 젊은공연예술축제' 행사의 일환으로 11월 5일과 11일, 12일 경성대학교 지하철에서 공연을 가질 예정이다. 관객과 직접 만나는 무대 공연 외에도 한국하모니카예술단은 앞으로 하모니카 초보자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실버합주단 '소리모아' 회장으로 한국하모니카예술단 창단에 참여한 양선희 씨(72세). '소리모아'는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경헌실버아카데미 출신의 어르신들로 결성된 아마추어 하모니카합주단이다. 하모니카를 알게 되면서 삶의 활력소를 되찾았다는 양선희 씨는 매달 '소리모아' 회원들과 정기적으로 요양원을 방문해 음악사랑을 펼쳐오고 있다. 부족하나마 자신의 연주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기쁨이 될 수 있다는데 보람을 느낀다는 그는 앞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모니카 부는 즐거움을 나누고 싶다.

고등학교 2학년인 우상석 군은 초등학교 시절 인터넷 동영상에서 우연히 보게 된 하모니카 연주에 반해 하모니카를 배우기 시작했다. 그 때 그에게 하모니카를 가르쳐 준 사람이 바로 이성규 씨. 한 때 그가 지도하던 '뭉게구름 하모니카합주단' 단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하모니카 연주자가 되겠다는 장래희망까지 정해놓은 상석 군은 바쁜 학교일정에도 하루 2~3시간씩 연습에 매진하고 있다.

■ 문의/한국하모니카예술단(554-2467, cafe.daum.net/Yasaenghwa)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 제 30회 피아니스트 페스티발

11월 1일-3일 월-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부산지역 피아니스트들로 결성된 부산피아노연주가 클럽의 제 30회 정기연주회.

■ 1일(월) 김선화 독주회

하이든/피아노 소나타 내림 마장조 Hob.XVI:49
쇼팽/바카롤레 올림바장조 작품 60
라흐마니노프/피아노 소나타 내림나단조 작품 36 등

■ 2일(화) 쇼팽 탄생 200주년 기념 '쇼팽의 밤'

쇼팽/바카롤레 올림바장조 작품 60
쇼팽/발라드 내림가장조 제 3번 작품 47
쇼팽/스케르쪼 마장조 제 4번 작품 54
쇼팽/안단테 스피아나토와 화려한 대 폴로네이즈 작품 22
쇼팽/판타지 바단조 작품 49

· 연주/윤지은, 성민주, 정은정, 김미현, 고정화

■ 3일(수) 솔로와 듀오의 밤

차이코프스키/둠카 작품 59
크라이슬러-라흐마니노프/사랑의 기쁨
스트랴빈/소나타-판타지 제 2번 작품 19
리스트/순례의 해, 오베르만의 계곡 등

· 연주/길금혜, 한정민, 홍자영, 이동섬, 이정민 & 이주혜, 김성숙 & 안준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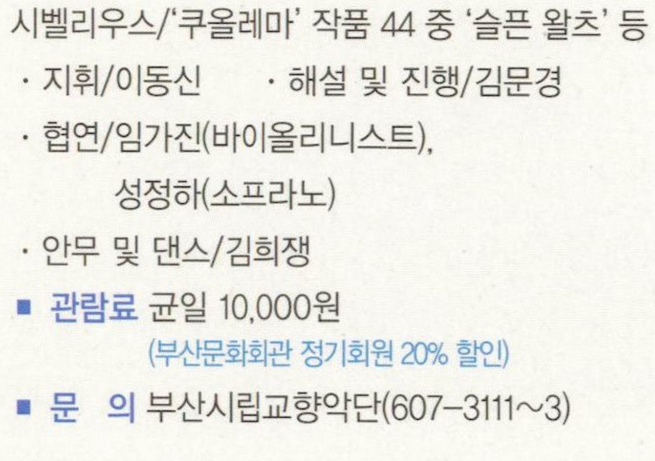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 의 부산 피아노연주가클럽 (010-5160-0968, 010-9390-4271)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2010 웰빙콘서트 Dance in Classic Ⅳ 좋았던 시절 - 왈츠, 폴카, 마주르카, 차르다시

11월 4일 목요일 오전 11:00 중극장

저녁 시간 공연장을 찾을 수 없는 청중들을 위한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 기획공연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2010 웰빙콘서트 Dance in Classic' 마지막 무대 '좋았던 시절 - 왈츠, 폴카, 마주르카, 차르다시'.



클래식 음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도 다소 평가절하된 측면이 있는 춤곡을 조명한 'Dance in Classic' 마지막 무대로 바이올리니스트 임가진, 소프라노 성정하, 안무가 김희쟁이 열정적인 무대를 열어준다.

프로그램

브람스/헝가리 무곡 제1번 사단조
스메타나/'팔려간 신부' 중 '폴카'
J.슈트라우스 2세/'기차여행' 폴카 작품 281
라벨/치간느
시벨리우스/'쿠올레마' 작품 44 중 '슬픈 왈츠' 등

· 지휘/이동신 · 해설 및 진행/김문경
· 협연/임가진(바이올리니스트), 성정하(소프라노)
· 안무 및 댄스/김희쟁

■ 관람료 균일 1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 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부산문화회관 재개관 기념 기획공연 러시아 마린스키 발레단 내한공연 백조의 호수 Swan Lake

11월 5일-6일 금요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3:00 대극장



세계 발레의 살아있는 역사, 러시아 발레의 자존심 마린스키 발레단 부산공연.

250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세계 발레의 요람이 되어 온 마린스키 극장 발레단은 1,000명이 넘는 극장 인력과 200명의 발레단 등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이번에 선보이는 '백조의 호수'는 1895년 프티파-이바노프 버전의 작품으로 악마의 마법에 걸려 낮에는 백조, 밤에는 인간으로 돌아오는 오데트 공주와 그녀를 구하려는 지그프리트 왕자의 짧지만 아름다운 사랑을 그린 발레의 고전이다.

· 작곡/표트르 차이코프스키
· 대본/블라디미르 베기체프, 바실리 게르체르
· 안무/마리우스 프티파, 레프 이바노프(1895)
· 개정안무 및 무대감독/콘스탄틴 세르게예프 (1950)

주요 출연진

5일 오데트-오딜 빅토리아 테레쉬키나, 지그프리드 왕자 안드리안 페데예프, 광대 그리고리 포포브, 마법사 로스발트 콘스탄틴 즈베레브

6일 오데트-오딜 울리아나 로파트키나, 지그피리드 왕자 예프게니 이반첸코, 광대 라펠 뮤신, 마법사 로스발트 이반 시트니코프

■ 관람료 VIP석 150,000원 · R석 130,000원 S석 100,000원 · A석 80,000원 B석 5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 문 의 부산문화회관 공연과(607-605),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0)

징시안 시에 초청 피아노 리사이틀

11월 5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스페인에서 열린 제 15회 Rotaract 국제피아노 콩쿠르에서 중국인으로 처음으로 우승, 화제를 모은 피아니스트 징시안 시에 부산연주회.

4살 때부터 피아노를 시작한 피아니스트 징시안 시에는 12살에 상하이콘서바토리를 만점으로 입학,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뒤 2002~2008년 뮌헨대학교 전문연주자

과정, 최고연주자과정을 최고점수로 졸업했다.

'아름다운 음색' '눈부신 테크닉과 정제된 음악적 기량'으로 호평 받으며 다양한 무대에 서온 징시안 시에는 현재 최연소 나이로 상하이콘서바토리에서 후학을 가르치며 중국과 유럽무대에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다.

프로그램

모차르트/피아노소나타 제 16번 Kv.284

쇼팽/영웅 폴로네이즈

브람스/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변주곡 작품 35 등

- **관람료** 일반 30,000원 · 청소년 10,000원
- **문 의** 아트뱅크코레아(442-1941)

차미령 피아노 독주회

11월 5일 금요일 오후 7:30 소극장



맨해튼 음대, 뉴저지 주립음대(Rutgers) 연주학 박사(DMA) 과정을 졸업하고 미국과 유럽에서 솔로 연주, 매스터 클래스 및 실내악 연주 활동을 해온 피아니스트 차미령 독주회.

차미령은 Bradshaw & Buono International Piano Competition에서 2위를 차지한 바 있다.

프로그램

드뷔시/Image I -물의 반영, 라모를 추모하며, 움직임, Image II -잎새를 흔드는 종소리, 황폐한 절에 머무는 달, 금붕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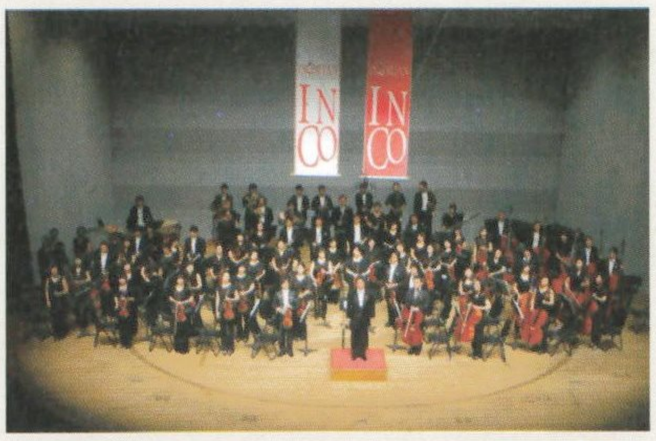
스크리아빈/소나타-판타지 제 2번 올림 사단조 작품 19 등

- **관람료** 초대
- **문 의** 차미령(010-2364-5949)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제 39회 정기연주회

11월 6일 토요일 오후 7:30 중극장

정기연주회와 문화소외지역 찾아가는 음악회, 대형오페라 연주 등 꾸준한 활동을 통해 전문교



향악단으로 입지를 굳혀온 부산의 대표적인 민간오케스트라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의 제 39회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베토벤/에그몬트 서곡

브람스/더블 콘체르토

베토벤 /교향곡 제 3번 '영웅'

- 지휘/윤상운(인코리안오케스트라 전임지휘자, 동의대학교 교수)
- 협연/이경선(서울대학교 교수, 화음챔버오케스트라 리더), 이명진(동아대학교 교수)

- **관람료** 일반 20,000원 · 학생 10,000원 (초대권 없음, 전화예매시 30% 할인)
- **문 의** (사)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017-842-6688)

흙피리 오카리나 제 20회 정기연주회

11월 7일 일요일 오후 3:00 소극장



부산정보대학 오카리나 동호회인 아소새 출신의 회원들이 사회 진출 후 새롭게 결성한 흙피리 오카리나 동호회의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오카리나 연주곡/꽃이 떨어지는 길, 원령공주, 바람

클래식 연주곡/별밤의 피아니스트, 가브리엘 오보에, Irlandaise, 목소리를 위한 협주곡 등

- **관람료** 무료
- **문 의** 이학봉(010-4323-3872)

제 2회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The Classic 아시아의 창(窓) 부산 브람스의 비전 부산의 비전

11월 8일 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지난해 부산시립교향악단과 민간 교향악단의 대형 연합오케스트라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았던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두 번째 페스티벌.

올해는 부산 교향악의 역사를 대변하는 주인공들과 미국 필라델피아, 미시시피, 일본 도쿄필 단원들,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 출신 아티스트 등 120여명이 함께 연주, 국내 음악인들의 교류를 통해 차세대 유망주를 발굴 육성하기 위한 특별한 무대를 펼친다.

부산의 음악역사를 대변하는 키워드로 인간 내면의 따뜻함을 담고 있는 브람스 음악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브람스/대학축전 서곡 작품 80

브람스/바이올린 협주곡 라장조 작품 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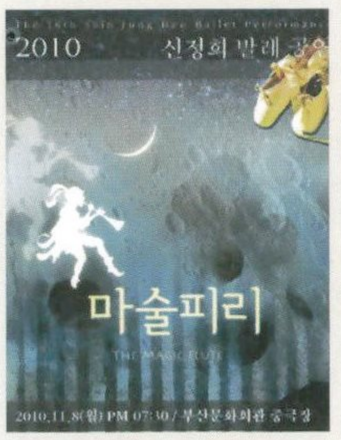
브람스/교향곡 제1번 다단조 작품 68

- 예술감독 겸 지휘/오충근
- 협연 및 악장/데이비드 김

- **관람료** 초대
- **문 의** KNN(1577-7600, www.knn.co.kr)

신정희 발레단 제 18회 정기공연 오페라 명작 마술피리

11월 8일 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아름답고 풍부한 멜로디와 고귀한 기품이 배어있는 모차르트 오페라 '마술피리'를 발레 무대로 옮겨온 신정희 발레단 정기공연.

오페라 마술피리의 기본적인 갈등 구조인

자라스트로와 밤의 여왕의 대결은 빛과 어둠, 선악의 대비로 창작.

· 안무/신정희

· 출연/정경표(전 유니버설발레단, 서울발레시어터 단원), 정두순(전 유니버설발레단 단원), 서지연, 정미경, 김태윤 등 20여명

■ **관람료**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 **문 의** 신정희발레단(010-8510-4784)

부산피아노듀오협회 제 40회 정기연주회

11월 9일-10일 화-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20여년의 역사를 가진 부산피아노듀오협회는 봄, 가을 꾸준한 정기연주회를 통해 피아노 앙상블 음악의 호흡과 화려함을 선사해왔다. 솔로, 듀오연주로 피아노 앙상블의 매력을 전해준다.

■ 9일(화) 솔로 연주

프로그램

슈만/빈 사육제 작품 26

프로코피에프/피아노 소나타 제 3번

라벨/우아하고 감상적인 왈츠

쇼팽/발라드 1번

· 출연/김경진, 강유민, 박희정, 박필은

■ 10일(수) 듀오 연주

프로그램

슈베르트/환타지

드보르작/슬라브 댄스

쇼스타코비치/콘체르티노 등 수곡

· 연주/한명희, 김소형, 손소연, 이미진, 고경숙, 김지민, 최민경, 임효진, 하수연, 정현주, 원영아, 박미은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 의** 김진희(010-9928-3733)

신라대학교 무용학과 졸업작품발표회 그녀들의 파티

11월 9일 화요일 오후 7:30 소극장

신라대학교 무용학과에 재학중인 무용학도들이 그동안의 수업을 되돌아보며 다양한 창작작품을 선보인다.

작품

오늘도…너를 가슴에 품다(안무/박미향)

누군가 가르쳐주다(안무/문은영)

한사람(안무/박윤희)

꿈, 놓아버리다(안무/강다영)

샬럿의 아가씨(안무/최효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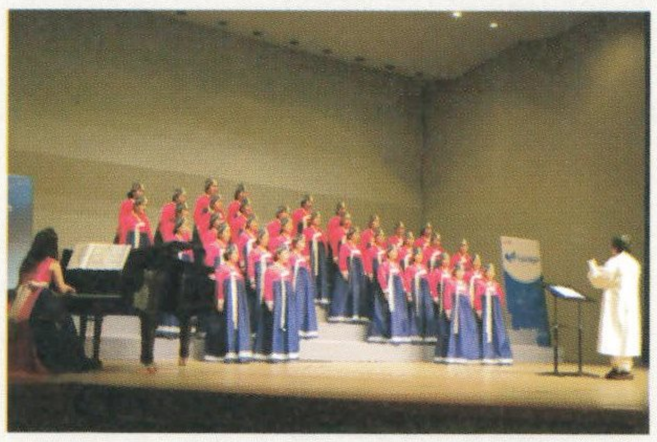
걸음의 공식(안무/김수연) 등

■ **관람료** 무료

■ **문 의** 신라대학교 무용학과(999-5301)
박미향(010-8217-1031)

2010 부산국제합창제

11월 10일-13일 수-토요일 오전 10:00
대극장 중극장 소극장



2005년 APEC을 기념해 시작된 제 6회 부산국제합창제.

그동안 국내보다도 해외에서 더 알려져 문화예술의 도시 부산의 이미지를 널리 알려온 부산국제합창제 2010년 무대는 미국, 체코, 러시아, 가나, 중국,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폴 등 세계 15개국 21개의 우수합창단과 국내 20개 합창단이 참가하여 열띤 경연과 콘서트를 펼친다.

대극장

11월 10일(수) 오후 7:30
개막축하공연 '세계청소년 합창의 밤'
11월 11일(목)-12일(금) 오후 7:30
갈라콘서트 '세계합창의 향연'
11월 12일(금)-13일(토) 오후 1:00, 3:00, 5:00
영화 하모니, 록큰롤 인생 상영
11월 13일(토) 오전 10:20 클래식 동성 경연대회
11월 13일(토) 오후 7:30 시상식 및 챔피언 콘서트

중극장

11월 11일(목) 오전 10:40 클래식 혼성 경연대회
11월 12일(금) 오전 10:20 민속음악 경연대회
11월 12일(금) 오후 7:30
부산, 일본, 싱카포르합창단 우정의 연주회
11월 13일(토) 오후 2:00
클래식 대중음악 경연대회

■ **관람료** 무료

■ **문 의** 한국합창조직위원회(622-0534, www.koreachoral.or.kr)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하늘아래 그 콘서트 Vol.15 데이 브레이크

11월 12일 금요일 오후 8:00 소극장



'하 늘 아 래 그 콘서트' 열 다섯번째 주인공 '데이 브레이크' 부산 첫 단독 공연.

짜릿한 에너지와 과감한 무대매너로 라이브계의 절대강자로 군림하고 있는 '데이 브레이크'는 이원석(보컬), 김장원(키보드), 김선일(베이스), 정유종(기타)으로 이루진 4인조밴드이다.

지난해 EBS 스페이스 공감 헬로 루키에 선정되며 늦깎이 신예로 화제를 모은 바 있는 데이 브레이크는 민트 페스티벌, 뷰티풀 민트 라이프, 그린 플러그드 페스티벌, 타임투록 페스티벌,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등 대형 축제에 연이어 초청 받으며, 특유의 팝적인 감각과 폭발적인 무대 매너로 음악 팬들을 사로잡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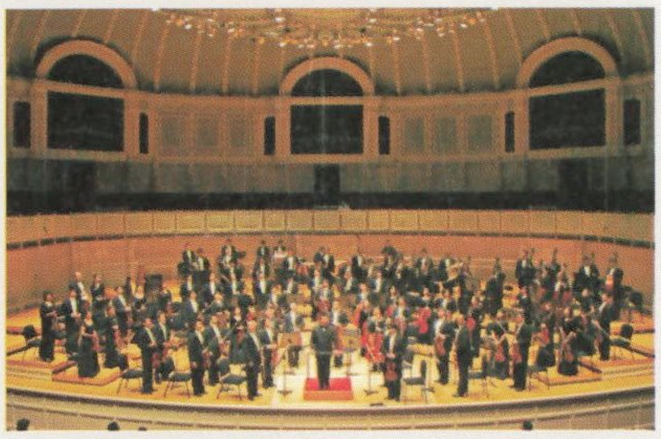
■ **관람료** 균일 30,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 **문 의** 부산문화회관 공연과(607-6058)

2010 제28회 대한민국국제음악제 중국 내셔널 심포니 오케스트라 내한 공연

11월 14일 일요일 오후 5:00 대극장

1956년 중국 정부에서 창단한 최초의 서양 관현악단인 중국국립교향악단(China National Symphony Orchestra ; 中国国家交响乐团, 이



하 CNSO) 부산연주회.

중국 내셔널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아시아 음악계 주류로 떠오른 중국의 힘, 생명력 넘치는 소리를 가진 원숙한 그룹이다(런던 타임스)' '풍부하고 깨끗한 음량으로 베토벤의 협주곡을 제패했다. 유연하고 부드러운 CNSO만의 탁월한 음색은 청중들을 감동으로 이끌었다.(뉘른베르거 뉴스)', '리 신차오가 이끄는 CNSO는 충실하고 에너지가 충만하며 정확하게 훈련되어 있다.(워싱턴 포스트)' 등 찬사를 받고 있다.

뉴욕 Bachnalia violin competition 1위, 미국의 썬밋 뮤직 페스티발 콩쿠르 2위를 차지하고 미국 커티스음악원을 최연소로 졸업한 신예 바이올리니스트 한효림이 협연한다.

프로그램

생상스/바이올린 협주곡 제 3번 나단조 작품 61
스트라우스/영웅의 생애
· 지휘/리 신차오
· 협연/한효림

■ **관람료** VIP석 100,000원 · R석 80,000원
S석 50,000원 · A석 3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 **문 의** 코리아인아트(070-4063-9910)

김은실 피아노 독주회

11월 14일 일요일 오후 7:30 중극장



부산대학교, 미국 메릴랜드 주립대학, 가톨릭 대학(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을 졸업하고 귀국한 김은실 피아노 독주회.

김은실은 귀국 전 한국문화원 음악감독(The Korean Cultural Sevice,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Korea Foundation, USA 음악감독으로 활동했다.

프로그램

하이든/소나타 제 60 다장조 HobXVI/50
리베르만/가고일스 작품 29
브람스/소나타 제 3번 바단조 작품 5

■ **관람료** 초대

■ **문 의** 김은실(010-2920-7040)

부산 닥터스 클라리넷 앙상블 제 5회 정기연주회

11월 14일 일요일 오후 5:00 소극장

2007년 10월 클라리넷을 연주하는 부산의 의사와 치과의사들로 구성된 부산 닥터스 클라리넷 앙상블 제 5회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파헬벨/캐논
사라 본/어 러버스 콘체르토
카펜터/탑 오브 더 월드
카르딜로/무정한 마음 등 수곡

■ **관람료** 무료

■ **문 의** 김태훈(010-7543-0883)

제 16회 부산전자음악협회 정기공연 2010 부산국제멀티미디어 음악축제

11월 15일 월요일 오후 7:30 중극장

박철홍교수의 '기억-Memory'를 비롯하여 최인식, 하기종, 이상윤, 주창근, 최종문, 김한밀 등 부산을 대표하는 7인의 작곡가와 미국의 Clay Chaplin, Daniel Eaton, 러시아의 Kostia Rapoport, 이란의 Raza Payami 등 해외 작곡가들의 작품을 연주한다.

특히 Clay Chaplin의 작품은 3D영상과 함께 음악을 감상할 수 있어 입체안경을 소지한 경우 3D영상과 음악의 절묘한 체험을 만끽할 수 있다.

■ **관람료** 초대

■ **문 의** 이동관(010-3873-7983)

독일가곡연구회 제 37회 정기연주회

11월 16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1987년 8월 독일어권(독일, 오스트리아)에서 유학을 한 음악가들을 중심으로 창단된 독일가곡연구회는 창단이래 매년 평균 2회 이상의 정기연주회와 특별연주회, 세미나, 마스터클래스 등을 통해 독일어권의 가곡, 오페라 보급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무대는 가곡, 오페라, 오페레타 갈라로 무대를 꾸민다.

프로그램

브람스/Zigeuner Lieder op.103(집시의 노래)
베버/Opera Der Freischütz(마탄의 사수)
레하르/Operetta Die Lustige Witwe(유쾌한 미망인)
스트라우스/Operetta Die Fledermaus(박쥐) 등
· 출연/최훈녀, 김혜정, 김현주, 장은녕, 김현애, 장회진(소프라노), 이은민, 김현식, 우원석, 조윤환(테너), 허종영, 김종화(바리톤), 김일석, 김정대(베이스)
· 피아노/김남숙, 김성희, 이화영선, 곽윤희, 손정화, 공소현, 임효진, 임소영

■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 **문 의** 김현식(011-566-4172)

김희은 댄스컴퍼니 2010 김희은의 춤 하늘에 묻다

11월 17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동의대학교 김희은 교수가 이끄는 김희은 댄스컴퍼니의 2010년 창작무대.

김희은 교수는 눈부시게 발전해온 서구문명이 오늘날 봉착하고 있는 여러 가지 폐해에 대한 해결의 시각을 동양적인 가치에 두고 만물과 조화를 이루는 '중화'의 관점을 강조하는 창작무대 '하늘에 묻다'를 통해 인간의 궁극적인 근본은 무엇이며 또한 인간이 지향해 나가야 할 방향과 그 방법은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가를 관객

과 함께 생각해 본다.

작품

1부 천지인(天地人), 2부 역(易), 3부 중화(中和)

· 안무, 기획, 연출/김희은(동의대학교 교수)
· 영상/김상화(부산예술대학 교수)
· 특별출연/윤석태(이지드 현대무용단 단원), 심영임(탐 현대무용단 단원), 최재언, 박혜련, 어수정(탐 현대무용단 단원), 오승택(뮤지컬 배우), 류동현(뮤지컬 배우), 강지연(창원시립소년소년합창단 안무자), 김석순
· 출연/허종원, 조지혜, 정희라, 이수미, 김미화, 이진아, 김현주, 황은자, 서아롬 외 30명

■ **관람료** 일반 20,000원 · 학생 10,000원
■ **문 의** 김희은(890-2510, 011-9734-5057)

부산시립무용단 제 63회 정기공연
형사DUELIST- 춤! 영화를 만나다

11월 18일-19일 목-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영화 '형사DUELIST'를 춤으로 재해석한 부산시립무용단의 새로운 창작무대 '형사DUELIST- 춤! 영화를 만나다'.

수려한 영상미와 연출기법으로 사랑받고 있는 이명세 감독이 2005년 발표한 영화 '형사DUELIST'를 춤 무대로 옮겨온 이 작품은 영화 속 캐릭터에서 무용수로 이어지는 끊임없는 흐름을 통해 영상과 춤이 한 작품 속에 녹아있는 새로운 장르의 창작 작품이다.

수석안무자 홍기태가 안무 · 구성을, 허은희가 대본 · 연출을 맡은 '형사DUELIST- 춤! 영화를 만나다'는 영화의 뛰어난 영상과 부산시립무용단원들의 춤사위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 안무, 구성/홍기태
· 대본, 연출/허은희(동의대학교 교수)

■ **관람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A석 5,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 **문 의** 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 154회 정기연주회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위촉작품 명곡전
창단부터 오늘까지

11월 18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전통음악의 깊은 정신과 정서를 아름다운 현대적 레퍼토리로 창조해 내고 있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김철호 수석지휘자와 함께 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 154회 정기연주회.

부산국악계에 큰 획을 그은 국악관현악단의 활동을 되돌아보며 창단부터 현재까지 국악관현악단에서 위촉한 작품 중 명곡을 엄선, 국악애호가들과 특별한 만남을 갖는다.

프로그램

김기수/청사포 아침해(1984년 위촉작품)
신영순/클라리넷 협주곡 '부림'(1997년 위촉작품)
김선/축제의 향연(2005년 위촉작품)
황의종/국악관현악 '이렇게 슬픈 날에는'(2010년 위촉작품, 초연)
강봉천/거문고 협주곡 '우삭도'(2010년 위촉작품, 초연)

· 지휘/김철호
· 협연/전혜정(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거문고), 여인호(울산대학교 교수, 클라리넷)

■ **관람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A석 5,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 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1~2)

부산색소폰합주단
제 3회 정기연주회

11월 19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음악전공자는 물론 재학 중인 대학생부터 자영업자, 한의사, 초등학교 교사 등 20대부터 70세에 이르는 다양한 연령층이 활동하고 있는 부산색소폰합주단의 제 3회 정기 연주회.

· 지휘/정홍기

■ **관람료** 초대
■ **문 의** 김동수(010-4479-2258)

첼리스트 지안 왕 초청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64회 정기연주회

11월 20일 토요일 오후 4:00 대극장



동양인 최초로 도이치 그라모폰 입성으로 화제를 모은 세계적인 첼리스트 지안 왕(Jian Wang) 협연으로 마련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64회 정기연주회.

1986년 뉴욕 카네기 홀에서 공식 데뷔한 지안 왕은 이후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말러 청소년 오케스트라, 리카르도 샤이가 지휘하는 로얄 콘체르트헤보우 오케스트라(암스테르담, 중국 투어)와의 공연으로 일찍부터 각광받았다.

프로그램

드보르작/첼로 협주곡 나단조 작품 104
드보르작/교향곡 제 8번 사장조 작품 88

· 지휘/리 신차오 · 협연/지안 왕

■ **관람료**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A석 3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 **문 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바라밀합창단
창단 10주년 기념음악회

11월 20일 토요일 오후 6:00 중극장



2001년 창단된 이후 부산종교인 평화예술제, 부산합창제 등에서 다양한 무대를 선보여온 바라밀합창단 연주회.

대만교류기념으로 받은 반야심경 한국 초연무대를 비롯해 퓨전국악팀 예타례의 즐거운 민요, 붓다남성중창단의 중후한 중창, 대중적인 가요, 팝으로 1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무대를 연다.

프로그램

관세음보살, 떡깔나무 잎새에 부는 바람, 가지산 물소리, 공양편3, 아리랑 모음곡, 닐니리 맘보 등

· 지휘/추현철 · 반주/최지선

· 찬조출연/통만두(통기타로 만든 두번째 세상), 퓨전국악팀 '예타래', 붓다중창단

■ **관람료** 초대

■ **문 의** 바라밀합창단(404-4300)

해운대청소년오케스트라 창단 10주년 기념 연주회

11월 21일 일요일 오후 5:00 대극장



정우영 박정원 김동규

2000년 12월 창단된 이래 해운대의 홍보사절단으로 꾸준한 연주활동을 펼쳐온 해운대청소년오케스트라의 창단 10주년 기념연주회.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음악을 사랑하는 해운대 지역 청소년들로 결성된 해운대청소년오케스트라는 2001년 3월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해운대 구민을 위한 여름밤의 음악회, 해운대 달맞이 축제, 달빛 음악제, 해운대 모래축제, 신세계센텀시티 연주회 등에서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해왔다.

창단 10주년을 맞아 소프라노 박정원, 바리톤 김동규가 해운대청소년오케스트라와 함께 무대를 갖는다.

프로그램

드보르작/슬라브댄스 8번

드보르작/심포니 8번

아르디티/입맞춤

김연준/청산에 살리라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등 수곡

· 지휘/정우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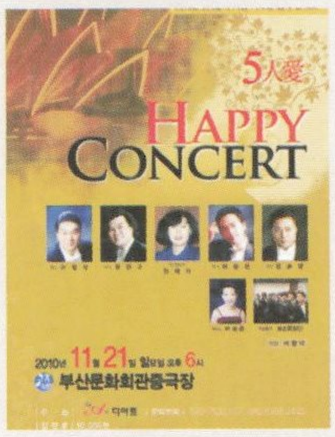
· 협연/소프라노 박정원, 바리톤 김동규

■ **관람료** 초대

■ **문 의** 구명희(010-2849-2689)

5人愛 해피콘서트

11월 21일 일요일 오후 6:00 중극장



깊어가는 가을의 서정을 노래하는 5人愛 해피콘서트.

부산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테너 이칠성, 장진규, 허동권, 양승엽과 약사 성악가 한혜자가 아름다운 독창과 이중창으로 '신아리랑' '저구름 흘러가는 곳' '사랑의 테마' '축배의 노래' 등 친숙한 곡들로 사랑의 무대를 열어준다.

· 해설/이향아 · 피아노/이승윤

· 특별출연/삼손중창단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 의** 디아트(010-8368-2445)

부산재즈색소폰앙상블 창단연주회

11월 21일 일요일 오후 7:00 소극장



2009년 창단된 부산재즈색소폰 앙상블의 창단연주회.

부산재즈색소폰앙상블은 지난해 통영국제음악제 프린지 공연에 참가해 라이징스타상을 수상했다.

프로그램

When the saints go march, Over the rainbow, Watermelon man, Tequila L.O.V.E, In the mood 등 수곡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 의** 김승모(010-9271-0626)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Open Rehearsal 합창의 자격

11월 23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새롭게 붐을 일으키고 있는 합창의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부산시립합창단이 처음으로 마련하는 '오픈 리허설-합창의 자격'.

부산시립합창단과 관객이 함께 합창단원이 되어서 직접 곡을 배우고 함께 불러보는 기회를 갖는다.

프로그램

오프닝 앙상블/함께 노래하자(Sing we and chant it, T.Morley), 달콤한 사랑이여, 오라(Come away sweet Love, T.Greaves)

오픈 리허설 1. 청중과 함께/하얀 손수건, Top of the World

합창/Let it be, Green Green Grass of Home

오픈 리허설 2. 청중과 함께/그리워라, 꽃동네 새동네, 개똥벌레 등 수곡

· 지휘/김강규

· 피아노/이승윤, 이경미

· 앙상블/권순유, 이찬미, 정재연, 백지은, 서미선, 박성환, 강은태, 김태우, 장용균, 이현성

· 에피소드 앙상블/남순천, 손미숙, 이재원, 김창돈, 구명금

■ **관람료** 균일 5,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 의** 부산시립합창단(607-3141~2)

김선욱 피아노 리사이틀

11월 24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세계 권위의 리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동양인 최초 및 최연소 우승으로 이름을 떨치며 눈



산독주회.

리즈 콩쿠르 이후, 영국의 유수 오케스트라와의 협연과 유럽 각지에서의 많은 독주회 등으로 세계 음악계를 이끌어갈 차세대 피아니스트로 주목받고 있는 김선욱은 리즈 콩쿠르 외에 독일의 에틀링겐 국제 피아노 콩쿠르 우승(2004), 스위스의 클라라 하스킬 국제 콩쿠르 최연소 우승(2005), 제 1회 대원음악상(2005), 금호음악인상(2007)을 수상한 바 있다.

프로그램

슈베르트/방랑자 환상곡

슈베르트/4개의 즉흥곡 작품번호 899

후지쿠라 다이/줄

무소르그스키/전람회의 그림

- 관람료 R석 60,000원 · S석 40,000원 A석 30,000원 · B석 20,000원
- 문 의 공연기획 예성(582-2026)

2010 새물결 동인춤 모음전

11월 24일-25일 수-목요일 오후 7:30,
11월 27일-28일 토-일요일 오후 5:00 소극장

젊은 춤꾼들의 창작 열기를 고취시키기 위해 부산무용협회가 젊은 작가들을 발굴, 매년 가을 펼치는 새물결 춤모음전 열 네번째 무대.

- 11월 24일(수)-25일(목)

한국무용 '꿈을 삼켜버린 기억'(안무/신윤경)

발레 '꽃'(안무/정두순, 최소정)

현대무용 '홀로서기'(안무/정진우)

- 11월 27일(토)~28일(일)

한국무용 '이불(離佛)'(안무/이혜진)

현대무용 '길에 지다'(안무, 출연/임선희, 지숙정)

발레 'Shadow'(안무/박지혜)

- 문 의 부산무용협회(632-5116) 문자영(010-8755-5284)

제 14회 부산여성문화회관 미루샘합창단 정기연주회

11월 25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순수 아마추어 어머니 합창단으로 구성된 부산여성문화회관 미루샘합창단의 제 14회 정기연주회.

미루샘합창단은 지난해 부산·후쿠오카 우호 증진을 위해 5월은 부산에서, 12월은 후쿠오카에서 상호 방문 공연을 가졌다. 합창단.

프로그램

조원호/엄마의 이야기

미국민요/할아버지 시계

모리코네/'Nella Fantasia' 등 수곡

· 지휘/고봉수

· 협연/손명균(트럼펫), 신정순(소프라노)

· 반주/김신정, 김승희

- 관람료 초대
- 문 의 고봉수(010-4434-6605)

2010 미즈챔버콰이어 제 3회 정기연주회

11월 26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2007년 부산지역 20~30대 여성들로 창단된 미즈챔버콰이어 제 3회 정기연주회.

남자의 자격을 통해 널리 사랑받고 있는 'Nella Fantasia'를 비롯한 재미있고 아름다운 합창곡을 마임과 아카펠라와 함께 들려준다.

프로그램

뮤지컬/'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중 'Tonight', '포기와 베스' 중 'Summer time'

슈트라우스/피치카토 폴카

이현철(편곡)/주안에 있는 나에게 등 수곡

· 지휘/김정한

- 관람료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A석 10,000원
- 문 의 이찬미(010-2595-8425)

부산문화회관 재개관 기념 기획공연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

11월 27일-28일 토요일 오후 4:00, 8:00,
일요일 오후 3:00, 7:00 대극장



유료 객석 점유율 95%로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뮤지컬'로 다시 한 번 그 인기를 입증한 화제작 '브로드웨이 42번가' 부산무대.

1933년 상영된 영화 '42번가' 를 무대화한 '브로드웨이 42번가'는 1930년대 대공황기에 브로드웨이의 중심인 42번가를 배경으로 무명의 뮤지컬 배우가 스타로 탄생되는 아메리칸 드림을 보여준다.

더욱 글래머러스한 매력으로 우리 곁을 다시 찾은 '2010 브로드웨이 42번가'는 '브로드웨이의 제왕, 줄리안 마쉬의 중후한 카리스마' 박상원과 김법래, '농염한 뮤지컬 스타 도로시 브록은 바로 나' 박해미와 이정화, 사랑스러운 열정의 코러스걸 '페기 소여' 역에는 최승희(바다)와 뉴욕 뮤지컬시어터페스티벌 최우수 연기상에 빛나는 실력파 배우 방진의가 열연한다.

- 관람료 VIP석 120,000원 · R석 100,000원 S석 80,000원 · A석 6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 문 의 SPA엔터테인먼트(1599-7448)

한얼정악연구소 제 15회 정기공연 특별기획 30년 시조 외길 정인경 정가무대

삶은 가락을 타고

11월 27일 토요일 오후 7:00 중극장

시조에 담겨진 조상들의 슬기와 민족 정서를 체험하며 30년 시조 외길을 걸어온 정인경의 예



술인생을 되돌아보는 특별기획 무대.

시조창무극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해 온 한얼정악연구소가 그동안 무대에서 선보여온 시조창무극 매창, 홍랑, 한우, 황진이의 이야기를 엮은 영상과 시조 해설, 시 낭송, 국악동요, 고시조 감상, 우리 춤 등으로 풍성한 무대를 열어준다.

특히 이번 무대는 부산교사시조연구회 회원과 그동안 한얼정악연구소가 배출한 제자들이 함께 무대를 열어준다.

프로그램

가락에 실린 예인의 삶, 시낭송, 국악동요 '구름', 어린이 시조 창극 '효'

고시조/동창이 밝았느냐, 초당에 곤히든 잠, 월정명 월정명커늘, 창 내고자 창 내고자 등

· 창/정인경, 전연희, 이전매리, 이희재, 이현정, 하윤주, 박진희, 박선미, 문민주, 박은영, 조수연, 김나령, 박수진, 정유정 외

· 사회/이민화(시조시인)

· 작품 해설/임종찬(부산대학교 교수)

· 춤/김정원 · 대금/채수만

■ **관람료** 초대

■ **문 의** 한얼정악연구소(011-870-8597)

제 27회 뮤즈앙상블 정기연주회

11월 29일 월요일 오후 7:30 중극장



뮤즈앙상블 조현선

1989년 창단, 올해로 21주년을 맞이하는 뮤즈앙상블이 들려주는 제 22회 정기연주회.

이번 무대는 임병원 교수를 주축으로 피아니스트 조현선교수와 바이올리니스트 황지원 등 기존 단원과 새로 영입한 바이올리니스트 이기종, 비올리스트 최영식, 첼리스트 양욱진이 함께 연주한다.

프로그램

슈만/피아노5중주 내림마장조 작품 44

슈베르트/현악 4중주 '죽음과 소녀' 라단조

· 연주/임병원(리더, 바이올린), 조현선(피아노), 이기종(바이올린), 황지원(바이올린 황지원), 최영식(비올라), 양욱진(첼로)

■ **관람료** 균일 20,000원(학생 50% 할인)

■ **문 의** 임병원(663-4917, 010-8533-4917)

피아노 소사이어티 클랑 정기연주회

11월 29일 월요일 오후 7:30 소극장

피아노 소사이어티 클랑 회원인 피아니스트 정문정, 민강은, 김병기가 들려주는 베토벤 소나타 전곡 연주회 두 번째 무대.

프로그램

베토벤/피아노 소나타 2번, 4번, 17번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 의** 민강은(010-5898-1957)

부산문화회관 재개관 기념 기획공연

장사익 소리판 역(驛)

11월 30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꽃구경 이후 2년 만에 부산무대를 찾는 우리시대의 소리꾼 장사익 소리판 역(驛).

마흔 여섯 늦깎이 신인으로 데뷔한 장사익은 그동안 한국적인 혼과 정이 담긴 노래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태평소 연주자로 1993년, 1994년 전주대사습놀이에서 장원, 1995년 KBS 국악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한 장사익은 1995년 1집 '하늘가는 길'을 시작으로 '기침'(1999년), '허허바다'(2000년), '꿈꾸는 세상'(2003년), '사람이 그리워서'(2006년), '꽃구경'(2008년)과 라이브 앨범 '장사익'(2009년)까지 7장의 앨범을 발표했다.

■ **관람료** R석 100,000원 · S석 80,000원
A석 60,000원 · B석 3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5% 할인)

■ **문 의** 부산문화회관(607-6057)
행복을뿌리는판(638-0514)

신라대학교 무용학과 부산, 양산 지역 순회공연

12월 1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신라대학교 무용학과 재학생들이 펼치는 부산, 양산지역 순회공연.

창조적 전문 무용인의 양성을 위하여 강의실을 벗어나 직접 관객을 만나 그동안 배운 무용이론적 지식과 실기적 훈련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무용의 아름다움을 손쉽게 즐길 수 있는 편안한 무대를 열어준다.

프로그램

한국무용 '즉흥무', 현대무용 '3개의 에피소드' 힙합 '두통', 발레 '젠자노의 꽃 축제' 등

■ **관람료** 무료

■ **문 의** 신라대학교(999-5301)



MUSIC

화요공감무대
예인과 함께하는 우리문화

매주 화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2일 가향(歌響) 풍류를 더하다

부산대학교 국악학과 02학번 동기들로 구성된 '가향(歌響)'의 무대.

· 연주/김성겸(피리), 김은경(대금), 백민경(해금), 김지영(가야금), 윤승환(타악)

▶9일 하선주의 놀음



경성대학교 무용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새앎춤회 단원, 어울림무용단 대표로 있는 하선주의 무대.

하선주는 현재 중요무형문화재 제82-라호 남해안별신굿 전수자로 활동하고 있다.

▶16일 진민진 아쟁독주회 '생각, 되돌아보다'

부산대학교 국악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국립부산국악원 연주단 단원, 악상 프로젝트 동인으로 있는 아쟁주자 진민진 독주회.

▶23일 박은하, 허유진 '허튼 가락'

국립부산국악원 연주단 단원으로 있는 거문고주자 박은하와 대금주자 허유진이 함께하는 무대.

▶30일 강지은 해금 독주회 '춤추는 해금'

서울대학교 국악과 및 동대학원에서 음악수업을 받고 현재 국립부산국악원 연주단 단원으로 있는 해금주자 강지은 독주회.

▪ 관람료 균일 6,000원

▪ 문 의 국립부산국악원(811-0038)

인터내셔널 플루트콰이어 연주회

11월 2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플루티스트 정승찬, 김남형의 제자들로 결성된 인터내셔널 플루트콰이어 창단연주회.

프로그램

A.B.Furstenau/4중주 바장조 작품 88
포레/파반느 등 수곡

▪ 관람료 무료

▪ 문 의 정승찬(010-2557-6643)

소프라노 김나영 독창회

11월 2일 화요일 오후 7:3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고신대학교 교회음악과 및 동대학원, 오트리아 빈국립음대를 졸업하고 현재 부산시립합창단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소프라노 김나영 독창회.

· 피아노/홍지혜

· 찬조출연/손기영(클라리넷)

▪ 관람료 균일 20,000원

▪ 문 의 우리아트(010-555-3825)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화요음악회

매주 화요일 오후 8:00 가톨릭센터 소극장

▶2일 한국음악작곡가회 정기연주회

김강애, 김경람, 김국진, 김성광, 김성희, 문현애, 육수근, 이주애, 이진영, 태미 등 한국음악작곡가회 회원들이 마련하는 창작곡 무대.

· 연주/권경아(피아노), 김현지(플루트), 하지현(플루트)

▶9일 이혜승, 김정강 '피아노 듀오의 밤'

독일악헨음대를 졸업하고 이태리 Palma D'oro 국제피아노콩쿠르에서 2위 입상한 이혜승과 독일 아우구스부르크 국립음대, 뮌헨 Richard-strauss 콘서바토리, 스위스 취리히국립음대를 졸업한 김정강이 함께하는 피아노 듀오무대.

▶16일 4인 4색 '아름다운 음악의 향기속으로…'

소프라노 변향숙, 윤선기, 바리톤 장진웅, 김태영이 들려주는 4인 4색 무대.

우리 귀에 친숙한 유명 가곡과 오페라 아리아, 뮤지컬 넘버를 들려준다.

· 피아노/박윤정 · 해설/장진규

▶23일 베이스 최철 독창회

조선대학교 음악교육과 및 동대학원, 이탈리아 마스까니 국립음악원, 한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이탈리아 Teramo 국제성악콩쿠르 1위없는 2위, Madonna di Galaro 국제성악콩쿠르 1위 입상한 베이스 최철 독창회.

· 피아노/황인화 · 해설/장진규

▶30일 국악실내악단 '살티'와 함께

1997년 국악인구 저변확대와 전례음악 토착화를 위해 가톨릭 국악인들이 모여 결성한 국악실내악단 '살티'의 무대.

· 연주/김가나(대금), 박은정(가야금), 정지연(해금), 하정희(타악), 제민이(소리)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 의 가톨릭센터(441-3788)

금정수요음악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3일 제 8회 부산피아노트리오 정기연주회

바이올리니스트 백재진, 첼리스트 배종구, 피아니스트 제갈삼으로 구성된 부산피아노트리오 정기연주회.

· 특별출연/김유진(소프라노), 안준희(피아노)

▶10일 제 300회 기념 수요음악회 '피아니스트 죠르쥬 쁠뤼더막헤르 초청음악회'



죠르쥬 쁠뤼더막헤르 이미소라

현재 파리고등국립음악학교 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죠르쥬 쁠뤼더막헤르와 그의 제자로 파리를 중심으로 유럽에서 활동중인 재불 피아니스트 이미소라의 무대로 마련되는 금정수요음악회 300회 기념음악회.

프로그램

쇼팽/프렐류드 작품 28 제 15번 내림라장조
라벨/밤의 가스파르
라흐마니노프/프렐류드 작품 3 올림다단조 제 2번 등 수곡

▶17일 김정숙 피아노 독주회

경성대학교 교회음악과와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글린카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쳐온 피아니스트 김정숙 독주회.

· 특별출연/김태경(클라리넷), 박정렬(첼로)

▶24일 아미티에성악연구회 '애창곡의 밤'

부산대학교 김문희 교수의 제자들로 결성된 아마티에성악연구회가 들려주는 애창곡의 밤.

· 출연/소프라노 윤지영, 박소영, 옥혜나
테너 양승엽, 김철수, 바리톤 이철훈

· 피아노/이경미

▪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 문 의 금정문화회관(519-5651)

2010 강태홍의 소리
知音 知舞 天地 同化

11월 4일 목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안숙선 엄옥자 신명숙

가야금 산조의 명인 효산 강태홍 선생을 기리고 그의 작품세계를 전승, 보급하고 있는 (사)강태홍류 가야금산조보존회가 마련하는 2010년 정기무대.

효산 선생의 생애와 예술정신을 단가 형식으로 표현한 위촉곡 김세종의 '효산가'와 부산을 대표하는 가야금주자 신명숙과 춤꾼 엄옥자의 예술혼이 어우러지는 산조춤 '知音 知舞 天地 同化' 등 다양한 작품이 소개된다.

· 특별출연/안숙선(중요무형문화재 제 23호 가야금산조 및 병창 예능보유자), 엄옥자(중요무형문화재 제 21호 승전무 예능보유자), 김세종(다산연구소 연구실장), 왕기석(국립창극단 단원), 장종민(중요무형문화재 제 5호 판소리 고법 이수자)

▪ 관람료 초대

▪ 문 의 김지영(010-9234-9638)

심정연 귀국 피아노 독주회

11월 4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이화여자대학교 피아노과 및 동대학원, 프랑스 파리 에꼴노르말을 졸업하고 현재 부산듀오협회, 부산연주가클럽, 리스트협회 부산 회원으로 활동중인 피아니스트 심정연 귀국 독주회.

프로그램

하이든/소나타 다장조 C Hob X VI: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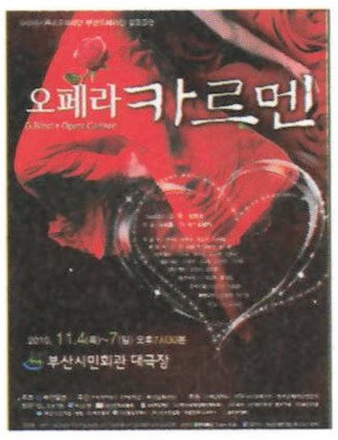
슈만-리스트/헌정 등

▪ 관람료 무료

▪ 문 의 예솔기획(0505-700-9798)

오페라 카르멘

11월 4일-5일 목-금요일 오후 7:30, 6일-7일 토-일요일 오후 5:00 시민회관 대극장



집시여인 카르멘과 돈 호세와의 비극적 사랑을 그린 '카르멘'은 하바네라, 투우사의 노래 등 우리에게 친숙한 아리아들로,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3대 오페라 중 하나이다.

· 예술총감독/손욱, 전연숙

· 연출/유상흘 · 지휘/김봉미

· 출연/전연숙, 한현미, 박소연, 김현애(카르멘), 김경, 허동권, 양승엽, 홍지형(돈호세), 서경숙, 허미경, 이재란, 장은녕(미카엘라), 강재권, 김도형, 김상효, 강경원(에스카미요) 외

▪ 관람료 VIP 150,000원·R석 100,000원
S석 70,000원·A석 50,000원
B석 30,000원

▪ 문 의 (사)아지무스오페라단
(070-7522-4649)

소프라노 박민영 귀국 독창회

11월 5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고신대학교 교회음악과와 이탈리아 F.Torrefranca 국립음악원, 아레나 아카데미아, 로마아카데미아를 졸업하고 귀국한 소프라노 박민영 독창회.

· 특별출연/솔로몬남성중창단

▪ 관람료 초대

▪ 문 의 박민영(010-3933-1496)

한유주 플루트 귀국독주회

11월 5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동아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음악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인터내





셔널 플루트콰이어 수석 주자로 활동하는 플루티스트 한유주 귀국독주회.

- 클라리넷/이원기
- 피아노/곽윤희
- 해설/정승찬

▪ 관람료 초대

▪ 문 의 박민영(010-3933-1496)

토요신명무대 우리소리 우리춤

매주 토요일 오후 3:0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국립부산국악원 예술단이 매주 토요일 마련하는 신명넘치는 우리소리, 우리춤 한마당.

▶6일 프로그램

시조 '청산리', 태평무, 판소리 '심청가' 중 '타루비 대목', 밀양백중놀이 중 '오북춤' '범부춤', 해금협주곡 '세상풍경(작곡/강상구)' 등

▶13일 프로그램

향발무, 아쟁산조, 동래학춤, 동부민요 '쾌지나 칭칭나네' '옹헤야' '경상도 아리랑', 실내악 '아름다운 인생 II(작곡/김선제)', 설장구 합주 등

▶20일 프로그램

경풍년, 동래한량춤, 가야금병창 '까투리타령' '통영개타령', 좌수영어방놀이 중 '어부춤' '아낙춤', 거문고협주곡 '강상유월(작곡/오혁)' 등

▶27일 프로그램

포구락, 판소리 '춘향가' 중 '쑥대머리', 생소병주 '수룡음', 살풀이춤, 남도민요 '팔월가' '풍년가' '내고향 좋을씨고', 가야금중주곡 '오봉산타령' 등

▪ 관람료 1층 8,000원 · 2층 6,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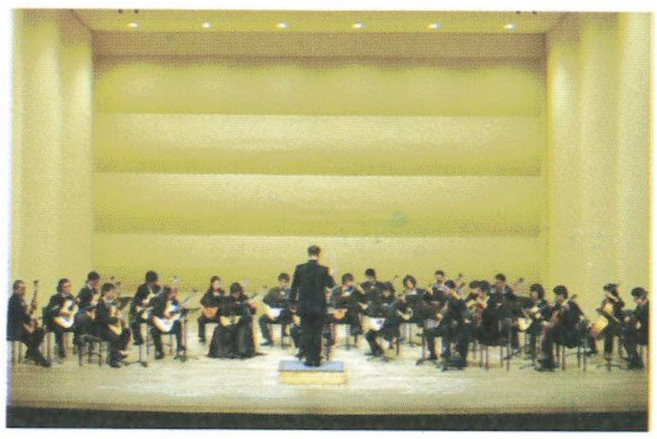
▪ 문 의 국립부산국악원(811-0040)

부산페스티발기타앙상블 제 8회 정기연주회

11월 6일 토요일 오후 7:0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부산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주활동과 초청무대를 통해 클래식기타의 저변확대에 힘써오고 있는 부산페스티발기타앙상블의 8번째 정기연주회.

진주, 거제 순회연주회에 앞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비발디, 모차르트의 교향곡을 기타연주로 감상할 수 있다.



- 연주/Joy기타콰르텟(장하진, 장하은, 이현주, 장형섭), 폴리포니기타듀오(서승완, 김경태), 부산페스티발기타앙상블
- 해설/정천식

▪ 관람료 일반 10,000원 · 청소년 5,000원

▪ 문 의 서승완(010-5198-0074)

창단 30주년 기념
제 15회 목련합창단 정기연주회

11월 6일 토요일 오후 7:00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꽃'을 소재로 한 아름다운 꽃노래로 합창단 30년의 역사를 축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목련합창단 지휘자를 역임했던 테너 강학윤과 소프라노 김순옥이 특별출연한다.

프로그램

꽃들과 함께 I /국화옆에서(박지훈 곡), 산유화(이현철 곡), 도라지꽃

D.Besig/아직도 내겐 음악있네

꽃들과 함께 II /코스모스(박지훈 곡), 목련꽃 피면(이수인 곡) 등 수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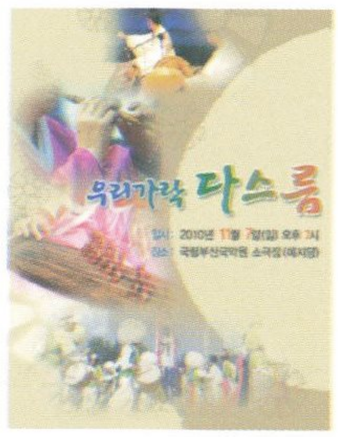
- 지휘/오동주
- 피아노/문지은

▪ 관람료 무료

▪ 문 의 이미자(010-4630-2704)

우리가락 다스름 제 16회 정기연주회

11월 7일 일요일 오후 7:00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1992년 우리국악을 사랑하는 아마추어 연주자들로 결성된 후 15차례 정기연주회와 찾아가는 문화활동, 부산생활음악축제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국악의 저변확대에 힘써온 우리가락 다스름의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사물놀이 '웃다리 풍물', 정악 '취타', 단소제주 '천년만세' 중 '계면가락 도드리', 해금독주 '적념', 대금제주 '강마을', 국악합주 '남도아리랑' 등

▪ 관람료 무료

▪ 문 의 김성주(010-2599-0625)

소프라노 정재영 귀국독창회

11월 7일 일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경성대학교 교회음악과와 독일 함부르크 음악원 Lied und Oratorium을 졸업하고 그동안 오스트리아와 독일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귀국한 소프라노 정재영 독창회.

- 특별출연/바리톤 안상철
- 피아노/김인재

▪ 관람료 초대

▪ 문 의 정재영(010-4145-6019)

2010 대학교향악축제

11월 9일(화)-13일(토), 16일(화)-17일(수)
오후 7:30 시민회관 대극장

부산지역 7개 대학 교향악단이 참가하는 2010 대학교향악축제.

9일 동의대학교를 시작으로, 부산대학교(10일), 동아대학교(11일), 신라대학교(12일), 경성대학교(13일), 인제대학교(16일), 고신대학교(17일) 교향악단이 연주한다.

- 관람료 무료
- 문 의 부산음악협회(634-1295)

테마가 있는 브런치 콘서트
체코 세베라첵 합창단 초청공연
드보르작과 스메타나의 후예

11월 9일 화요일 오전 11:0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1958년 체코 Liberec 음악학교 소년소녀합창단으로 결성된 후 지난 50여년간 스페인, 그리스, 벨기에,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등 세계 유명 합창제에서 30회 이상 대상을 수상한 바 있는 체코를 대표하는 세베라첵 합창단 초청공연.

유럽 고전합창에서부터 세계 각국의 민요와 영가, 대중음악까지 친근하고 다양한 레퍼토리로 관객과 만난다.

- 관람료 균일 5,000원
- 문 의 해운대문화회관(749-7651)

쇼팽 탄생 200주년 기념음악회

11월 9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피아노의 시인' 쇼팽의 아름다운 음악으로 가을밤을 수놓을 쇼팽 탄생 200주년 기념음악회.

2008년 중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스페인에서 열린 제 15회 Rotaract 국제피아노콩쿠르에서 우승한 피아니스트 징시안 시에와 바이올리니스트 이은옥, 김도경, 최유진, 비올리스트 김은진, 첼리스트 양욱진, 심어라, 테너 조윤환이 출연한다.

- 관람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0,000원
- 문 의 아트뱅크코레아(442-1941)

한국가곡연구회 제 14회 정기연주회
애창 가곡의 밤

11월 9일 화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테너 김동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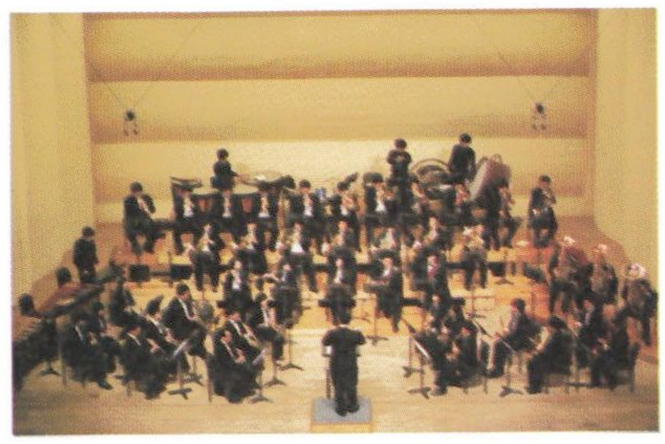
1997년 창단한 후 우리민족의 정서를 담은 가곡의 연구와 보급에 힘써온 한국가곡연구회 정기연주회.

이번 무대에서는 청산은 나를 보고, 가고파, 진달래꽃, 희망의 나라로 등 평소 우리가 즐겨 부르는 애창가곡으로 꾸며진다.

- 출연/소프라노 정서영, 성정하, 김현숙, 메조 소프라노 김효순(한국가곡연구회 회장), 손자경, 테너 김동윤, 함도관, 이홍득
- 피아노/박명주, 최진현
- 관람료 초대
- 문 의 우리아트(010-555-3825)

톤인프리 윈드오케스트라
제 12회 정기연주회

11월 10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1997년 금관 5중주로 출발, 금관 10중주, 윈드오케스트라로 확대 개편하며 새로운 음악을 선사하고 있는 톤인프리 윈드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 협연/소프라노 강혜정, 테너 허동권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 의 김일택(010-3885-7740)

바리톤 이창용 독창회
슈베르트 연가곡 겨울나그네

11월 11일 목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동아대학교 교수로 그동안 학구적인 무대를 선사해온 바리톤 이창용 독창회.

실연의 아픔으로 방랑하는 젊은이의 고통을 그린 슈베르트의 대표적인 연가곡 '겨울나그네' 전곡을 프랑스 파리고등국립음악원 교수인 죠즈쥬 쁠뤼더막헤르의 반주로 들려준다.

- 관람료 초대
- 문 의 이창룡(010-9695-9313)

국내 최고 전문 녹음홀
국제수준 어쿠스틱 음향 연주홀

글로빌아트홀

CD 녹음 / DVD 녹화	연주회 / 클래스발표회 / 행사
유학오디션용 / 국제콩쿨용	독창회 독주회 실내악 오케스트라 국악연주회
현재 미국 명문음대 100%의 합격률을 기록하고 있음 (CD 및 DVD 오디션에서 합격 사례) 피아노:송정민(이스트만음대전액장학생), 엄유정 (텍사스 어스틴 음대) 첼로:김미나(줄리어드합격 및 론지 장학생)/바이올린:이슬기(피바디음대) 성악:김지현 김혜원(뉴잉글랜드콘서바토리 합격) 외 다수	피아노 성악 현악 관악 클래식기타 작곡 가야금 독주 및 합주 연주회 실황 녹음 녹화 가능
개인 음반 / 합창단 합주단 기념음반 / 교회찬양대 기념음반 녹음 및 녹화는 예약하셔야 합니다	

부산 동래구 사직북로 48번길 162 전화 051-505-5995 팩스 051-505-5935 www.glovil.org / glovil@paran.com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안내

>> 음악 >> 연극 >> 무용 >> 전시

제 1115회 MBC목요음악회
가을에 듣는 러시아 합창음악

11월 11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2009년 3월 부산YMCA의 사회적 일자리 참여기관으로 창단한 후 오페라 전문합창단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부산오페라합창단 초청무대로 마련되는 제 1115회 MBC목요음악회.

이번 무대에서는 러시아 작곡가 스비리도프, 알랴비예프의 합창곡과 러시아 민요, 팝송, 대중가요 등 관객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친숙한 연주곡을 들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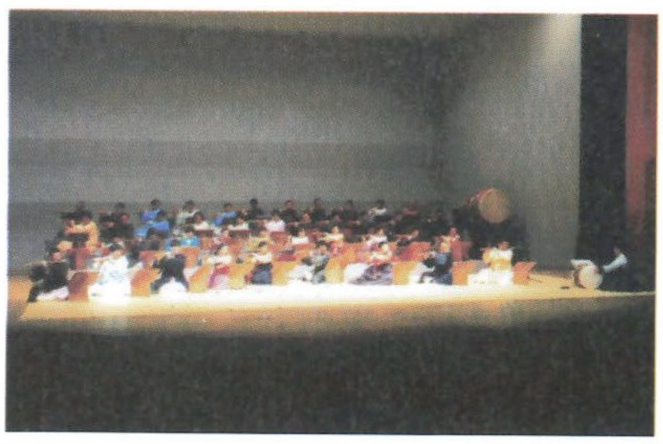
· 예술감독/김명규 · 피아노/하영화, 김덕희

▪ 관람료 일반 10,000원 · 청소년 5,000원

▪ 문 의 (사)문화도시네트워크(760-1494)

2010 한얼樂會 제 5회 정기연주회

11월 13일 토요일 오후 6:00 시민회관 소극장



1990년 창단된 국악동호회 한얼악회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대금수석 채수만을 중심으로 우리음악 사랑을 펼쳐오고 있다.

· 연주/채수만, 전회원, 이본우, 백신아, 김태윤, 이현경, 최용륜, 장태문, 김지빈, 허장행(이상 대금), 공정희, 김용성(장고), 이희재(창), 오은영(가야금)

▪ 관람료 초대

▪ 문 의 채수만(010-4503-1175)

강영화 다섯 번째 작곡발표회
천도음악회 그날, 님을 보내는 맘

11월 13일 토요일 오후 6: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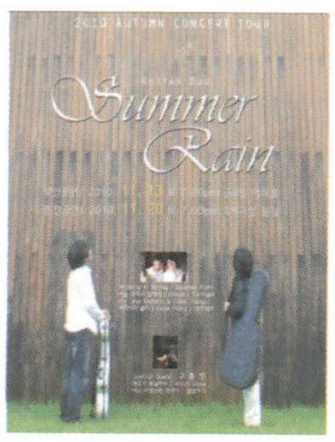
이화여자대학교 작곡가 및 동대학원, 불가리아 소피아국립음악원 석,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옥련선원합창단 지휘자로 있는 강영화는 이번 무대에서 죽은 사람의 넋을 위로하는 진혼곡으로 천도음악회를 마련한다.

▪ 관람료 초대

▪ 문 의 강영화(017-557-3038)

2010 Autmn Concert Tour
기타 듀오 Summer Rain

11월 13일 토요일 오후 7:00 글로빌아트홀



2005년 클래식기타리스트 심현, 임승문으로 결성된 후 기타의 다양한 음색과 실험을 통한 새로운 무대를 선보여온 클래식기타 듀오 'Summer Rain' 콘서트.

· 찬조출연/클래식기타리스트 고충진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 의 글로빌아트홀(505-5995)

토요해피콘서트

11월 13일(토), 27일(토) 오전 11:00
동래문화회관 소극장

부산메트로폴리탄 팝스오케스트라의 소울 윈드앙상블과 4크라베이스가 우리 귀에 친숙한 클래식과 영화음악, 재즈 등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13일 소울 윈드앙상블

▶27일 4크라베이스

▪ 관람료 균일 2,000원

▪ 문 의 동래문화회관(550-4481~2)

최차옥의 서울소리 꽃향기

11월 14일 일요일 오후 7:0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시나 산문으로 된 글을 노래조로 읊는 전통성악의 한 장르로, 서울시무형문화재 제 41호로 지정된 송서율창을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무대.

송서율창보존회 부산도지부 최차옥과 송서율창 예능보유자 유창이 대표적인 송서율창인 '삼설기'와 경기민요 등을 들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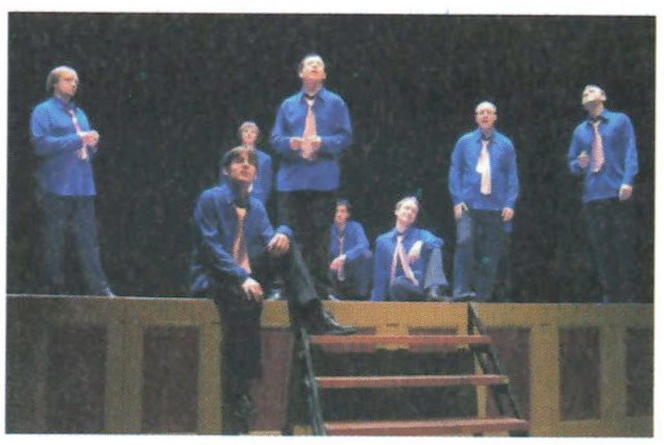
· 특별출연/유창, 박경랑

▪ 관람료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 문 의 최차옥(010-2676-5868)

한낮의 유U; 콘서트 아카펠라와 뮤지컬 영혼의 울림

11월 16일 화요일 오전 11:00
부산롯데호텔 아트홀



체코 아카펠라계의 희망이라 불리는 보컬앙상블 '젠틀맨 싱어즈'와 울산시립교향악단 부수석을 역임하고 현재 부산비르투오조 퀄텟 멤버로 활동중인 첼리스트 정준수, 2007년 한국뮤지컬대상 여우주연상, 제 1회 더 뮤지컬 어워즈 여우

주연상을 수상한 뮤지컬배우 김선영이 출연, 가곡과 민요, 영화주제곡, 뮤지컬넘버 등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 관람료 균일 1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 문 의 국제신문(500-5222)

부산리코더앙상블 제 3회 정기연주회

11월 16일 화요일 오후 7:0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2006년 부산지역 초등학교 교사들로 결성된 후 정통 리코더음악 연주와 교육에 힘써온 부산리코더앙상블 정기연주회.

이번 무대에서는 리코더오케스트라로 듣는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과 A. 홀본, O.기번스 등 르네상스 작곡가들의 곡을 들려준다.

・지휘/임종환 ・찬조출연/오성경(바이올린)

- 관람료 초대
- 문 의 리더 강희숙(016-562-6561)

홍상희 귀국 피아노 리사이틀

11월 16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공연장



이화여자대학교 기악학부와 독일 슈투트가르트 국립음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독일을 중심으로 활동해온 피아니스트 홍상희 귀국 독주회.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 의 아트뱅크코레아(442-1941)

바리톤 이승우 독창회

11월 18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동아대학교와 이태리 F.Torrefranca 국립음악원, 로마아카데미를 졸업하고 이태리 마리오란자 국제콩쿠르, 고태국 성악콩쿠르에서 입상한 바리톤 이승우 독창회.

・찬조출연/소프라노 구민영 ・피아노/전은영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 의 이승우(010-7182-8811)

동래문화회관 목요국악콘서트

11월 18일 목요일 오후 7:30
동래문화회관 소극장

부산대학교에 재학중인 젊은 국악인들로 결성된 국악그룹 가이아가 들려주는 해설이 있는 퓨전국악콘서트.

- 관람료 균일 2,000원
- 문 의 동래문화회관(550-4481~2)

이은정 귀국 피아노 독주회

11월 19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글린카국립음악원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동안 러시아를 중심으로 연주활동을 펼쳐온 피아니스트 이은정 귀국 독주회.

이은정은 러시아 노보쿠즈네츠크 피아노 콩쿠르 1등, 체코 'International Competition Of Young Performers' 국제음악콩쿠르 2등을 수상한 바 있다.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 의 아트뱅크코레아(442-1941)

이상창 플루트 독주회

11월 19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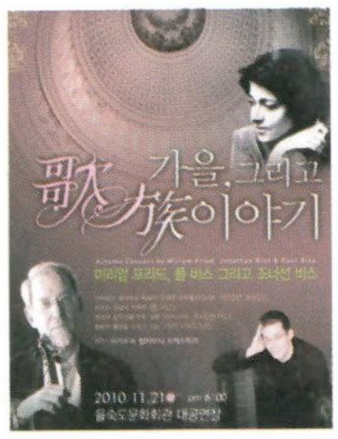
경성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진주시립교향악단 단원, 부산플루트앙상블 초대회장을 역임한 플루티스트 이상창 독주회.

・피아노/공소현

- 관람료 일반 10,000원・학생 5,000원
- 문 의 이상창(010-9986-1225)

을숙도문화회관 개관 8주년 특별기획공연
가을, 그리고 歌族 이야기

11월 21일 일요일 오후 6: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여성 바이올리니스트 최초로 퀸엘리자베스 콩쿠르를 석권한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미리암 프리드와 2001년 뉴욕필과의 데뷔무대 이후 뛰어난 음악성으로 주목받고 있는 젊은 피아니스트 조너선 비스, 풍부한 감성의 지휘자 폴 비스 등 음악가족이 펼치는 특별한 무대.

・협연/코리아 W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관람료 VIP 100,000원・R석 70,000원
  S석 50,000원・A석 30,000원
- 문 의 코리아인아트(070-4063-9910)

경남쳄버쏘싸이어티 제 18회 정기연주회

11월 23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2003년 부산, 경남지역의 실력있는 연주자들로 결성된 후 그동안 정기연주회와 찾아가는 음악회, 청소년 여름음악학교 등을 통해 실내악 활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안내

>> 음악 >> 연극 >> 무용 >> 전시



성화에 힘써온 경남첼버쏘싸이어티 정기연주회.

· 연주/차문호, 김성은(바이올린), 이정한, 김상철(비올라), 박현영, 김성덕(첼로), 유영욱, 박수원(피아노)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 의 이정한(010-2787-8705)

가야금앙상블 현의 사랑 네 번째 정기연주회

11월 24일 수요일 오후 7:30 시민회관 소극장



2006년 강봉천을 단장으로 아마추어 가야금연주자들로 창단된 부산어머니가야금연주단을 전신으로 한 가야금앙상블 '현의 사랑' 정기연주회.

· 찬조출연/부산여성문화회관 가야금예술단

▪ 관람료 초대

▪ 문 의 강봉천(010-5355-4833)

교사국악회 그루터기 제 8회 정기연주회

11월 25일 목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2003년 전통음악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부산지역 교사들로 결성된 교사국악회 그루터기가 상영산, 중영산, 세영산, 가락덜이, 삼현도드리, 염불, 타령, 군악 등 8곡으로 구성된 영상회상 전곡을 들려준다.

▪ 관람료 무료

▪ 문 의 이수정(010-2542-4682)

NEUES 제 2회 작곡발표회

11월 26일 금요일 오후 7:30 시민회관 소극장

동아대학교 박철홍 교수를 주축으로 작곡전공 동문들로 결성된 NEUES의 두 번째 작곡발표회.

작곡가 박철홍, 권태우, 배심행, 임록의 창작곡과 함께 작년에 작고한 故 권영철 동아대학교 교수의 서정적인 창작가곡도 들려준다.

▪ 관람료 무료

▪ 문 의 임록(010-9210-5547)

제 35회 부산 시민과 지역민을 위한 행복음악회

11월 28일 일요일 오후 3:00 글로빌아트홀



글로빌전국음악콩쿠르 입상자들과 유빌라떼 앙상블, 샬롬여성중창단, 남구소년소녀합창단이 함께하는 부산시민을 위한 행복음악회.

▪ 관람료 자율(이웃돕기 성금)

▪ 문 의 글로빌아트홀(505-5995)

PLAY

오즈의 마법사-도로시 따라가기

8월 31일(화)-11월 30일(화) 매주 토-일요일 오후 2:00 솜사탕아트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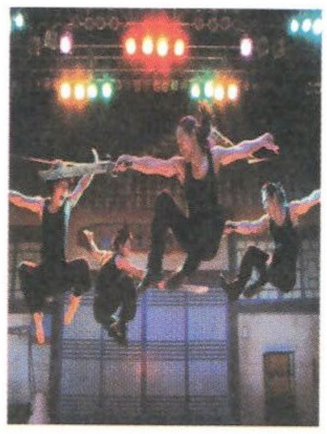
회오리바람에 휩쓸러 '오즈'에 가게된 도로시와 그의 친구들이 펼치는 꿈과 모험의 세계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영어대사로 펼쳐지는 영어연극 '오즈의 마법사-도로시 따라하기'.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 의 솜사탕아트홀(922-4545)

2010 점프 부산

9월 1일(목)-오프런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8:00, 일·공휴일 오후 3:00, 6:00
IBK 점프부산전용극장(해운대 그랜드호텔 B1)



동양무술에 신체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한 고난이도의 아크로바틱과 유쾌한 코미디가 혼합된 넌버벌 퍼포먼스 '점프'.

▪ 관람료 R석 50,000원 S석 4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 의 IBK점프부산전용극장(744-4885)

카툰뮤지컬 두근두근

2010년 9월 30일(목)-11월 30일(화)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사랑과 혁명 소극장

몸으로 만들어내는 의성어와 의태어를 대사로, 아카펠라와 탭댄스로 음악을 완성한 카툰뮤지컬.

▪ 관람료 균일 30,000원

▪ 문 의 SM기획(1600-1602)

코믹소동연극 오! 브라더스

10월 8일(금)-11월 14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BS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입양을 위한 감독관 면접을 기다리는 부부 앞에 사고뭉치 동생들이 나타나면서 펼쳐지는 폭소코믹극.

· 작/레이 쿠니&마이클 쿠니



· 출연/최귀화, 조창기, 조은정, 신형용, 이대한, 김진만, 이종혁, 박미선

▪ 관람료 균일 3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 의 BS부산은행조은극장(1588-2757)

극단 새벽 신의 아그네스

10월 20일(수)-11월 27일(토)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5:00(일-화요일 공연없음)
소극장 실천무대



수녀가 아이를 낳고 탯줄로 목을 졸라 휴지통에 버린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 믿음을 둘러싼 진지한 질문을 던지는 연극 '신의 아그네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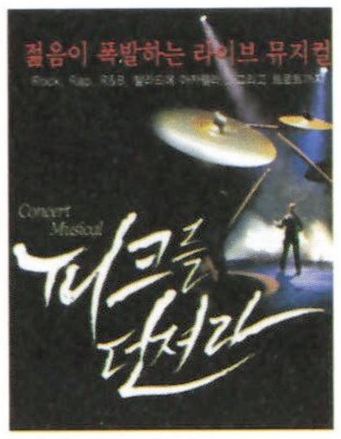
· 작/존 필미어 · 연출/이성민
· 출연/김선애, 밝남희, 변현주

▪ 관람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5,000원
(예매시 10% 할인)

▪ 문 의 극단 새벽(245-5919)

콘서트 뮤지컬 피크를 던져라

10월 22일(금)-11월 14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AN아트홀.Red
11월 23일(화)-12월 3일(금)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고민하는 청춘들의 이야기가 락밴드 연주 속에 펼쳐지는 콘서트 뮤지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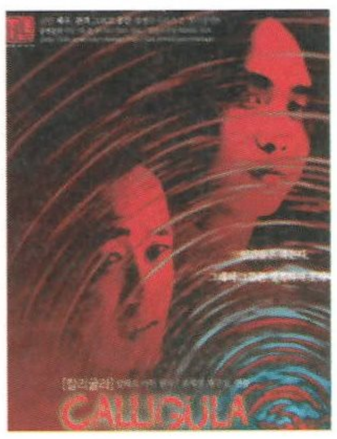
· 출연/강초롱, 이설형, 유환웅, 김보현, 박계훈 외

▪ 관람료 균일 40,000원(해운대문화회관 공연은 R석 40,000원 · S석 30,000원)

▪ 문 의 SM기획(1600-1602)

극단 배관공 세계극시리즈 2 칼리굴라

10월 26일(화)-11월 21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5:00(월요일 공연없음) 열린소극장



실존 인물이었던 로마의 폭군 칼리굴라의 광적인 탐미와 기이한 행동을 극적으로 표현하면서 절대성에 대한 갈망을 비장하게 그려낸 연극 '칼리굴라'.

· 작/알베르 카뮈
· 연출/유재명
· 출연/엄준필, 장기훈, 최현경, 박정아, 전상미, 차승호, 윤장원, 김지희, 유성곤 외

▪ 관람료 일반 20,000원 · 학생 15,000원
(예매시 30% 할인)

▪ 문 의 열린소극장(555-5025)

뮤지컬 슈샤인 보이

10월 29일(금)-11월 28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6:30(월요일 공연없음) BS부산은행조은극장 2관



구두수리공 주인공 상구와 진정한 사랑을 꿈꾸는 대기업 회장의 외동딸 민희가 펼치는 동화 같은 사랑이야기 뮤지컬 '슈샤인 보이'.

▪ 관람료 균일 3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 의 BS부산은행조은극장(1588-2757)

뮤지컬 오! 당신이 잠든 사이

10월 30일(토)-11월 7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요일 오후 3:00
(월요일 공연없음) MBC롯데아트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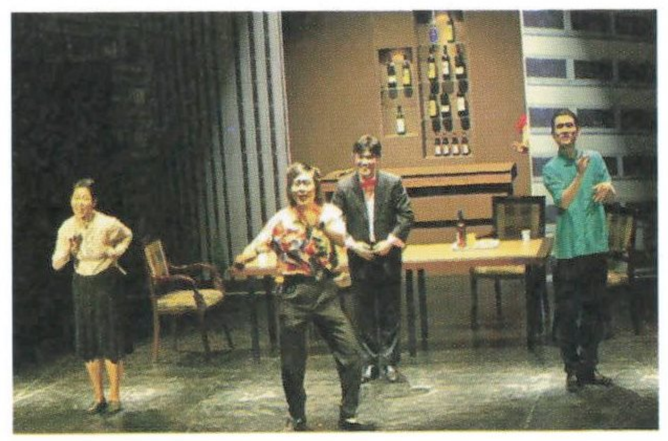
크리스마스 이브날 병원에서 흔적없이 사라진 하반신 마비 환자 최병호를 찾아가는 이야기가 추리극과 같은 흥미로운 구성 속에 감동을 전해주는 창작뮤지컬.

▪ 관람료 R석 40,000원 · S석 3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 문 의 MBC롯데아트홀(760-1357)

2010 젊은 공연 예술축제 백마와 기차

11월 3일(수)-14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5:00(월요일 공연없음) 공간소극장



인간성 상실의 시대에 순수한 사랑을 꿈꾸는 두 남녀를 통해 순수에의 동경과 인간성 환원을 그린 대구극단 한울림 대표 정철원의 창작극.

· 작, 연출/정철원

· 출연/박다윤, 권미영, 한은영, 이윤희, 고경수, 최우정, 배경진, 이원희, 김하나
- 관람료 균일 20,000원
- 문 의 공간소극장(611-8518)

헨젤과 그레텔의 이상한 숲속여행

11월 13일-14일 토-일요일 오후 1:00, 3:00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우리에게 친숙한 명작동화 '헨젤과 그레텔'을 요즘 어린이들의 정서에 맞게 새롭게 각색한 어린이 뮤지컬.
- 관람료 균일 15,000원
- 문 의 화랑엔터테인먼트(1644-5564)

2010 젊은 공연 예술축제 The Monster-가족이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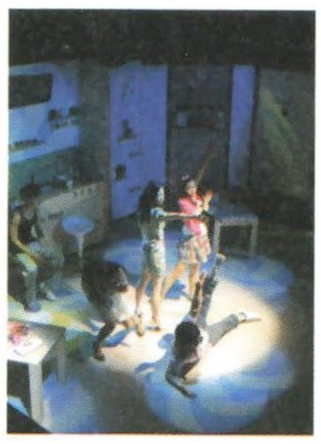
11월 17일(수)-28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5:00(월요일 공연없음) 공간소극장



인간사회의 부조리성을 한 가족을 통해 보여주는 코믹 잔혹극 'The Monster-가족이 있어!'.
· 작, 연출/강태욱
· 출연/신원준, 김근아, 이재우, 장민, 서성원, 박선희, 배성윤, 조민정, 박석재, 김빛나
- 관람료 균일 20,000원
- 문 의 공간소극장(611-8518)

콘서트뮤지컬 우연히 행복해지다

2010년 11월 19일(금)-2011년 1월 2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30,
일요일 오후 3:00, 6:30(월요일 공연없음)
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한 평범한 카페에 찾아든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의 다양한 사연과 희로애락을 통해 사랑과 행복의 의미를 찾는 콘서트 뮤지컬.
· 작. 연출/함유진
· 작곡, 음악감독/Clay
· 출연/노은경, 백은실, 김재근, 이종현, 박슬기, 이세나, 양미경, 원혁, 정창욱, 김우연 외
- 관람료 균일 3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 의 부산은행조은극장(1588-2757)

연극 너와 함께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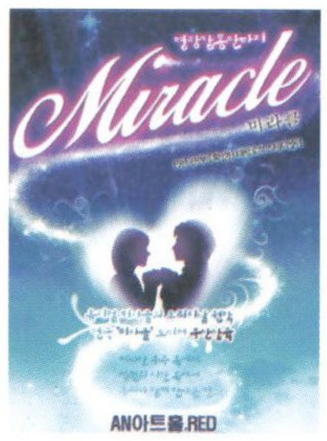
11월 19일 금요일 오후 8:00, 20일 토요일
오후 3:00, 7:00, 21일 일요일 오후 3:00
MBC롯데아트홀



아버지보다 나이많은, 40세 연상인 남자친구가 불쑥 방문하면서 벌어지는 황당로맨스 코미디극.
· 작/미타니 코우키
· 연출/이해제
· 출연/송영창, 서현철, 추귀정, 박준서, 조지환, 이세은, 김유영 외
- 관람료 R석 40,000원 · S석 3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 문 의 MBC롯데아트홀(760-1357)

연극 미라클

2010년 11월 20일(토)-2011년 1월 2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 · 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AN아트홀.Red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희동과 신비한 능력을 지닌 또다른 식물인간 길동, 그들의 영혼이 펼치는 감동 판타지극.
· 작, 연출/김태린
· 출연/김민, 박선홍, 조용현, 박상현 외
- 관람료 균일 30,000원
(10월 30일까지 예매시 50% 할인)
- 문 의 화랑엔터테인먼트(1644-5564)

힙합뮤지컬 질풍

11월 23일(화)-29일(월) 평일 오전 9:30, 11:30,
토-일요일 오후 6: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청소년들의 방황과 좌절, 우정과 사랑, 그리고 가족간의 사랑을 요즘 세대들의 코드인 힙합을 접목시켜 제작한 창작뮤지컬 '질풍'.
· 작/박현철 · 연출/손병태
- 관람료 균일 10,000원(사랑티켓 참가작)
- 문 의 을숙도문화회관(220-5811~3)

뮤지컬 빨래

11월 26일(금)-12월 5일(일) 금요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요일 오후 3:00(평일 오전은 수험생을 위한 특별공연) MBC롯데아트홀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안내

>> 음악 >> 연극 >> 무용 >> 전시

서울 달동네 허름한 다세대 주택에서 저마다의 사연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가난하지만 건강한 삶을 그린 뮤지컬 '빨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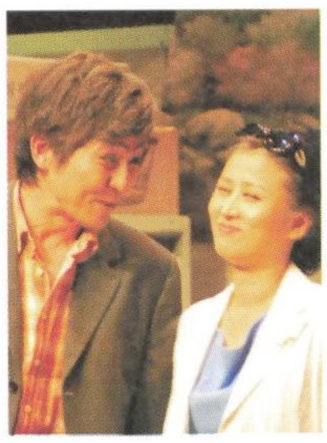
· 작, 연출/추민주

▪ 관람료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A석 3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 문 의 MBC롯데아트홀(760-1357)

연극 용띠 위에 개띠

12월 1일(수)-30일(목)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4:00
소극장 두드림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내기로 결정짓는 52년 용띠 남편과 57년 개띠 부인의 웃지 못할 에피스드를 사랑과 감동으로 그려낸 연극.

· 작/이만희
· 연출/전승환
· 출연/김진욱, 이민영

▪ 관람료 일반 20,000원 · 중고생 12,000원

▪ 문 의 극단 전위무대(582-2026)

DANCE

2010 강미희 & 미야아트댄스컴퍼니 신작 사마리아의 우물

11월 3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물의 다양한 이미지를 통한 생명적 교감으로 여성의 삶을 자유로운 춤언어로 해석한 '사마리아의 우물'.

· 연출, 안무/강미희

▪ 관람료 일반 20,000원
학생 10,000원

▪ 문 의 아트뱅크코레아(442-1941)

임현미의 육체

11월 3일 수요일 오후 8:0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성장의 고통에 대한 성찰과 씻김, 그리고 순수 과거에 대한 몸적 기억의 춤을 새로운 몸짓으로 표현한 임현미의 창작춤 무대 '육체'.

· 대본/최찬열
· 안무/임현미
· 영상/문관규(부산대학교 교수)

▪ 관람료 일반 20,000원 · 대학생 15,000원
중고생 10,000원

▪ 문 의 정경은(010-6711-3922)

장선희무용단 '춤터' 올림…그리움

11월 5일 금요일 오후 7:00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장선희무용단 '춤터' 예술감독, 김진홍전통춤연구회 회원으로 활동중인 춤꾼 장선희가 이끄는 장선희무용단 '춤터'의 전통춤판.

프로그램

태평무, 김진홍류입춤, 대금산조, 도살풀이, 승무, 김진홍류지전춤 등

· 대금/채수만 · 장구/최병길
· 거문고/권은영 · 사회/김해성
· 사회/최종민(동국대학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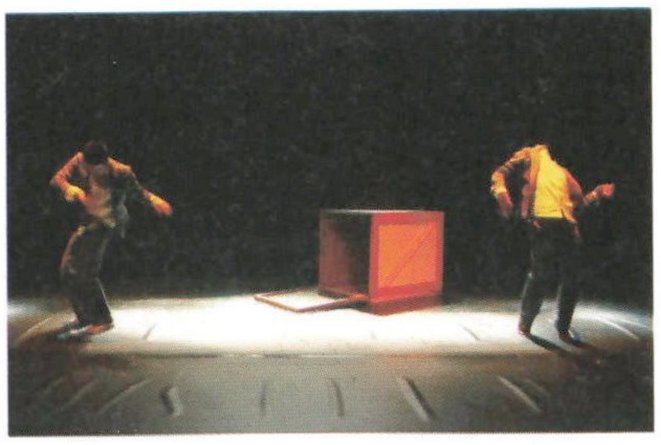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 의 장선희(010-9033-2959)

댄스씨어터 集 기획공연 2010 춤추는 남자들

11월 7일 일요일 오후 6:00 부산민주공원 대극장
7일 일요일 오후 7:30 부산민주공원 소극장

남자춤꾼들의 강렬한 몸짓을 확인할 수 있는 '춤추는 남자들' 7번째 무대로 전통춤과 창작춤이 1, 2부로 나뉘어 선보인다.



▶오후 6:00 프로그램

입춤(출연/이창규), 통영문둥북춤(출연/이강용), 한량무(출연/안덕기), 승무(출연/최병재), 봉산탈춤 첫목(출연/남기성), 훈령대장무(출연/홍기태), 수영야류 말뚝이춤(출연/이상렬)

▶오후 7:30 프로그램

인간이 감출수 없는 Episode-2, 가난(안무, 출연/김동석, 신상현, 강정일), END…AND(안무, 출연/박재영), 선택적 기억(해리장애)(안무, 출연/박재현), BLACK(안무, 출연/주정민), 손영민의 눈맞춤(안무, 출연/손영민), 문 밖에서…(안무, 출연/김윤규)

▪ 관람료 일반 20,000원 · 대학생 15,000원
중고생 10,000원

▪ 문 의 정경은(010-6711-3922)

신은주무용단 올림 道 - 우리춤의 전승과 재창저

11월 10일-11일 수-목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생명력을 지닌 우리 춤을 전통적 원형과 변형이라는 두 흐름으로 통해 전통과 현대라는 대립과 혼돈을 새롭게 재조명해보는 신은주무용단의 창작무대.

· 총 연출 및 구성/신은주(신은주무용단 예술감독)
· 음악/김재철, 부산풍물패, 다락전통예술원
· 특별출연/김덕명(인간문화재, 양산학춤반주), 박수관(동부민요보존회 회장), 김재철(선륜호법무 두람 전수자)

▪ 관람료 일반 20,000원 · 학생 10,000원

▪ 문 의 신은주무용단(010-8578-1573)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안내

>> 음악 >> 연극 >> 무용 >> 전시

명인명무전

11월 17일 수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전통문화예술의 맥을 잇고 있는 지역의 명인 명무를 초청, 다양한 무대를 선사하는 명인명무전.

작품

승무(이민아), 지전춤(김혜경), 원향지무(김윤옥), 살풀이(정미숙), 금회북춤(배관호), 강태홍류가야금산조(이문희), 판소리(박성희)

- 관람료 1층 8,000원 · 2층 6,000원
- 문 의 국립부산국악원(811-0040)

춤, 장단에 물들다 이은영의 춤 2010

11월 19일 금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경희대학교 무용학과 및 교육대학원 체육교육학과,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부산예술고등학교 교사로 있는 이은영의 춤.

프로그램

부채춤, 태평무(화성재인청 이동안류), 양산사찰학춤(김덕명류), 려-향발무, 달구벌 입춤(박지홍제 최희선류), 장고춤 '여인-흥에 젖다' 등

- 관람료 일반 20,000원 · 학생 10,000원
- 문 의 이은영(011-550-8848)

김은이 전통 춤 여·려·려(與·麗·旅)

12월 1일 수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동아대학교 김은이 교수의 전통춤판 '여·려·려(與·麗·旅)'.

궁중무용 중에서 손꼽히는 독무인 춘앵무를 비롯해 태평무, 도살풀이 등 아름다운 전통 춤사위를 선보인다.

- 특별출연/정승희, 최창주, 국수호
- 관람료 균일 20,000원
- 문 의 김은이(010-3597-6757)

CONCERT

남궁옥분&추가열의 가을 듀엣 콘서트

11월 12일 금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 관람료 1층 30,000원 · 2층 20,000원
- 문 의 해운대문화회관(749-7651)

해운대문화회관 목요미니콘서트 끌림 토크가 있는 추억여행 하남석

11월 18일 목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다목적홀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 의 해운대문화회관(749-7651)

Jazz…와인에 빠지다

11월 19일 금요일 오후 8:00 시민회관 소극장

펑크 재즈락 블루스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힘있고 신나는 무대를 펼치는 TAMA(장기영) & VAGABOND의 무대가 열린다.

- 관람료 균일 30,000원(와인 포함)
- 문 의 문화기획단 무대공감(623-0678)

EVENT

제 98회 시울림 시낭송회

11월 3일 수요일 오후 7:00 영광도서 문화사랑방

- 초대시인/강미정, 고영, 신미균, 서영미, 오명선, 정빈, 조범산
- 색소폰연주/김찬식 · 사회/한창옥
- 관람료 무료
- 문 의 김예강(010-5516-1867)

GALLERY

정우범 초대전

11월 1일(월)-11월 13일(토) 타워갤러리

- 문 의 타워갤러리(464-3939)

버려진 풍경 김해진 첫 번째 개인전

11월 2일(화)-11월 7일(일) 갤러리영광

- 문 의 갤러리영광(816-9500~4)

ECO ART전 물질의 순환

11월 3일(수)-11월 10일(수)
아트팩토리 인 다대포

- 문 의 아트팩토리 인 다대포(266-0646)

권혁 초대전

11월 3일(수)-11월 25일(목) 김재선갤러리

- 문 의 김재선갤러리(731-5438)

고현 한지공예전

11월 5일(금)-11월 11일(목) 롯데갤러리 부산본점

- 문 의 롯데갤러리 부산본점(810-2328)

이명호 사진전 사진행위 프로젝트

2010년 11월 13일(토)-2011년 1월 16일(일)
고은사진미술관

- 문 의 고은사진미술관(746-0055)

김윤희 사진전 내 안의 우주에 깃들다

11월 16일(화)-11월 21일(일) 갤러리영광

- 문 의 갤러리영광(816-9500~4)

부산문화회관 재개관 기념 부산시립교향악단 '천원의 행복'

드디어 기다리던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의 재개관… 그 첫 공연에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함께 할 수 있어 너무나 행복했다. 협연자인 피아니스트 애니 황의 앵콜 연주를 들을 수 없는 아쉬움은 있었지만 지휘자 리 신차오와 부산시립교향악단의 농염한 연주는 멋있게 바뀐 대극장과 함께 최고의 축하 선물이였다.

– 이수임(남구 대연동)

부산시립극단 제 39회 정기공연 '페드르'

배우들의 뜨거운 숨결과 생생한 눈빛을 바로 눈 앞에서 보고 느낄 수 있었던 원형무대, 정말 독특하고 감동적인 연출이었습니다. 주인공 '페드르'의 정념과 고뇌에 찬 떨림이 아직도 가슴에 남습니다.

– 김미자(서구 남부민3동)

부산문화회관 재개관 기념기획 공연 '사랑의 묘약'

과연 사랑의 묘약이 있을까. 만약 그런 묘약이 있다면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묘약은 없지만 인생을 아름답게 해줄 음악의 묘약을 만났다.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오페라를 쉽고 재미있게 보여주려 애쓴 흔적이 곳곳에 있어 아이도 재미있게 감상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아이와 함께 정통 오페라 작품에 도전해보고 싶다.

– 장향선(금정구 장전동)

50회 특집 한낮의 유 콘서트 '추억속의 가을여행'

10~20대 시절을 함께 했던 주옥같은 노래들… 그 시절의 아련한 기억속으로 풍덩!!! 가을 빛 추억속으로 음악여행을 떠난 느낌이었다. 따스한 통기타의 선율과 감미로운 소리새, 고병희의 목소리… 어눌한 듯 촌철살인의 유머를 곁들인 유익종의 한결같은 노래들도 가슴에 남는다.

– 한유정(남구 문현동)

3디바 뮤지컬 갈라 콘서트

우리나라 뮤지컬계를 대표하는 홍지민, 최정원, 박해미 세 디바를 만난다는 설렘 때문에 대충 저녁을 챙겨먹고 공연장으로 향했다. 부산에서 보지 못한 뮤지컬 드림걸즈의 주인공 홍지민의 파워풀한 공연을 시작으로 열정적인 뮤지컬 갈라 공연이 펼쳐졌다. 뮤지컬 한편 보기 힘든 나 같은 보통사람을 위한 잘 차려진 성찬이랄까. 공연장을 나오면서 일행들과 함께 다음 생은 노래 잘하는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다는 넋두리를 늘어놓았다.

– 정향기(연제구 연산5동)



방 법 bsculture@naver.com으로 공연후기 '100자 토크'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된 '100자 토크'는 예술에의 초대 지면을 통해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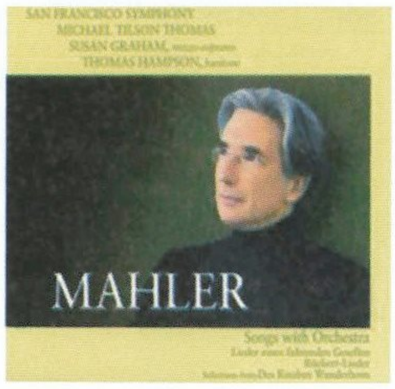
'100자 토크' 공연후기를 보내주신 분을 선정하여 나랏소 시식권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마 감 수시 모집(원고를 보내실 때는 주소와 연락처를 함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3~4)

NEW MUSIC

문희정 _ 지엠뮤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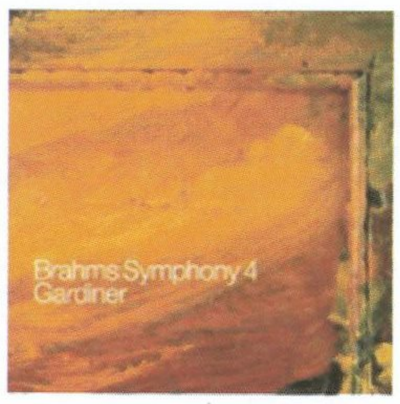


말러 오케스트라 가곡집

연주/바리톤 토머스 햄프슨, 메조소프라노 수잔 그래험, 샌프란시스코 심포니(지휘/마이클 틸슨-토머스)

▶ 방황하는 젊은이의 노래, 뤼케르트 가곡집, 어린이의 이상한 뿔피리(발췌)

많은 찬사를 받으며 10여년 동안 이어졌던 마이클 틸슨 토머스와 샌프란시스코 심포니의 말러 여행이 드디어 오케스트라 가곡집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말러 음악의 강렬한 감정을 강조하기보다는 아름다운 음향과 투명한 텍스추어를 통해 순음악적으로 접근하는 틸슨 토머스의 해석은 특히 가곡집에 잘 어울리며, 우리 시대 최고의 리트 가수들인 토머스 햄프슨과 수잔 그래험 역시 절제된 표현을 통해 농밀한 감정과 세속을 초월한 듯한 아득한 느낌을 전해주는 좋은 노래로 깊은 울림을 안겨준다. 빛나는 연주와 디테일이 모두 살아있는 탁월한 음질이 하나 된 말러 앨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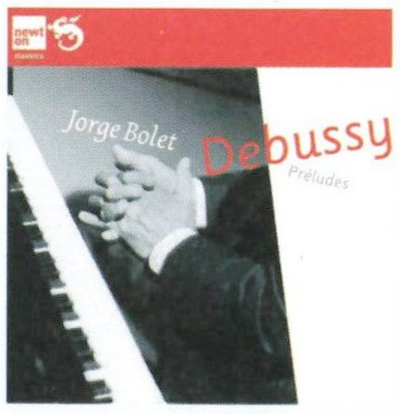


브람스 교향곡 제 4번:가디너

연주/낭만과 혁명 오케스트라(지휘/존 엘리엇 가디네), 몬테베르디 합창단

▶ 브람스/교향곡 4번, 베토벤/코리올란 서곡 외

가디너와 낭만과 혁명 오케스트라의 브람스 교향곡 시리즈가 드디어 완결되었다. 2008년 10월 런던 로얄 페스티벌 홀에서의 실황을 담은 것으로, 고풍스런 분위기와 함께 작곡가 특유의 진한 고독감을 담은 교향곡 4번 외에도 브람스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선배작곡가들인 베토벤의 코리올란 서곡, 쉬츠의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바흐의 칸타타 '주여, 나는 당신을 원합니다'의 일부, 가브리엘리의 12성부를 위한 상투스와 베네딕투스와 더불어 브람스 자신의 합창곡인 '성스러운 노래'와 '축제적이고 기념적인 격언'이 함께 수록되었다. 브람스 교향곡 제 4번은 제 3번의 교향곡을 작곡한 지 얼마 후인 52세 때에 쓴 곡으로 노년기에 이른 브람스의 심경의 깊이가 나타나 있다. 그의 다른 3개의 교향곡과는 달리 곡의 성격도 퍽이나 고립되었고 애수에 잠긴 듯한 느낌을 주는 작품이다.



드뷔시 16개의 전주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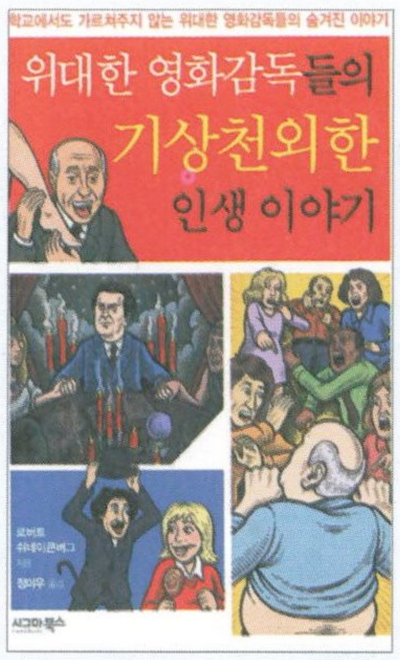
피아노/호르헤 볼레(Jorge Bolet)

호르헤 볼레의 나른하고 섬세한 16곡의 드뷔시 전주곡은 그의 최말년에 녹음되었다. 쿠바 출신인 볼레는 큰 규모에 활기 넘치는 라흐마니노프와 리스트 녹음에 의해 명성을 얻었지만 이번 음반에서는 그의 민첩한 연주와 그가 선호하는 볼드윈 SD-10 피아노의 예민한 조율 상태와 기술적 준비가 돋보인다. 항상 재킷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녹음하는 것과 같은 볼레의 꼼꼼함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의 흥미로운 방식(자신이 직접 고른 12곡의 전주곡 2권과 곡의 배치방법)이 음반에 반영되었다. 그는 스튜디오 녹음을 자주 하지 않는 음악가로, 음반 한 장을 녹음하느니 수백 번의 콘서트를 열겠다는 의견을 내비친 적도 있지만 그의 녹음에 대한 이런 경계심은 딱딱하고 정형화된 연주가 아닌 그의 콘서트 연주보다 한층 더 정제된 즉흥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독자적인 선형미와 웅장함(거침없지만 미묘한 대가다운 페달링 주법에 의한), 그리고 기본적인 리듬 내의 시적인 자유로움이 돋보이는 볼레의 연주는 그가 이제까지 배우고 익힌 모든 것의 정수와 전설적인 기교를 나타내며 영속하는 음악적 진실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진 듯하다." 〈1991년, 그라마폰 리뷰〉

NEW 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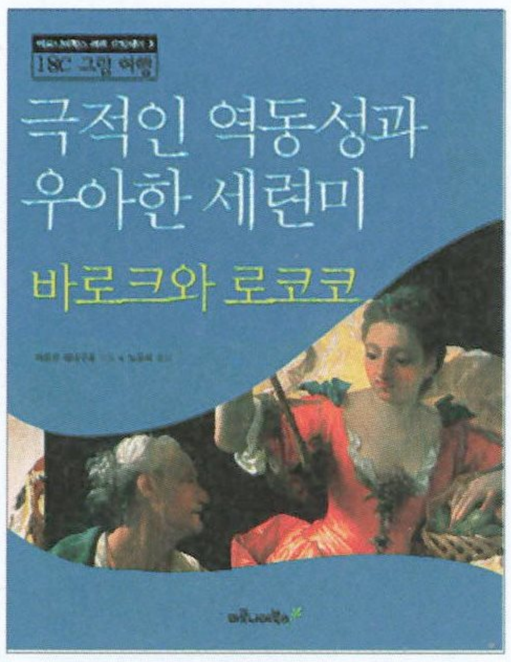
박현주 _ 북칼럼니스트



위대한 영화감독들의 기상천외한 인생 이야기

로버트 쉬네이큰버그 지음 · 정미우 옮김
시그마북스 / 408p / 14,000원

영화감독은 영화제작과정에서 엄청난 권력을 가진다. 감독에게 부여된 이 권력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라는 말이기도 하다. 캐스팅, 스태프, 영화 스토리 등에서 큰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영화감독들의 손에서 수많은 걸작들이 탄생했고, 그들에 대한 전설들도 끊이지 않고 생겨났다. 세기적인 영화감독 36인의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를 들어 보자. 촬영현장에서 무소불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명 영화감독의 사생활과 이면을 적나라하게 밝히며 그들의 은밀한 세상을 들여다봤다. 찰리 채플린은 고무를 병적으로 싫어해서 평생 고무로 된 카메라 삼각지지대를 사용하지 않았다. 스탠리 큐브릭은 세균을 무서워해 감기환자는 옆에도 오지 못하게 했으며, 비행공포증에 시달렸고 모르는 의사에게 치료를 받지 않았다. 장 뤽 고다르는 라이벌이 병으로 죽어가자 고소해 할 정도로 잔인한 면이 있었다. 이들 역시 드러나 보이는 카리스마는 있었지만, 불완전하고 나약한 인간이었던 것이다. 영화사에 길이 남을 영화를 만든 감독들의 내면을 엿볼 수 있는 책이다.



바로크와 로코코 (극적인 역동성과 우아한 세련미)

다니엘라 타라브라 지음 · 노윤희 옮김
마로니에북스 / 383p / 20,000원

예술사가로 오랫동안 예술에 관련된 활동에 몸담아 왔으며 예술서와 전시 카탈로그를 제작하는 등의 회화 연구가로 활동해 온 다니엘라 타라브라의 저서로 〈아트 오딧세이〉의 '세기별 그림 여행' 시리즈 중 한 권. 미술사와 관련한 특정 시기 · 주제, 화가와 미술을 일목요연하게 소개하고, 이를 통해 당시 사회 분위기를 조망하면서 화가와 작품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 시리즈는 서양 미술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사람이나 미술 관련 분야 전공자들이 세기별로 구성된 미술사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바로크와 로코코〉는 서양 미술의 근간을 이루어 온 일련의 미술 흐름에서 볼 때, 다양한 모습으로 사회 각 분야에 활용되기 시작한 중요한 시기인 18세기의 미술을 담은 책이다. 바로크로부터 이어져 화려한 궁정 미술로 꽃피운 로코코 미술은 궁정을 아름답게 수놓았던 각종 공예품, 베네치아와 각종 아름다운 풍경을 화폭에 담은 베두토 회화 등 다양한 그림들로 대표된다. 이 시기의 화가들은 뚜렷한 형태감과 선명한 색조를 통해 그려지는 모델들의 모습을 매우 장식적으로 묘사했다.



옛 그림 속 양반의 한평생

허인욱 지음
돌베개 / 287p / 17,000원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풍속화인 '평생도'와 양반의 생활사 관련 자료를 활용해 양반의 한평생을 보다 쉽게 풀어낸 책. 사진으로 기록해 두기 이전 조선 양반의 한평생을 그림으로 볼수 있다. '평생도'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기념이 될 만한 경사스런 일을 골라 그린 풍속화로 조선시대 양반의 인생관이 드러나 있다. 주로 돌잔치, 혼인식, 회혼례 등 의례 부문과 여러 벼슬살이 장면을 담는다. 조선 사회의 주축이었던 양반의 삶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사극 드라마에서 보는 한량이거나 정쟁에 몰두하는 정치적 실세 등의 둘레를 벗어나지 못한다. 양반들이 모두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거나 문화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운 위대한 영웅이었던 것은 아니다. 평범하게 살다 죽은 양반의 삶의 모습은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역사학도인 허인욱 씨는 〈옛 그림 속 양반의 한평생〉을 통해 지배층이고 조선 사회를 유지했던 핵심임에도 정작 알려진 것이 없는 평범한 양반의 일생을 옛그림과 흥미로운 글로 재구성했다. 옛그림으로 쉽고 재미있게 살펴보는 조선 양반의 한평생이다.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부산, 몬트리올 자매결연 10주년 기념행사 참여


5월 영국에서 열린 부산시립소년소녀압창단의 연주모습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오는 11월 21일 부산, 몬트리올 자매결연 10주년을 기념해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사절단으로 캐나다 연주길에 오른다.

문화도시 부산의 아름다움과 부산시립예술단의 우수한 기량을 알리는 이번 무대는 2010년 부산방문의 해를 맞아 몬트리올에 거주하는 교민은 물론 현지인들에게 한국 문화 교육 및 체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교민들을 위해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세차례에 걸쳐 이현철 편곡 동요사계, 보리밭, 사공의 노래, 동심초 등 우리동요와 가곡, 도라지타령, 춤추는 춘향이, 추천가, 경복궁 타령 등 우리민요와 전통춤들을 선보인다.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5월, 영국 초청 연주회를 가진 바 있다.

양산부산대학교 병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단체 가입


양산부산대학교 병원 전경

양산부산대학교 병원(병원장/백승완)에서 10월, 병원 가족들의 정서함양을 위해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단체 가입했다.

양산부산대학교 병원은 병원가족들에게 정기적으로 공연 정보를 제공하며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예술단 공연 등 공연관람 분위기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양산부산대학교 병원은 그동안 중앙진료동 로비에서 '함께하는 음악회'와 환우들을 직접 찾아가는 '찾아가는 음악회', 어린환아와 보호자들을 위한 '그림엽서 전시회' 등을 개최, 웃음이 넘치는 쾌적한 병원환경을 조성해왔다.

▪ **가입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0)

2010년 시민합창교실 모집



부산시립합창단에서는 2010년 송년음악회 '200인의 합창을 위한 합창' 공연에 앞서 함께 공연을 할 단체 및 개인을 대상으로 '2010 시민합창교실'을 개최합니다.

▪ **모집부문 및 내용**
- · **행사명** : 2010 시민합창교실
- · **대　상** : 노래에 관심 있는 합창애호가

▪ **강의일수**
- · **1회 2시간**(단, 12월 21일은 연주일이므로 리허설부터 공연까지 참가)

2010년 11월 16일(화), 19일(금), 23일(화), 26일(금), 30일(화) – 5회
2010년 12월 3일(금), 7일(화), 10일(금), 14일(화), 20일(월), 21일(화) – 6회

▪ **참가신청 및 참가비용**
- · **기　간** : 2010년 11월 1일(월)~11월 10일(수)(토, 일 제외)
- · **비　용** : 10,000원(교재비 포함)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 **접수처** : 부산시립합창단 사무실
- · **접수방법** : 방문, 팩스(607-6049), 메일(dongjoooh@hanmail.net)
- · **구비서류** : 신청서(소정양식), 참가비 ※참가자가 많을 시 선착순으로 선정

▪ **문　의** : 부산시립합창단(607-3141~4)

찾아가는 시립예술단 11월 공연

공연장을 자주 찾을 수 없는 청중들을 위해 부산시립예술단이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공연 '찾아가는 예술단' 11월 공연이 확정되었다. 11월에는 개성고등학교 꿈나무 소망심기 공연을 시작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공연, 내사랑 부산공연, 근로자를 위한 활력공연들이 펼쳐진다.

11월 1일(월) 오후 3:00	개성고등학교 꿈나무소망심기공연 '개성고등학교와 함께'	(출연/국악관현악단)
11월 3일(수) 오후 3:00	북구문화빙상센터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공연 '북구소외계층을 위한음악회'	(출연/교향악단)
11월 4일(목) 오후 7:30	해양대학교 대강당 내사랑 부산공연 '개교65주년 기념음악회'	(출연/합창단)
11월 6일(토) 오후 6:00	누리마루 내사랑 부산공연 '한일 해협지사회의 1'	(출연/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11월 7일(일) 오후 12:30	범어사 내사랑 부산공연 '한일 해협지사회의 2'	(출연/국악관현악단, 무용단)
11월 8일(월) 오전 11:10	부산솔빛학교 꿈나무소망심기공연 '부산솔빛학교와 함께'	(출연/무용단)
11월 9일(화) 오후 2:00	부산기계공고 꿈나무소망심기공연 '부산기계공고와 함께'	(출연/교향악단)
11월 9일(화) 오후 5:00	중부산세무서 근로자를 위한 활력공연 '중부산세무서 직원들과 함께'	(출연/교향악단)
11월 10일(수) 오후 4:00	구포도서관 꿈나무소망심기공연 '구포도서관 국악음악회'	(출연/국악관현악단)
11월 24일(수) 오후 12:30	시청로비 내사랑 부산공연 '시민을 위한 로비콘서트'	(출연/극단)
11월 30일(화) 오후 2:00	여성회관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공연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	(출연/교향악단)

포도향 가득한 영천 가을여행

찬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절기상 한로(寒露)인 지난 10월 8일, 예년보다 늦어지는 가을 걸음을 재촉하기 위한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테마여행이 펼쳐졌다. 10월 테마여행지는 포도향 가득한 아름다운 '별의 고장' 영천. 잔뜩 찌푸린 하늘 또한 여행을 앞둔 정기회원들의 설렌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특히 이번 테마여행에는 부산시립무용단 오숙례, 황선희 씨가 동행해 여행의 즐거움을 더했다.

영천여행의 첫 방문지는 바로 영천와인학교. 국내 최대 포도 생산량을 자랑하는 영천은 특히 와인 제조가 가능한 머루포도 주산지로, 국내 와인생산의 최적지로 각광받고 있다. 지난 2007년부터는 와인클러스트 사업을 시행, 와이너리(와인 양조장) 조성과 와인개발센터, 와인학교 등을 운영하면서 올해 2월 영천와인공동브랜드인 '씨엘'을 출시하기도 했다. 프랑스어로 '하늘'을 뜻하는 '씨엘'은 '별의 고장' 영천을 상징하는 동시에 하늘처럼 높고 고귀한 맛과 품격을 지닌 와인을 뜻한다.

미리 기다리고 있던 전민욱 문화유산해설사의 안내로 영천와인학교를 둘러보았다. 대형 오크통 모양을 한 독특한 건물 외관이 시선을 사로잡는 와인학교는 와인양조 실습장과 와인저장고, 와인터널, 와인카페 등을 갖춘 국내 최초의 와인학교로,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와인전문가를 육성해오고 있다. 와인제조과정에 대해 설명을 들은 회원들은 직접 와인을 만들어보기 위해 와인 체험장인 '고도리 와이너리'로 이동했다.

회원 가족들은 고도리 와이너리 대표인 최봉학 씨의 안내로 체험에 앞서 직접 포도따기에 나섰다. 와인제조에 사용될 포도 2kg을 정확히 따는 회원에게는 푸짐한 상품을 준다는 소리에 다들 무게 가늠하느라 분주했다. 가장 당도가 높은 포도따기, 포도껍질 멀리 뱉기 등 이어지는 다양한 게임에 회원들의 웃음소리도 끊이지 않았다.

게임 후 본격적으로 와인 담그기에 나선 회원들은 수확한 포도를 투명용기에 넣고 으깬 후 설탕과 효소를 넣어 자신의 이름이 적힌 뚜껑으로 봉했다. 이렇게 제조된 와인은 1차 발효 후 포도껍질을 걸러내는 착즙과정과 2차 발효과정을 거친 후 서늘한 곳에 보관하면 두 세달 후에는 자신만의 고유한 와인으로 탄생된다.

오전 일정 마지막은 부산시립예술단 단원과의 만남. 오숙례, 황선희 씨의 지도로 강강술래 배우기에 나섰다. 그저 원형을









지어 빙빙 도는 동작만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회원들은 쉽지않은 손동작, 발동작에 어느새 얼굴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다.

한바탕 뛰고 난 후 먹는 점심식사는 그야말로 꿀맛. 정성스럽게 준비된 백숙에 닭죽, 거기다가 고도리 와이너리에서 직접 담근 향기로운 와인까지 푸짐한 밥상에 마음도 풍성해진다.

점심식사 후 영천의 역사탐방을 시작했다. 위인의 자취를 따라가는 오후 일정의 첫 방문지는 임고서원. 고려말의 충신 포은 정몽주 선생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는 임고서원은 문충사, 홍문당, 영광루 등 건축물과 정몽주 선생의 영정 2폭, 포은문집, 지봉유설, 포은집 등 200여권의 중요한 서적이 소장되어 있다. 임고서원 앞에는 높이 약 20m, 둘레 약 6m의 수령 500년이 넘는 거대한 은행나무가 정몽주 선생의 충절을 기리듯 굳건히 서 있다.

최근에는 '임고서원 성역화사업'이 추진되면서 서원 주변이 공사로 어수선하다. 올해 12월 성역화 사업이 마무리되면 유물전시관을 비롯해 전통 한옥구조의 생활체험관과 원형극장, 연못, 녹지공간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또, 서원 앞 개울에는 정몽주 선생이 죽음으로서 충절을 지킨 개성 선죽교를 그대로 재현, 선생의 의로운 죽음을 기릴 예정이다.

임고서원에 이어 정기회원 가족들이 찾아간 곳은 노계 박인로 선생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는 도계서원. 송강 정철, 고산 윤선도와 더불어 조선 3대 시인인 박인로 선생은 부모에 대한 효심을 노래한 '조홍시가'를 비롯해 태평사, 선상탄, 누항사, 노계가 등 9편의 가사작품을 남긴 가사문학의 대가이다. 이 곳에는 노계 선생의 문집을 인쇄한 목판각인 박노계집판목(朴蘆溪集板木)과 그의 대표작인 조홍시가, 노계가가 새겨진 시비가 세워져 있다. 인근에는 명성에 비해 소박하기 그지없는 노계 선생의 무덤이 조용히 자리하고 있다.

이번 영천여행의 마지막 답사지는 광주 이씨 시조묘인 '광릉'. 푸른 잔디로 잘 가꿔진 넓은 대지에 자리한 호화로운 무덤에 정기회원들의 탄성이 절로 나온다. '광주 이씨'의 시조묘가 영천에 자리한데는 '광주 이씨'와 '영천 최씨' 사이에 얽힌 아름다운 설화가 전해져 내려온다. 전민욱 해설사가 들려주는 설화 이야기를 경청하다 보니 어느새 해가 기울기 시작한다.

포도향 가득한 자연 속에서 역사의 발자취를 따라 가을을 느끼고 돌아온 영천여행. 숙성된 와인이 뿜어내는 향긋한 내음처럼 오랫동안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글, 사진/정복엽)

2010년 12월에는 **창녕**으로 역사기행을 떠납니다.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님들은
신청엽서를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로 보내주십시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정기회원 테마여행'게시판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마감 11월 15일)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0)

11월 테마여행 당첨자

엽서당첨자

김광렬(부산진구 양정1동)
김산(기장군 기장읍)
서영란(남구 용호1동)
이영일(중구 영주동)
이옥순(금정구 구서1동)
정인옥(해운대구 좌동)
조순연(남구 우암1동)
최경자(남구 대연1동)
함수정(동래구 안락동)
황광주(수영구 망미2동)

신규가입자

권순일(사상구 괘법동)
김종근(기장군 장안읍)
김하진(영도구 대평동 1가)
오세찬(동래구 온천3동)
우귀화(부산진구 양정동)
이근희(해운대구 반여1동)
이준한(기장군 기장읍)
이지영(양산시 물금읍)
장우연(금정구 부곡동)
함예슬(북구 화명동)

14억 중국의 자존심, 아시아를 이끌다!

중국 내셔널 심포니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CHINA National Symphony Orchestra CONCERT

Conductor 리 신차오(Li Xincao) Violin 한효림



2010.11.14 일 SUN pm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 (사)한국음악협회 부산MBC 대표방송 KNN 주관 | 대한민국국제음악제 집행위원회

후원 | 문화관광부 외교통상부 주한중국대사관 Arte TV 협찬 | 에어부산

입장료 | VIP석 100,000원 | R석 80,000원 | S석 50,000원 | A석 30,000원 예매처 | 티켓링크 www.ticketlink.co.kr 1588-7890 공연문의 | 코리아인아트 070-4063-9910

지휘 리 신차오 | Li, Xincao | 李心草



**아시아 음악계를 이끌 숨겨진 보물,
넘치는 카리스마를 가진 암보 지휘의 천재 리신차오
"21세기 중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젊은 거장"**

리 신차오는 금세기 가장 유명한 지휘자 중 한 명으로 현재 중국국립교향악단의 상임 지휘를 담당하고 있다. 20세의 나이로 중국센트럴필하모닉, 상하이심포니와 같은 중국 내 거의 모든 정상급 오케스트라들을 지휘했다.
〈제1회 중국 국립 지휘 콩쿠르〉우승, 중국 중앙 음악원을 졸업하고 국립오페라 발레극장의 수석지휘자로 활동하였다. 오스트리아 국립비엔나음악대학 지휘 과정에 입학했고, 〈제45회 브장송 국제 지휘자 경연대회〉 2위를 기록했다. 1999년 중국국립교향악단의 상임지휘자와 중국국립가극장의 음악감독으로 임명되어 세계 각지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리신차오는 음악에 대한 보통 사람을 초월한 이해력, 믿음직하고 정확한 지휘 능력 및 작품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광범위한 적응 능력을 가지고 있다. 2009년 6월부터는 한국의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지휘자로도 취임하여 특유의 신선하고 열정적인 음악성으로 한국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바이올린 한효림

**커티스 음악원 최연소로 졸업한 신예 바이올리니스트
뉴욕 Bachnalia violin competiton
1위 등 국제콩쿨 입상**

영민한 바이올리니스트 한효림은 감성과 이성이 잘 조화된 음악성으로 어려서부터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13세에 커티스 음악원에 입학, 2010년 졸업했다. 영아티스트로서 차세대 세계에 한국을 빛낼 아티스트를 예고한 듯 각종 콩쿠르를 석권하며 그 재능을 새삼 확인시켜 주었다. 2001 이화경향, 음악춘추, TBC 대구방송, 한얼, Summit Music Festival Competition, Wieniawski Junior competition, Bachnalia violin competiton 등 화려한 캐리어로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에 '무대의 영광'으로 화답했다.

한효림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예비학교 김남윤 사사, 예원학교 양고운을 사사, 커티스 음악원 Aaron Rosand과 Victor Danchenko를 사사했다. 국내외 굴지의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면서 "그 예술의 매혹적인 독자성과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음악의 깊은 내면을 진솔하게 그려내는 촉망받는 아티스트"란 평가를 받고 일취월장하고 있다.

연주 중국국립교향악단
China National Symphony Orchestra

*14억 중국 유일의 국립 교향악단
아시아 음악의 주류로 떠올라!*

아시아 음악계 주류로 떠오른 중국의 힘
생명력 넘치는 소리를 가진 원숙한 그룹이다.
-〈런던 타임스〉誌

리 신차오가 이끄는 CNSO는 충실하고 에너지가 충만하며 정확하게 훈련되어 있다.
-〈워싱턴 포스트〉誌



중국국립교향악단(이하 CNSO)은 세계 정상을 노리는 중국의 야심작이다. 중국 정부에서 창단한 최초의 서양 관현악단으로 14억 중국을 대표하며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리신차오(Li Xincao)가 상임지휘를 맡고 있으며, 유명한 작곡가인 관샤(Guan, Xia)가 단장 겸 음악감독직을 맡고 있다. 세계적 콩쿠르에서 수상한 최우수 연주자들이 단원으로 구성되면서 높은 수준의 실력을 갖춘 교향악단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CNSO는 중국 교향악의 발전에 앞장서왔으며, 그동안 카라얀(herbert von Karajan) 등과 같은 저명한 지휘자들과 다비드 오이스트라흐(David Oistrakh), 예후디 메뉴인(Yehudi Menuhin) 등 세계적인 연주자들과 함께 찬사를 받았으며 세계 각지에서 열린 성공적인 연주 투어로 호평을 받아왔다.
현재 CNSO는 세계 각지의 순회공연 외에도 중국 내 정기연주회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육 음악회, 베이징 대학에서 개최하는 캠퍼스 콘서트, 부속 단체인 중국 중앙 합창단과 개최하는 합창곡 연주회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CNSO의 많은 공연들이 세계적으로 출판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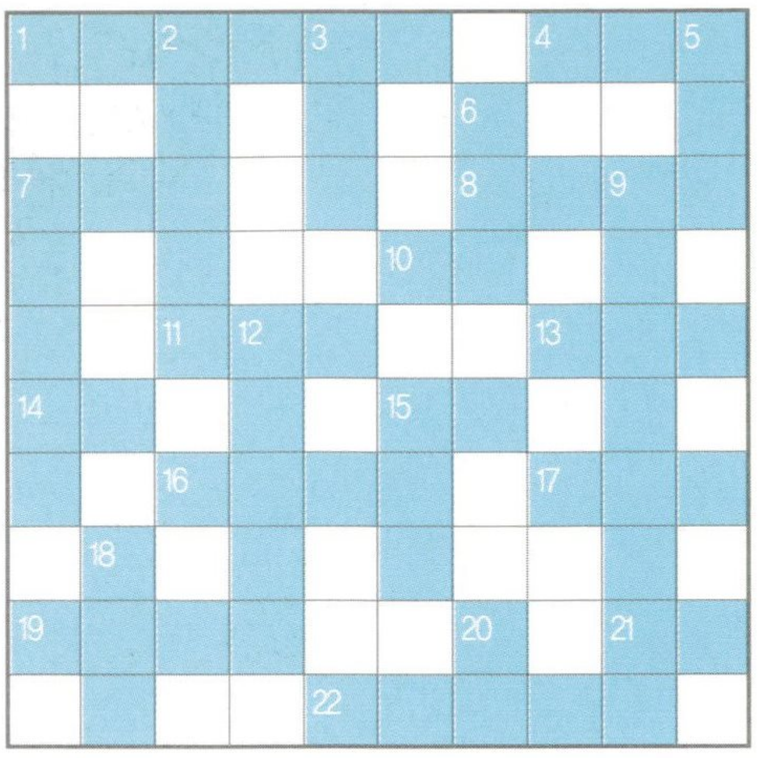
PROGRAM

C. Saint-Saëns
생상스

Concerto for Violin and Orchestra No.3 in b minor op.61
바이올린 협주곡 제3번 B단조 Op. 61

R. Strauss
스트라우스

Ein Heldenleben
영웅의 생애



가로열쇠

1_ 개관 22년만에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10월 8일 새로운 모습으로 재개관한 부산문화의 본당.

4_찰리 브라운과 함께 미국 만화가 찰스 먼로 슐츠의 연재만화 속에 등장하는 애완견.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으면서 아폴로 10호의 달 착륙선 이름으로 명명되기도 했다.

7_원래 아프리카의 민속악기였으나 흑인노예에 의해 미국으로 반입된 후 멕시코, 중남미에 보급되어 라틴아메리카의 민속악기로 정착된 실로폰의 일종.

8_'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이라는 뜻의 순 우리말.

10_가극, 조곡(組曲) 등의 막을 열기 전이나 주요한 부분을 시작하기 전에 연주하는 기악곡.

11_궁중의 연희 때와 세모(歲暮)에 역귀를 쫓는 의식 뒤에 추던 춤 파랑, 노랑, 빨강, 하양, 검정의 옷을 입은 다섯 무동이 탈을 쓰고 다섯 방위로 벌여 서서 춤을 춘다. 중요무형문화재 제 39호.

13_죄의식에 사로잡혀 사랑 때문에 자신을 파멸시키는 아테네 왕비 ㅇㅇㅇ의 운명을 그린 프랑스 극작가 라신의 비극. 10월 8일과 9일 부산시립극단 제 39회 정기공연으로 선보였다.

14_중국과 인도 사이인 히말라야 산맥 중앙부의 남쪽 반을 차지하는 내륙국가로 세계 10대 최고봉 가운데 8개를 보유한 산악국가 수도는 카트만두.

15_ 중국이나 몽골 등 아시아 대륙의 중심부에 있는 사막과 황토 지대의 작은 모래나 황토 또는 먼지가 하늘에 떠다니다가 상층 바람을 타고 멀리까지 날아가 떨어지는 현상.

16_다른 산의 나쁜 돌이라도 자신의 산의 옥돌을 가는 데에 쓸 수 있다는 뜻으로, 본이 되지 않은 남의 말이나 행동도 자신의 지식과 인격을 수양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7_이탈리아의 작곡가 베르디가 1871년 수에즈 운하 개통을 기념해 작곡한 오페라. 에티오피아 왕녀와 이집트 장군 라다메스의 비극적 사랑을 노래한 작품이다.

19_BC 500년경 신(新) 바빌로니아의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왕비 아미티스를 위해 건설한 정원. 세계 7대 불가사의의 하나로, 실제로 공중에 떠있는 것이 아니라 높이 솟아있다는 뜻이다.

21_야구에서 배트를 휘두르지 않고 공에 배트를 갖다 대듯이 가볍게 밀어 공을 내야에 굴리는 타법.

22_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김지훈 감독의 2007년 영화. 영화제목인 'ㅇㅇㅇㅇㅇ'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비공식적인 작전명으로 추정된다.

세로열쇠

2_문화생활을 충분히 누리기 힘든 저소득층에게 문화공연 관람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3_부모의 크고 깊은 은혜를 보답하도록 가르친 불교 경전을 노래한 경기명창 김영임의 대표곡.

5_팬터마임, 서커스, 희가극에 등장하는 익살꾼.

6_형식, 내용면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환상곡풍의 기악곡. 랩소디.

7_실로 매달아 조작하는 인형극.

9_스타를 꿈꾸는 코러스걸의 좌절과 성공을 담은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대표작. 11월 27일과 28일 부산문화회관에서 부산시민들과 만난다.

12_산세가 흡사 용 모양이어서 일본에서 건너오는 왜구들을 삼켜버릴 기상이라 하여 부쳐진 ㅇㅇㅇ에 조성된 공원. 부산항과 영도가 내려다보이는 경승지로, 척화비와 충혼탑, 4·19기념탑, 이충무공동상, 부산탑 등이 세워져 있다.

15_한국문학에서는 거의 낯선 노동과 생산, 부와 빈곤의 문제를 즐겨 다루는 소설가. 대표작으로 객지, 삼포가는 길, 장길산, 오래된 정원 등이 있다.

18_조선 말기인 1885년 2월 29일 고종이 미국 선교의사인 호러스 알렌의 건의를 받아들여 서울 재동에 설립한 한국 최초의 근대식 병원. '널리 은혜를 베푼다'는 뜻의 '광혜원'에서 출발했으나 후에 이 이름으로 바뀌었다.

20_동지와 대한 사이의 절기로, 한국에서 1년 중 가장 춥다.

지난호 정답

부	산	불	꽃	축	제		비	발	디
산			지		우		보		토
국	기	원		미	스	사	이	공	
제		빈				랑		쿠	바
영				혼	천	의		르	
화	개	장	터			묘			마
제		윤				약	속		린
	고	성	오	광	대				스
	구			릉			하	루	키
한	려	수	도		통	영		피	

퍼즐당첨자 명단

▪ 부산은행 조은극장
김광렬(부산진구 양정1동)
김기호(남구 용당동)
김호은(서구 부용동2가)
박미정(금정구 장전동)
이지영(양산시 물금읍)

▪ 공간 소극장
김금순(연제구 연산2동)
김남주(남구 대연동)
김은지(북구 구포2동)
김현영(서구 서대신동2가)
윤인숙(기장군 기장읍)

▪ 나랏소
김진호(남구 대연3동)
류정숙(동구 초량2동)
이은주(남구 대연2동)
이송란(연제구 연산동)
최은숙(해운대구 우동)

▪ 큰집
박정화(사하구 당리동)
장미화(연제구 거제3동)
정희은(금정구 부곡4동)
조용범(동구 수정2동)
차길자(동구 수정5동)

그리움이 있는곳에
늘 고향이 있습니다
韓國傳統飮食店
큰 집
예약. 051-245-3320
업무. 051-255-4547
◈ 예약을 하시면 특별찬(샐러드, 죽)을 제공해 드립니다.
◈ 큰집은 광복로 국제시장에 있습니다.

남포동과 광복동의
새로운 문화공간
BS 부산은행 조은극장
TEL.1588-2757

사계절 문화공연 사랑이 살아 숨 쉬는 곳
부산에는 공간 소극장이 있습니다.
문화공간사계
공간소극장
(051)611-8518
문화공간사계 cafe.daum.net/say012

나랏소 한우
한우 숯불구이 금양 전문점
TEL.051-628-8814
대연동
시티원골프연습장 입구

⊙ 보내실곳 / 부산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에의 초대' 담당자 앞
(상품이 반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꼭 적어 2010년 11월 15일까지 보내주십시오)

토요상설무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11월 6일 토요일 오후 4:0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연주회



프로그램

수제천(집박/유경조 · 대금/엄익준, 이만형, 최재호 · 소금/손한별 · 피리/박춘석, 최성교, 권미정 · 해금/정수경, 이은주, 박은희 · 아쟁/권혜정, 최희정 · 장구/이장우 · 좌고/장미진) 수제천(壽齊天)은 정읍(井邑)또는 빗가락정읍이라고도 한다. 왕세자의 거동 때에 쓰였기 때문에 일정한 박자가 아닌 자유로운 리듬으로 진행되는 불규칙장단이며 그 한배(빠르기)가 대단히 완만하나 장중하기 이를 데 없는 아악곡의 백미(白眉)라 할 수 있다.

단소독주 '청성곡' (단소/조은경) 이 곡은 다른 이름으로 '청성자진한잎'이라고도 부른다. 청성곡은 연주자의 호흡과 흐름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 때 그때 상황에 따라 기교를 더 넣을 수 있고 뺄 수도 있다.

거문고 산조(거문고/한정임 · 장구/송강수) 거문고산조는 고종 33년(1896) 백낙준에 의해 처음으로 연주되었으나, 일부 층에 의해 거문고의 품위를 손상시킨다는 비난을 받아 빛을 보지 못하다 개화기에 들어서 인정받기 시작하였다. 모든 악장의 처음 부분이나 중간에 잠깐 나오는 담담하고 꿋꿋한 느낌의 우조와 흔히 끝에 나오는 슬프고 부드럽고 애절한 느낌의 계면조로 짜여 있다.

기악합주 '남도굿거리, 금강산타령, 동백꽃타령'(대금/강은주 · 피리/박순자 · 해금/김민정 · 아쟁/홍영혜 · 가야금/정미자 · 거문고/엄애리 · 장구/신문범) 호남지역에 전승되는 향제 풍류음악 중에서 끝 곡인 굿거리 부분을 따로 떼어내어 선율에 변화를 주어 기악곡으로 만든 남도굿거리, 금강산의 절경을 사설에 넣어 부른 금강산타령, 씩씩하고 흥겨우면서도 흐느적거리는 풍이 특징인 동백꽃타령을 들려준다.

산조합주(대금/한영길 · 피리/김경수 · 해금/김소 · 아쟁/하성진 · 가야금/정미자 · 거문고/오상훈 · 장구/송강수) 가야금, 거문고, 해금, 피리, 대금, 아쟁, 장구 등의 악기를 하나, 혹은 둘씩 편성하여 산조의 기본골격을 연주하는데, 합주로 진행되는 중에 각 악기 연주자들은 마치 농악의 '개인놀음'처럼 순서에 따라 독주로 자신의 기량을 펼쳐 보이며 음악의 흥을 자아낸다.

· 해설/백규진

11월 20일 토요일 오후 4:00

낙동민속보존회 공연



프로그램

사물놀이(쇠/최익규 · 징/손희자, 김선자 · 북/김정근, 강영숙, 최성용, 이영희 · 장구/황영미, 이기범, 구미숙) 사물놀이는 꽹과리, 징, 북, 장구의 악기로 편성하여 경기, 호남, 영남 지방의 특색을 살려 느리고 빠른 장단의 리듬을 구사하며 짝쇠의 주고받는 가락이 절정을 이룬다.

남도민요(소리/김귀수, 한옥자, 박숙자 · 아쟁/강성인 · 장구/공정희 · 대금/선우철준) 전라도를 비롯하여 충청남도와 경상도 지역의 노래를 남도민요라 한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성주풀이, 남원산성, 진도아리랑을 노래한다.

판소리(판소리/섬진강 판소리학교 교장 김소현 · 고수/강성인) 흥보가 중에서 박타는 대목과 놀부가 흥보집에 건너서 화초장을 짊어지고 가는 대목을 중요무형문화재 5호 강도근 선생의 전수자인 김소현 선생이 소리한다.

모듬북(출연/김귀수, 김정근, 이기범, 최익규, 황영미, 구미숙, 임일숙, 최성용, 손희자) 모듬북 합주는 음정이 다른 여러북을 모아서 연주하며 때로는 잔잔하고 또는 웅장한 소리가 말발굽 소리를 연상시키는 신명난 한판이다.

• 관람료 : 선착순 무료 입장(7세 이하 어린이는 공연장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 문의 : 부산문화회관(607-6056)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부산시립예술단원들과 함께 떠나는
품격높은 테마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우포늪

▶ 2010년 12월 10일 (금) 자연생태계의 보고(寶庫) 창녕 우포늪

자연생태계의 보고(寶庫)인 우포늪으로 떠나는 겨울 여행. 우포를 품고 있는 역사의 고장 창녕과 창녕사람들, 우포늪의 역사, 우포늪의 철새, 우포늪에 사는 동식물 등을 살피며 환경의 소중함을 배워본다.

▷ 08:00 부산문화회관 출발
▷ 10:00 창녕 도착, 창녕박물관, 창녕고분군, 성씨고가 등 답사
▷ 12:00 중식
▷ 13:00 우포 생태탐방, 철새탐조
▷ 16:00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 16:30 부산으로 출발



포로수용소

▶ 2011년 1월 14일 (금) 한려수도의 중심 거제도 겨울여행

가덕도와 거제를 잇는 거가대교의 완공으로 부산과 한층 더 가까워진 아름다운 섬 거제도로 떠나는 겨울여행. 영화와 드라마로 아름다움을 널리 알린 거제도의 역사와 문화를 들여다본다.

▷ 08:00 부산문화회관 출발
▷ 10:00 거제도 도착, 옥포대첩 기념공원, 조선해양문화관
▷ 12:30 중식
▷ 14:00 거제도 포로수용소
▷ 16:00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 16:30 부산으로 출발

※ 체험비는 참가자 부담입니다.

※ 거가대교 개통일 변경으로 12월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BUSAN CULTURAL CENTER Membership
culture.busan.go.kr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가입하시면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시립예술단 공연을
편리하게 예약, 관람할 수 있으며, 부산시내 전 공연정보를 담은
'예술에의 초대'를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culture.busan.go.kr)를 통해**
조기예매와 다양한 공연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회원종류 및 가입회비

구 분	가입회비	할인매수
특별회원	50,000원	공연시 4매 할인
일반회원	30,000원	공연시 2매 할인
청소년회원	20,000원	공연시 1매 할인
단체가입	30명이상 가입 10%할인	

- 회원기간 : 가입일로부터 1년
- 할 인 율 : 기획공연 5~30%·시립예술단공연 5~20% / 할인횟수 제한없음
- 좌석선택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좌석선택
- 가입신청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 탈 퇴 : 5일 이후 탈퇴시는 일정액 (수수료) 제외 후 환불
- 예약취소 : 공연 당일에는 취소 및 환불 불가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 Tel. 051) 051-607-3100 Fax. 051-607-3109

우편엽서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전화: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04. 4. 1~

남부산우체국
승인 제 184 호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에의 초대 담당자 앞

608-024

우편엽서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전화: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04. 4. 1~

남부산우체국
승인 제 184 호

받는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에의 초대 담당자 앞

608-024

Since 1981 philharmony

식사·Wine·Beer·차를 함께 즐기는 편안한 문화 사랑방



◈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10% 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2층 ☎ 628-2592

뮤지컬 슈사인 보이 20% 할인



2010.10.29(금) ~ 11.28(일)
평 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6:30

▶ 입장권 : 균일 30,000원
▶ 장 소 : BS부산은행 조은극장 2관
▶ 문의 및 예매 : 1588-2757

※ 쿠폰소지회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공연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세계문화체험 중심

용두산공원 부산타워
통합입장권 특별할인

(전망대+세계민속악기 박물관
: 대인 5,500원, 소인 4,500원)

▶ 날짜 : 2010. 1. 1(금)~12. 31(금)
▶ 시간 : 오전 10시~오후 6시
(마지막 입장 오후 5시 30분)

혜택 쿠폰제시시 통합입장권에 한해 1매 2인 까지 20% 할인

부산타워 상담전화 ☎ 245-1066

예매 및 문의
051) 744-4885

JUMP
Comic Martial Arts Performance

점프 20% 할인

평일 20:00 / 토 · 공휴일 17:00, 20:00 / 일요일 18:0

IBK 해운대 그랜드호텔 Bl 50,000원(R석) / 40,000원(S석

* 쿠폰제시 시 1매 4인까지 할인 가능 * 전화 및 현장 예매 시 할인 가능 * 타 쿠폰, 할인카드 중복사용 불가

참존 직영점

참존 스킨타운 부산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마사지무료 체험권



※방문시간 사전 예약제

부산시 남구 대연4동 733번지 유안빌딩 051-626-676

부산 MBC창사 51주년 기념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65회 정기연주회 및 2010송년 음악회

부활

말러 교향곡 제 2번 다단조 '부활'

2010. 12.17(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할인)

지휘 리 신차오 협연 소프라노 강혜정, 메조소프라노 김정화 연주 부산시립교향악단, 큐슈심포니오케스트라, 부산시립합창단, 대구시립합창단

문의 | 부산시립교향악단 051) 607-3111~3

금경(한식퓨전)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10% 할인

부산박물관 옆 ☎051-611-1960

※ 이 쿠폰과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2010년 12월 응모

■ 회원명

■ 연락처 · 자택 · 휴대폰

■ e-mail

■ 동행자 인적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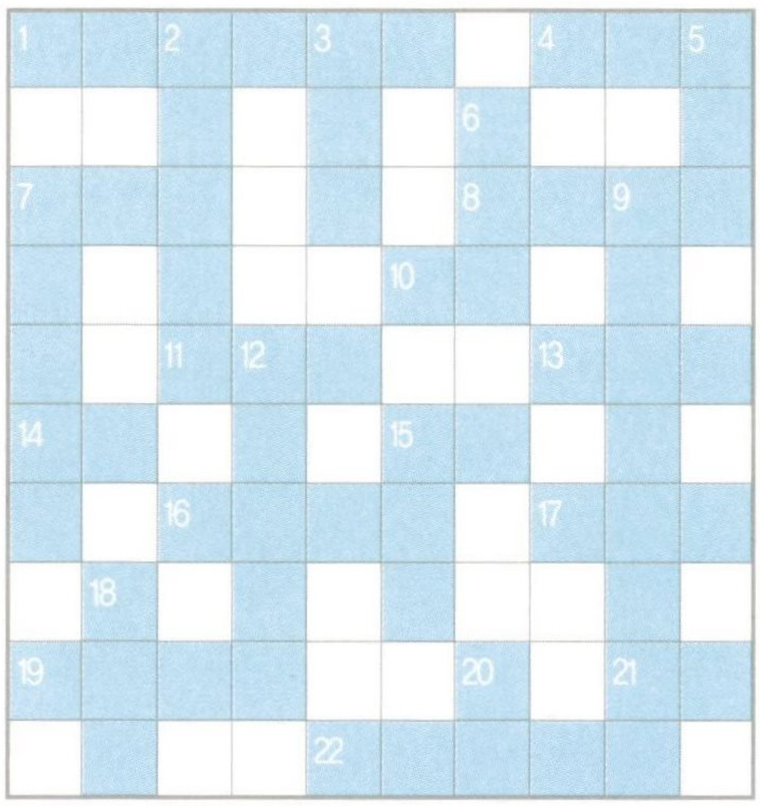
· 이름

· 주소

· 연락처

※ 가보고 싶은 여행지나 참여하고 싶은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추천해 주십시오.

퍼즐 정답



1. 이번호에서 유익했던 기사는?

2.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은?

3.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은?

말 한마디에 천냥 빚 갚는다?!

NO

광고하나로 천냥 빚 갚는다!!

YES

효과있는 광고로 당신의 근심, 걱정을 날려 보내 드립니다

제 작 / 각종 프로모션, 홍보부스, 영상물, 사인물 등
광 고 / 지하철, 신문, TV, 라디오 등
디자인 / 편집디자인, CI, BI등

원칙에 충실한 광고회사 ANK
TEL : 051.755.3002 웹하드 : ankokok / ankokok
홈페이지 : www.ank.or.kr

부산시립무용단 제 63회 정기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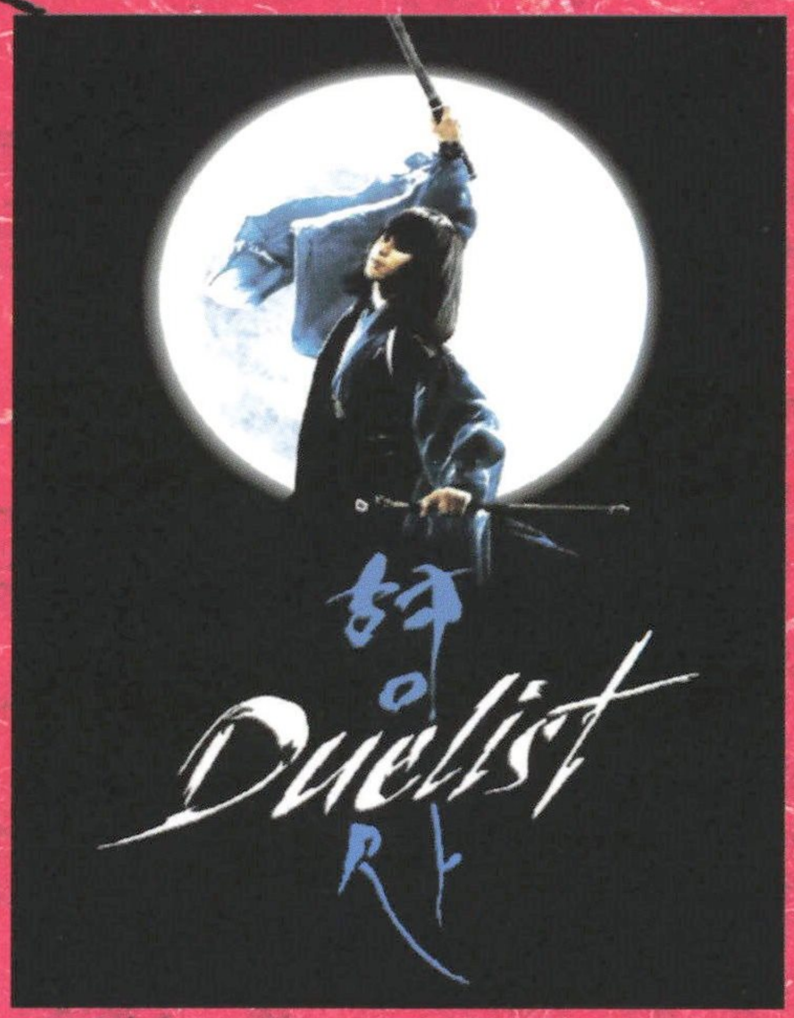
The 63rd Bi-annual Performance of Busan Metropolitan Dance Company

협객 Duelist

원작 이명세(영화감독)

춤으로 만나다 영화를

Dance Meets Movie...



안무·구성 홍 기 태

(부산시립무용단수석안무자)

2010. 11. 18 (목)~19 (금)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R석 10,000원 S석 7,000원 A석 5,000원

주최 부산광역시 주관 부산시립무용단 Busan Metropolitan Dance Company 후원 metro BFIC BUSAN FILM COMMISSION 부산영상위원회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 607-3100 부산시립무용단 607-3131~2 www. koreanfolkdance.com

예매 부산문화회관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ticketlink www.ticketlink.co.kr 콜센터(1588-7890) BS 부산은행

부산문화회관 재개관 기념 기획공연

국제신문 창간 63주년 기념

소프라노 조수미

독일 가곡 콘서트 *Morgen*

2010.12.7 | 화 |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 최 | 부산광역시 국제신문 주관 | 부산문화회관 협찬 | 동명대학교 TONGMYONG UNIVERSITY

관람료 | R석 12만원, S석 8만원, A석 6만원, B석 5만원 문의 | 부산문화회관 공연과 (607-6058) 홍보마케팅부 (607-3100)

예 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http://culture.busan.go.kr / 티켓링크 www.ticketlink.co.kr / 부산은행 전지점